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6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1월 19일)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조계종 15대 종정으로 추대된 중봉성파 대종사가 추대 직후 진행된 고불식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에게 삼배받고 있다. 성파 대종사는 고불식서 동체대비와 호국불교를 강조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대종사 추대

12월 13일 종정추대위원회서 만장일치로 추대
추대 후 조계사 고불식 봉행…"동체대비" 강조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제15대 종정에 중봉 성파 대종사〈사진〉가 추대됐다.

조계종 종정추대회의는 12월 13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차기 종정추대의 건을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중봉 성파 대종사를 추대했다.

종정추대회의에는 원로의원 20명 중 현호 스님을 제외한 19명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등 22명이 참석했다. 종정추대회의에서는 정련 스님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만장일치로 성파 대종사를 종정으로 추대했으며, 성파 대종사의 임기는 오는 2022년 3월 26일부터 5년이다.

이날 종정추대회의가 끝난 직후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은 신임 종정으로 추대된 성파 대종사를 모시고 조계사 대웅전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과 총림 스님들이 성파 대종사에게 꽃다발을 전했으며, 경내에 있던 사부대중은 박수로서 새로운 종정 추대를 축하했다.

고불식에서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불기 2565년 12월 13일에 개최된 종정추대회의는 생명 위기, 평화 위기, 건강 위기의 사바세계에 불조의 혜명을 드리우사 청량한 감로의 법우를 내리어 삼계화택의 불길을 꺼주시기를 바라며, 참석대중이 만장일치로 중봉당 성파 대종사를 제15대 종정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성파 대종사는 헌화와 헌다, 삼배를 통해 부처님전에 새 종정으로 추대됐음을 고한데 이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대중들이 대종사에게 삼배로서 존경의 예를 표했다.

성파 대종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부족한 소승을 원로 스님들께서 종정으로 추대해 주셨다"고 감사를 전하면서도, 아직 현 종정스님께서 임기가 남아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간략한 소감만을 밝혔다.

대종사는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말로 하기보다 말과 행을 함께하는 수행정신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소임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항상 동체대비 사상을 잊지 않고 호국불교의 기치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종정은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고 법통을 승계한다는 점에서, 종단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

종헌에 따르면 종정은 종단 최고 어른으로서 상징성과 권한을 가진다. 전계대화상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과 징계, 또는 종단 징계에 대한 사면, 경감, 복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종단 비상시에는 원로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다. 종정의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현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는 연임해 2022년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된다.

원로회의법에 따르면 종정 추대회의는 종정 임기 만료 3개월 전 혹은 유고시 원로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추대회의에는 원로회의 의원 전원과 총무원장, 호계원장, 중앙종회의장이 참여하며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현재 원로회의 인원은 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를 포함해 21명이다.

한편, 성파 대종사는 조계종 36대 집행부 핵심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하며 원행 스님에게 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禪藝一致' 보인 선지식
"수행, 예술도 일상일뿐"

종정 추대된 중봉 성파 대종사는

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추대된 중봉 성파 대종사는 선방에 앉아 참선만 하는 수행자가 아니다.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치며 '예술이 곧 선수행' 임을 보여준 선지식이다.

성파 대종사는 1960년 10월 15일 통도사 노천 월하 대종사를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고, 1970년 4월 7일 월하 대종사에게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1년 1월 15일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강주인 홍법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아 강주가 됐다.

또한 1998년 봉암사 태고선원 수선안거 이래 총 26안거를 성만했다.

2002년 2월에는 당시 영축총림 방장이었던 월하 대종사로부터 "환성문하 13세손으로서 크게 법을 펴라"는 격려와 더불어 '사람들 각기 자신의 등불을 가졌으니, 어찌 해와 달을 기다려 앞길을 찾으랴(人人各持自燈火 豈待日月尋前路)' 의 전법게 및 '중봉(中峰)' 이라는 법호를 함께 받았다.

대종사의 진면목은 예술활동에 있다. 실제 대종사는 사찰에 내재된 전통문화와 예술을 발굴하고 이를 선과 접목한 '선예일치(禪藝一致)' 의 작품세계를 펼쳐왔다.

1991년부터 2012년 4월까지 21년에 걸쳐 도자기를 구워 제작한 16만 도자대장경을 조성하고 장경각을 건립해 봉안했다. 천연염색 및 새로운 옻칠기법을 개발해 사찰단청과 건축, 도자기 및 그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 적용시키기도 했다. 최근에도 사찰로부터 유래한 한국 전통회화인 민화에 옻칠기법을 접목하는 등 다양한 예술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또한 불화, 경전 등 사찰불사의 바탕이 되는 우리 한지(韓紙)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는 중이다. 대종사는 이런 공로로 지난 2017년 국가로부터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성파 대종사는 자신의 작품을 예술로 생각하지 않는다. 일상이라고 했다.

"그냥 일상일 뿐입니다. 수행자에게 일상은 수행이죠. 수행을 따로 하고 예술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상생활의 소산을 '예술' 이라고 하는 것도 세인들이 붙인 것이지, 난 이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수행도 예술이라고 이름붙인 것도 그냥 일상일 뿐입니다." –본지 2016년 6월 10일자 인터뷰서

대종사는 교육 및 문화활동에도 꾸준히 힘을 기울였다. 1980년 2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던 학교법인 원효학원의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1988년 5월 원효학원이 범어사와 분립되자 학교법인 영축학원을 설립하고 38년간 종립학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성파 시조문학상 및 전국 시조백일장을 제정해 한국 시조문학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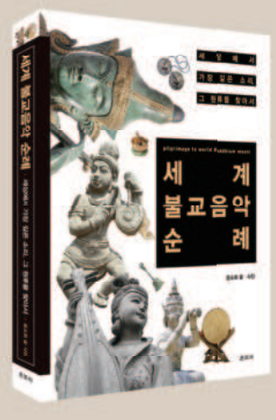
16만 도자대장경 조성해
옻칠 등 전통 보존 '앞장'

또한 대종사는 1980년 조계종 사회부장, 교무부장, 규정부장을 역임하며 종단 발전에 힘을 보탰고, 1981년 3월에는 통도사 제20대 주지로 취임하며 교구본사 및 지역불교 발전에도 매진했다. 통도사 주지에서 물러난 후에는 모든 소임을 내려놓고 통도사 서운암 감원으로 주석하며 선수행에 온전히 매진했다.

2013년 4월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선출됐으며 2014년 1월 조계종 최고품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2018년 3월 산중총회를 통해 영축총림 제4대 방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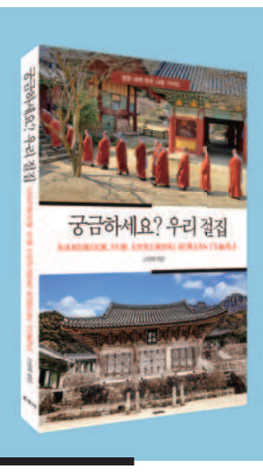
옻칠로 재현한 울산 반구대암각화 위에서 성파 대종사가 도판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불교음악 범패의 원류를 찾아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찾아 기록한 20년 여정의 대기록!
세계 불교음악 순례

왜 불교음악은 나라마다 다른가? 각국의 불교음악은 어떻게 변용되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세계 불교음악의 현장을 생생한 기록과 풍부한 사진으로 보여준다.

윤소희 지음/사륙배판/440쪽
값 28,000원

인물로 보는 중국 선사상사

한 권으로 읽는 중국 선의 역사!
중국 선종사의 주요 선사들의 삶과 사상 등을 살펴보면서 중국 선의 방대한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망한 역작! 풍부한 사진과 꼼꼼한 법계도가 이해를 돕는다.
정운 지음/신국판/양장/616쪽/값 30,000원


고연희 엮음/신국판 변형
244쪽/값 14,800원
궁금하세요? 우리 절집
HANDBOOK FOR EXPLORING KOREAN TEMPLE
때론 영어로 보면 더 쉬운 불교공부
익숙하지만 막상 정확하게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우리 절집! 외국인과의 대화 형식으로 절집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영한 대역 불교입문서!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대정부 이슈·범종단 종교편향 저지

2021년 종단 결산

각 종단의 크고 작은 변화 속
안정적 운영으로 내실을 기해
정청래 의원·캐럴캠페인 등
불교계 공분 결집하는 계기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향의 방문한 스님들.

올해 불교계는 각종단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대정부 이슈가 이어진 해다. 코로나19 사태로 각 종단들이 정부지침에 적극 협조하면서 성공적인 방역 사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한편, 잇단 종교편향 논란으로 범불교적 차원에서 불교왜곡·종교편향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조계종과 태고종 간 선암사 소유권 논쟁이 다시 수면위로 올랐고 각 종단들의 크고작은 변화 속 오랜 혼란에 몸살을 앓던 법화종은 마침내 정상화 토대를 구축해 눈길을 끈다.

종부세 논란 등 대정부 이슈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준이 변경되면서 전통사찰에 부과되는 세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통사찰의 유지보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오랜세월 동안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사찰이 다수의 주택 부지나 농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왔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실질적인 과세가 부과됐고 법인에 대한 제세도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임대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돼 "사찰땅 팔아 세금을 내야 할 지경"이라는 하소연이 적지 않았다.

이에 조계종은 "개정된 종부세 부과기준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우리민족 공공의 문화자원이자 유산인 전통사찰의 유지 및 보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조계종은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이의신고 기간 내 관할 세무서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취소 및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불교왜곡·종교편향 적극 저지

반복돼 온 불교왜곡·종교편향에 불자들의 공분이 폭발하면서 범불교 차원의 저지활동이 잇따라 확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 관람료 왜곡발언이 기폭제가 됐다. 정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이를 징수하는 사찰은 '봉이 김선달'로 폄훼해 문화재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그동안 반복돼 온 종교편향 이슈도 잇따라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주어사와 천진암 등 사찰터가 가톨릭 순교지로 성지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투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넘은 성지화' '역사 덮어쓰기' 논란이 크게 일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독교음악인 캐럴을 활성화하는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산발적으로 일었던 종교편향·불교폄훼 저지 움직임이 범종단 차원으로 확산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종교편향범종단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조계종은 종교편향·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를, 중앙종회까지 종교편향·불교왜곡 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파장은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각 종단 안정적 운영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 사찰과 각 종단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은 가운데, 올해 각 종단들은 안정으로 내실을 다지는 모습이다.

조계종은 위축된 해외사찰 활성화를 위해 해외특별교구 국내 사무처를 설립했으며, 10주년을 맞은 승려복지 안착을 위한 성과 분석과 미비점 개선으로 확고한 토대를 다졌다. 태고종은 내홍의 상처를 완전히 딛고 성장을 위한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그 일환으로 100년 역사에도 사실상 명맥이 단절됐던 〈월간 불교〉를 복간하고 법제개정과 체제정비 등에 매진했다.

지난해 극심한 내홍으로 혼란했던 법화종은 올해 새로운 종정 도선 스님이 추대된 이후 총무원장 서리 체제로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총지종도 내년 창종 50년을 앞두고 새 통리원장 우인 정사가 선출되면서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고 있다.

거세지는 종교편향 대응 범불교도대회 추진도

대책위, 12월 16일 대응안 논의

수없이 반복돼 온 종교편향 및 불교왜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불교계 행보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조계종 종교편향·불교왜곡범대책위원회가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강경책으로 내년 1월 승려대회, 2월 범불교대회 개최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중앙종회도 종교편향·불교왜곡 대응특별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조계종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위원장 원행 스님, 이하 범대책위)는 12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반복되고 있는 종교편향과 불교왜곡 발언과 관련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범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범대책위에서 요구한 대로 정청래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교구본사와 지역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항의 시위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항의 시위는 전국비구니회를 비롯해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대불청, 대불련 등 불교단체들도 함께하기로 했다.

범대책위는 또 문체부의 캐럴 보급 캠페인에 대한 종교편향 문제를 불자들에게도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 관련된 유인물을 제작, 전국 사찰에 배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청래 의원의 불교왜곡 발언을 규탄하는 현수막 게시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선관위 측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 180일 전부터는 현수막에 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온 만큼, 법률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범대책위는 또 내년 1월 중순까지 불교왜곡과 종교편향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1월 중하순 승려대회에 이어 2월 중순 범불교대회를 여는 등 조직적인 행동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일정은 내년 1월 18일 서울 조계사에서 예정된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게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장 원행 스님은 최근 불거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불교 폄하 발언과 문화체육관광부 캐럴 캠페인, 문재인 정부 이래 벌어진 종교편향 행위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우리가 불교의 자주권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해 이 난국을 타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도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문)는 12월 16일 제223차 임시회를 열고 첫 안건으로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특위는 선광 스님을 위원장으로, 종책모임별 2인과 비구니 스님 2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종교편향 및 불교 폄훼·왜곡 사례 수집부터 대응전략 마련, 종교편향 방지와 불교왜곡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선광 스님은 이날 '가톨릭만 받드는 문재인 정부' 제하의 문건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초기부터 마무리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사례들을 공유했다.

선광 스님은 "대통령은 개인신앙인

승려대회·범불교도대회 추진
중앙종회 '대응특위' 구성 결의
민주당사 항의방문해 입장전달

가톨릭만 받드는 정책으로 시종일관했고 이 과정에서 불교를 비롯해 이웃종교를 무시하거나 홀대했으며 특히 전통문화보존 정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종회는 특위 구성의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한데 이어, 첫 행보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항의방문하고 "정청래 의원 출당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이는 문화재관람료 왜곡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청래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행보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60여 중앙종회 의원이 참석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방역수칙에 의해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과 부의장 각림 스님, 만당 스님과 특보단장 혜일 스님, 종교편향 종회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이 대표로 당사로 들어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통문화발전특위 위원장)과 서영교 의원 등에 불교계 요구를 전달했다.

송지희·임은호 기자

총지종 새 통리원장 우인 정사 선출



불교총지종 제20대 통리원장에 현 종회의장인 우인 정사<사진>가 선출됐다.

불교총지종은 12월 15일 오후 2시 통리원서 제159차 종의회를 열고 새 통리원장에 우인 정사를 선출했다. 우인 정사는 당선 소감을 통해 "선종후사의 정신으로 종단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승님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우인 정사는 2003년 전법관정수계를 수지하며 불교총지종 스승의 길에 올랐다. 2019년도 제 12대 종의회의장에 이어 현 13대 종의회의장을 연임하는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맡아왔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산림청, 산림생태계 복원 협력

12월 14일 업무협약 체결
숲 복원캠페인 공동 추진



조계종이 산림청과 함께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특히 남북산림 협력과 사찰림 보존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산림생태계복원과 유지,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전통사찰과 사칠림이 자연공전 정신과 문화재를 품고 있는 소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닌 공간임을 함께 인식하고 보존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이를 위해 조계종과 산림청은 전통사찰의 산림보전과 관리, 남북 산림협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캠페인을 공동추진키로 하고 평화의 나무 심기 및 숲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연구와 사찰림 DB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존방안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찰림과 산림청 소관의 국유림의 공동활용방안도 함께 모색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과 문화재 주변 산림과 산림유전자원의 보호,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활동,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유사찰의 산림보전 및 활용 증진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사찰림은 국가나 산림청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보존 유지돼 왔으니, 앞으로 각 사찰이 자율성을 보장받는 가운데 사찰림을 보존하고 가꿔나갈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며 "이번 협약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 사찰림 복원을 위한 지원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사찰림은 오랜 시간 동안 사찰과 함께 지속된 문화유산으로, 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 숲"이라며 "조계종과 협력해 사찰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人生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답이 法華經에 있다!

NAVER 법화경전문강설 검색 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崔光永研究室

기후위기 본격 대응…국제개발구호 나서

2021 사회 · 복지 · NGO 결산

담화문 등 불교적 의지 표명
불교국가에 생필품 지원 시작
협약 릴레이로 남북교류 기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도 활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로터스월드는 올 중순부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남방불교 사찰들을 지원해 왔다.

올해 불교계는 코로나19로 대사회 활동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축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 촉구해 온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은 결국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다.

기후위기 극복에 관심 고조

올해 조계종은 신년기자회견문과 부처님오신날 봉축사, 세계환경의날 담화문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불교적 실천의지를 표명했다.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심각성이 대두됐지만 이웃종교에 비해 불교계 활동은 미진했던 상황에서, 이 같은 발표는 기후위기 극복활동에 불교계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와 환경위원회는 10월28일 종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기후변화를 주제로 '기후변화와 불교실천 과제 세미나' 를 개최했다. 12월에는 총무원장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과 일반직 종무원을 대상으로 불교적 과제 실천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은 2022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사업을 앞두고 모든 구성원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불교가 가진 환경친화적인 가르침을 일반사회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6월 이사회를 통해 5개년 계획을 담은 기후환경위기 사업을 확정했다. 2022년부터 '지구는 하나' 제하의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분야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찰 환경 개선 운동도 적극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올 한 해에도 빛을 발했다. 그러나 기록적인 더위와 추위에도 제정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와 오체투지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기간 연장이라는 결과가 나와 안타까움을 전했다. 사노위는 2022년에도 릴레이 기도법회 및 오체투지 법회를 이어가며 이웃종교, 정의당, 시민사회와 긴밀한 연대를 토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남북불교교류 재개 기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꽁꽁 언 남북 교류 속에서도 훈풍을 기다리며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추진한 평화통일도량 협약에는 전국 80개 사찰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힘을 모으겠다고 동참한 상태다. 협약을 맺은 사찰들은 민추본의 한반도 평화통일 사업을 후원하고 불자들에게 그 취지를 알리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추본은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가 108개 도량과 후원사찰 협약을 맺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평화통일발원문 공모전을 개최,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다.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발원문들을 토대로 조계종을 대표하는 평화통일발원문을 제작, 사찰과 단체 등에서 독송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코로나 이후 불교국가 지원

그간 제한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국제개발구호NGO 활동에도 변화가 일었다. 로터스월드는 올 중순부터 코로나19로 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사찰 긴급지원캠페인을 펼쳤다. 1~6차 캠페인을 통해 지원 받은 사찰은 3개 국가 총 49곳, 수혜인원은 1만 3000여 명에 달한다. 로터스월드는 2022년에도 쌀과 소금, 비누 등 생활필수품을 꾸준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프라미스의 경우 코로나19와 더불어 쿠데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에 긴급식량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본격적인 모금에 나섰으며 현재 미얀마 7개 마을에 쌀 지원을 시작한 상태다.

복지 분야에서는 전국 불교계 복지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당기간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지역사회 약자를 위한 도시락 배부와 비대면 복지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시도들을 이어갔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맞춰 대면과 비대면 사업을 적절히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대적 변화 적극 반영 지역사회 더불어 상생

[기획] 3. 교구본사 복지법인 모범사례

조계종 교구본사 법인들이 지역에 안착하면서 지역 기반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운영효율 강화는 물론 지역별 사회복지 균형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열악한 지역 상황에서도 남다른 운영방식으로 불교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교구본사 복지법인 모범사례로 입소문이 난 재단들의 사례를 담았다. 〈편집자주〉

'함께하는 아름다움' 직지사복지재단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가 운영하고 있는 직지사복지재단은 여러 측면에서 모범사례로 꼽힌다. 지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로부터 법인의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재정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이 단연 눈에 띈다.

직지사복지재단은 현재 직영 1개소와 수탁 9개소 총 10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상근과 파견을 포함해 직원 수가 260여 명에 달할 정도다.

직지사복지재단이 탄탄한 행정력을 발휘하며 지역사회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상근 전담 인력에 있다. 재단은 법인사무국의 행정을 총괄하고 산하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임 상근 직원 2명을 채용했다. 전문가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나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높아진 법인의 공신력과 사업수행 능력은 지역사회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는 기반이 됐다. 앞으로 경북서북부 지역 신규 사회복지시설 유치 및 업무를 지원하고 불교사회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직지사는 복지재단뿐 아니라 승려복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교구 최초로 승려복지 회칙을 제정하고 복지 대상을 교구 재적 스님과 예비승까지 확대하는 한편 실비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승려복지제도를 선도하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월정사복지재단

2007년 설립된 월정사복지재단(이사장정념)은 무료급식, 자비금혼식, 역량강화, 지역복지, 시설위탁 등의 사업을 펼치며 지역사회에서 복지 범위를 조금씩 더 확장해가고 있다.

현재 월정사노인요양원을 비롯해 총 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산하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수가 파견을 포함해 200여 명에 달한다.

법인에는 산하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법인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 2명의 전담 인력과 1명의 파견직원을 뒀다. 상시업무에도 이사장과 상임이사(유엄 스님)가 꼼꼼히 행정을 살펴 직접 결제하는 게 특징이다.

월정사복지재단은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한다. 요양원의 경우 시스템을 전산화해 화상으로 면회를 지원하는 등 언제든 가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사회와 상생' 신흥사복지재단

신흥사복지재단(이사장 우송)이 교구본사 복지법인의 모범사례를 꼽히는 이유는 지역사회를 향한 '꾸준한' 자비나눔에 있다. 신흥사와 신흥사복지재단은 2007년부터 '저소득 틈새가정 명절

2008년 설립 직지사복지재단
경북서북부 지역 10개소 운영
2007년 설립 월정사복지재단
이용자 니즈충족 시도에 호응
1996년 설립 신흥사복지재단
13년째 꾸준한 자비나눔 펼쳐

나누기 행사' 와 '속초지역 내 초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을 진행하며 나눔이 곧 부처님 가르침인 자비 실천임을 몸소 보였다. 각종 자비나눔은 2009년 신흥사 현 회주인 우송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면서 더욱 구체화됐다. '나눔으로 함께하는 향기로운 불사' 를 시작으로 부처님오신날, 추석, 송년 자비나눔 등 매년 3회에 걸쳐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자비나눔은 연차로 13년, 횟수로는 40회에 이르고 있으며 나눔을 통해 지원받은 이들이 현재 1만7400여 명, 금액으로 따지면 29억 원에 이른다. 또 성준장학재단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신흥사 부주지 무문 스님은 "신흥사에 기반을 둔 신흥사복지재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 내 사찰 위상 역시 높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은호 기자

아름다운동행, 난방지원 캠페인

홈페이지 · ARS 통해 후원 가능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스님)이 소외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염원하며 '기브유 캠페인' 을 전개한다.

동절기 에너지빈곤층 지원을 위한 '기브유(Give油) 캠페인' 은 겨울철 난방이 취약한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과 달동네 · 쪽방촌 거주민 등 변변치 않은 난방장치 없이 추운 겨울을 버텨야 하는 에너지빈곤층에게 연탄과 난방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108가구에 연탄과 난방유상품권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동참을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는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dreaminus.org)에서 직접 후원할 수 있다. 02)737-9595

임은호 기자

1년 전 불자 중 12%, '무종교인'으로

한국리서치, 종교지표 조사 결과 발표

불자 34%만이 "종교가 중요"
불교 · 천주교〉개신교 '호감'
무종교인은 불교 호감 '최고'

1년 전 "불교를 믿는다"고 응답한 불자 중 12%가 '무종교인' 으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종교별 호감도는 불교와 천주교가 비슷했고, 무종교인의 종교 호감도는 불교가 가장 높았다.

한국리서치는 12월 8, 15일 '종교지표'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 과 '주요 종교호감도와 종교의 효능감' 을 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2018년 이후 주요 종교별 인구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50대 이상에서 '믿는 종교가 없다' 는 응답이 증가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50대에서 '믿는 종교가 없다' 는 응답이 2018년 40%에서 올해 46%로 높아졌고, 3대 종교를 믿고 있다는 응답도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천주교와 불교 신자의 비율은 각각 3%씩 감소했고, 개신교 신자의 비율도 2% 감소했다. 장년 ·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불교에게 50대 이상 연령층의 이탈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또한 1년간의 종교 변화를 묻는 질문에 1년 전 불자였던 사람 중 12%가 "종교 없음"이라고 답했다. 개신교도 같은 질문에 12%가 무종교인으로 전향했음을 밝혔고, 천주교는 8%가 전향했다.

자신의 삶에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불교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개신교 신자는 78%가 "종교활동이 본인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50%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불교 신자는 34%만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8% 상승한 수치다.

종교별 호감도에서는 불교(50.4점)와 천주교(50.7점)가 비슷했으며 개신교는 31.6점으로 3대 종교 중 가장 낮았다. 본인이 믿는 종교에 대한 호감도는 대체적으로 높았으며, 무종교인들은 불교를 가장 호감가는 종교(49.7점)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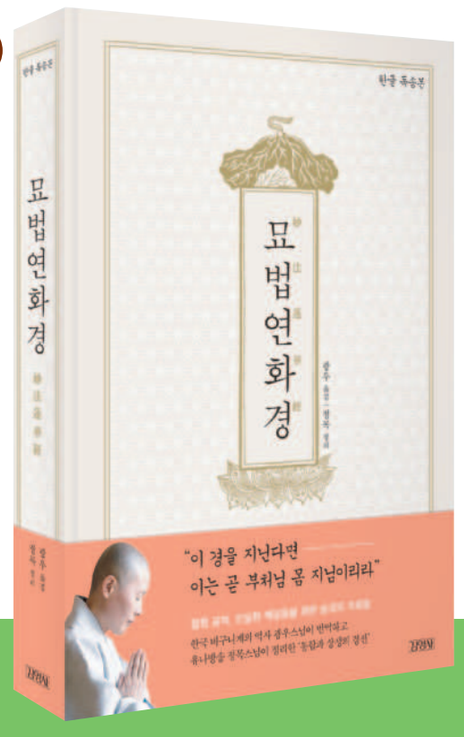
한국리서치는 "불교는 불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호감을 얻고 있다"면서 "반면 개신교는 개신교 신자들만 높은 호감도를 갖고 있을 뿐, 다른 종교 신자와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김영사

"이 경을 지닌다면 이는 곧 부처님 몸 지님이리라"

광우스님이 번역하고 정목스님이 정리한 독송용 법화경



묘법연화경

한글 독송본

광우 옮김 · 정목 정리
544쪽 | 26,000원

《금강경》《화엄경》과 함께 주요 대승경전으로 꼽히는 '경 중의 경'. 초행자의 막막한 마음, 수행자의 오랜 고민에 응답하는 궁극의 가르침을 만난다. 다양한 불교 이론을 아우른 '통합'의 경전이자 대승정신을 구현한 '상생'의 경전. 참된 공덕, 진실한 깨달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하는 지침서. 절묘한 비유와 풍부한 예화로 가득한 부처님 마지막 설법이 펼쳐진다.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인연과 공덕은 부처 세계에 입성할 초대권과 같습니다." _정목스님



광우 한국 비구니계 선구자이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최초의 비구니. 1958년 정각사를 창건했고, 부산 소림사에서 10년 넘게 법화산림을 열었다. 2007년 조계종단 최초로 명사 법계를 받았다. 정각사에 주석하다 2019년 입적했다.

정목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위로와 용기, 지혜를 전하는 치유의 안내자. 마음공부 전문매체 '정목스님의 유나방송'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며, 2009년부터 정각사 주지로 있다. 저서로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등이 있다.

TEL:031)955-31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메타버스 · 비대면 플랫폼 각광

2021 신행 · 포교 결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비대면 전법 포교 '끝판왕'
플랫폼 직접 개발도 박차
수행통한 포교 '상월결사'
순례성료, 중흥동력 형성
포교원장 범해 스님 비롯
군종교구장 등 수장 취임

포교 · 신행분야에서는 메타버스와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뉴미디어 전법 포교가 활성화된 한해였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과 조계종 포교원은 불교 최대 청소년축제인 제13회 나란다축제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를 활용해 삼보사찰을 구현했다. 11월 15일부터 송광사 등 로블록스 내에 구현된 맵에서 청소년들은 나란다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도 8월 12일 강원도 세계청소년명상주간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보였다. 10월 8일 개막한 오대산 문화축전에서는 제1회 국제명상세미나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키도 했다.

서산 보원사는 제11회 내포 가야산 산사예술제의 일환으로 7월 25일과 8월 1일 비디오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보원사지 복원대회를 열기도 했고, 자비명상(이사장 마가)과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도 8월 14일 칠석을 맞아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한 명상 심리과정 '칠석브릿지'를 열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비대면 플랫폼의 발달과 이에 따른 전법 포교현장의 변화 속에 종립 동국대(총장 윤성이)도 메타버스 플랫폼 연구에 착수했다. 동국대는 '비대면 사회에서 MZ세대의 정신건강 관리 · 회복을 위한 메타버스 디지털 솔루션' 연구를 진행, 이를 전담하는 '명상메타버스플랫폼기획연구단'(단장 김관규)을 출범시켰다.

비대면 방식의 전법포교가 활성화되며 올해 봉정된 〈불교성전〉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보급됐다. 기존 책자 형태의 〈불교성전〉에서 벗어나 8월 9일에는 e북 형태의 〈불교성전〉이 출간됐다. e북 형태로 된 〈불교성전〉의 가장 큰 장점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월정사 스님들이 VR장비를 착용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체험하고 있다.

기존 종이로 된 〈불교성전〉은 불교경전 핵심을 최대한 추렸지만 어쩔 수 없이 총 704페이지에 달하는 부피를 자랑했다. 보급 후 불자대중들 사이에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불교성전〉을 수지독송 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불교성전〉 보급을 주관하는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조계종 출판사는 점자형태로 된 장애인용 〈불교성전〉이나 오디오북 등도 함께 출간 준비 중에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불교성전 내용을 발췌해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했고,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버전도 만들었다. 포교원은 유튜브 채널에 불교성전 영상을 올려 사부대중이 법회를 비롯해 전법과 포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 극복과 국민 화합을 기원하는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큰 관심 속에 원만 회향한 것도 신행 포교분야에서 성과였다.

상월결사는 천막결사를 거쳐 만행결사까지 3년째를 맞고 있다. 10월 1일 송광사에서 입재한 삼보순례단은 해인사 거쳐 10월 18일 통도사에서 회향했다. 5개 광역시도, 11개 시군 거치며 총 19일간 423km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결사에 동참하는 사부대중이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계기를 찾게 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각 지역마다 지역민들이 나와 불교의 숭고한 정신을 공감하고, 국난극복을 함께 염원했다.

이러한 의미에 불자들의 상월결사 정진을 이은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11월 2일 불교중흥을 위한 선서화전이 동국대에서 개막해 11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약 30억여원의 모연액이 모여 불교단체 지원금으로 전달됐다. 불연맺기인 수미산원정대에서는 10월 28일 1기 졸업식과 2기 입학식이 진행됐으며, 12월 9일 동문회도 출범했다.

10월 23일 서울 수국사에서는 상월청년회 1기 회향과 2기 입재식이 열렸으며, 동안거 기간을 맞아 상월선원 무문관 수행을 따르는 특별재가자 정진도 입재했다. 부처님 성지인 인도에서 만행결사가 이뤄질 때까지 결사에 참여하는 불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조계종단의 포교 일선을 총책임하는 수장인 조계종 포교원장에 범해 스님이 취임한 것도 포교일선에 큰 변화를 야기했다. 4월 22일 8대 포교원장으로 취임한 범해 스님은 청소년 포교 등 포교활동가로 활동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포교종책을 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포교원은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새해 전략종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포교에서는 제5대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이 7월 21일 임명됐다. 사상 첫 군법사 출신인 선일 스님 취임과 함께 제5대 군종특별교구는 군승법사 충원, 홍제사 불사, 노후법당 개선 등 산적한 군포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이밖에 12월 16일 김영덕 제12대 포교사단장 취임, 2월 27일 장정화 제31대 대한불교청년회장 취임 등 불교 포교전법을 이끄는 이들의 등장으로 새해 포교 활성화가 기대된다.

"포교 핵심동력으로 발돋움"

포교사단, 16일 이 · 취임식
김영석 제12대 단장 취임해
첫단장 · 지역단장 동시임명
범해 스님 "사찰 연계" 당부

조계종 포교사단이 제12대 김영석 포교사단장 및 12대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포교전문조직으로 발돋움할 것을 천명했다.

포교사단은 12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11대 방창덕 단장 및 12대 김영석 단장의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포교사단 창립 후 처음으로 진행된 단장 이취임식과 지역단 동시 임명식이었다.

이취임식에는 포교사단 총재인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해 포교부장 선업스님 및 국장단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전국 포교사단 지역단장 및 역대 단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불교신문 사장 현법 스님 등이 참여해 종단 대표 포교단체의 새로운 출발에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날 취임한 김영석 제12대 포교사단장은 "포교사단 20년 역사를 만든 수많은 포교사들 활동과 11대까지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포교사는 1인 1전문분야 전법가로, 포교사단은 재가전문 포교조직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포교사단장은 "오늘 이 자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포교사 수장으로 사명을 다하는 임무를 받는 자리"라며 "삼보를 받들어 포교하는 포교사로, 종단 외호신장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포교사단장과 지역단장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전달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오늘 임원에게 임명장 만을 수여하던 기존관행에서 벗어나 여법한 행사를 치르도록 한 것은 포교사단이 앞으로 더욱 포교단체로 위상을 고양하고, 종단 핵심동력으로 굳건히 자리잡게 하기 위함"이라며 "특히 12대 포교사단은 사찰과 연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포교 최일선은 사찰로 포교사들이 스님들과 일심으로 정진할 때 종단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총재 범해 스님이 2022년 1월 임기가 시작되는 12대 집행부와 각 지역단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이임한 방창덕 11대 단장에게 감사패가, 11대 집행부로 활동한 이정기 포교사단 부단장을 비롯해 정청현, 정분남, 장건환, 윤나겸, 배동학, 이병연, 강의수 포교사에게 공로상이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복지법인 원각, 12월 16일
탑골공원서 겨울점퍼 나눔
점퍼 300장, 장갑 400개
서울대 병원 등에서 후원

"어르신, 따뜻하게 입고 이번 겨울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매서운 추위가 엄습한 날,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안이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서울 탑골공원 옆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급식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원각(대표 원경)은 12월16일 탑골공원에서 겨울 점퍼 나눔 행사를 펼쳤다.

사회복지원각은 2018년 처음 점퍼 200벌을 준비해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에게 선물한 이후 매년 연말 점퍼 나누기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서울대병원과 법무법인 세종, (사)나눔과이음 등에서 점퍼 300개, 모자 · 장갑 각 400개를 후원 받아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른 아침부터 탑골공원 담장을 따라 길게 늘어선 어르신들이 든든한 한 끼 식사와 함께 손에 점퍼를 받아들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자 봉사를 나온 민일영 前 대법관과 강위동 후원회장이 합장 반배로 화답했다.

민일영 前 대법관은 2009년부터 탑골공원 무료급식소에서 한 달에 한 번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2015년 공직을 퇴임한 후 탑골공원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에 재직하면서부터는 한 달에 2회씩 동료들과 급식봉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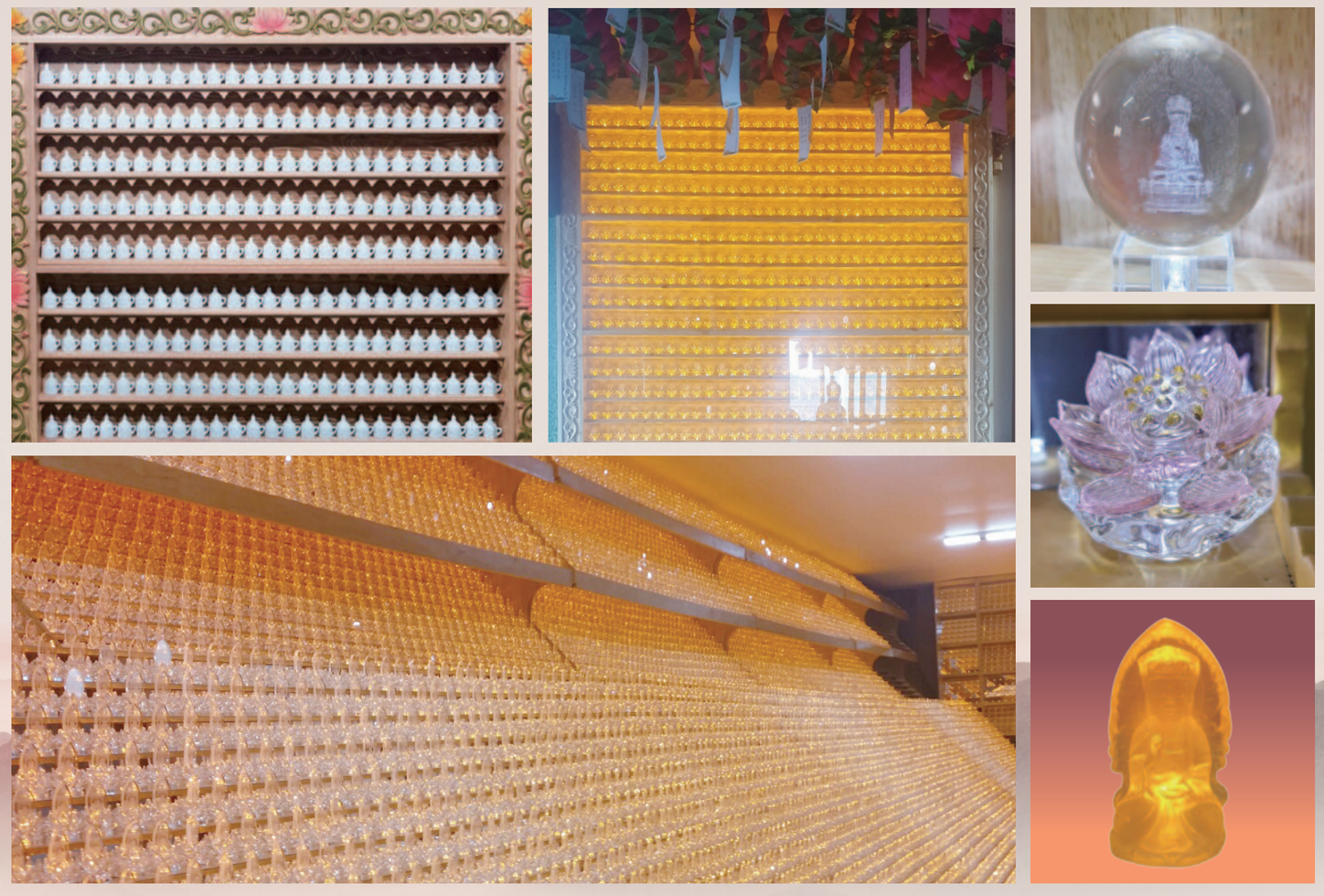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날도 모자와 장갑, 빵을 후원했고, 동료 변호사들과 아침 일찍 나와 점퍼와 함께 배포할 제육볶음 도시락 포장도 함께 했다.

민일영 前 대법관은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점퍼와 장갑 등을 지원할 수 있어 마음이 훈훈하다"며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등 어르신들을 위한 자비행을 꾸준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준비한 방한 물품과 도시락은 배포 1시간여만에 동이 났다. 고영배 사회복지원각 사무국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후원을 받아 점퍼를 못받고 돌아가는 어르신이 없도록 하겠다"며 후원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사회복지원각 무료급식소는 2018년 서울 낙원동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현재 위치인 탑골공원 옆 뉴파고다 빌딩 1층으로 이전했다. 2015년 3월, 무료급식이 중단될 상황에 처하자 서울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이 원력을 세워 매일 200~300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02)723-6677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현대불교 선정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마무리되고 있다. 올 한해 불교계를 흔들었던 중요한 이슈를 들을 정리해봤다.

정리=신성민 · 노덕현 · 송지희 · 임은호 기자



‘상월결사’ 정신들 불교 각계서 계승

한국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는 상월선원 만행결사가 올해 ‘삼보사찰 천리순례’로 이어졌다. 삼보순례단은 10월 1일 송광사에서 입재하여, 해인사 거쳐 10월 18일 통도사에서 회향했다. 5개 광역시도, 11개 시군 거치며 총 19일간 423km를 걸으며 만행했다.

불교 중흥을 위한 불자들의 염원은 삼보순례가 끝난 뒤에도 이어졌다. 11월 2일 불교중흥을 위한 선서화전이 동국대에서 개막해 11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약 30억여원의 모연액이 불교단체 지원금으로 전달됐다.

상월결사 정신을 잇기 위한 움직임도 전방위적으로 일었다. 불연맺기인 수미산원정대에서는 10월 28일 1기 졸업식과 2기 입학식이 진행됐으며, 12월 9일 동문회도 출범했다. 10월 23일 서울 수국사에서는 상월청년회 1기 회향과 2기 입재식이 열렸으며, 동안거 기간을 맞아 상월선원 무문관 수행을 따르는 특별재가자 정진도 입재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 출범 10주년 맞아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출범한 지 꼭 10주년이 됐다. 승려복지회 출범은 스님들을 위한 종단 차원의 보편적인 복지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승려복지회는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복지정책을 활용한 가운데 스님들이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수행하는 스님들은 돈이 필요 없다”는 등의 왜곡된 인식을 전환시켜, 스님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포기해선 안된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변화는 스님들이 노후에도 스님의 위의를 지키는 가운데, 수행과 포교, 전법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입원비와 치료비 지원 등 어려움에 처한 스님들을 위한 긴급지원은 종단을 향한 스님들의 애종심과 소속감을 고취시켰다는 평가다.



조계종 15대 종정 성파 대종사 추대

조계종 제15대 종정에 중봉성파 대종사가 추대됐다.

조계종 종정추대회의는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차기 종정추대의 건을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중봉성파 대종사를 추대했다. 성파 대종사의 임기는 오는 2022년 3월 26일부터 5년이다.

추대 직후 성파 대종사는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동해 고불식을 진행했다. 고불 이후 성파 대종사는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말로 하기보다 말과 행을 함께하는 수행정신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소임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항상 동체대비 사상을 잊지 않고 호국불교의 기치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해외교구 10년만에 재정비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된 지 10년만에 첫 국내 사무처가 설치됐다. 사무처는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옆 전법회관 7층에 마련됐으며 올 8월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이는 해외사찰 지원과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해외특별교구법을 제정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되레 해외사찰 수가 57% 수준으로 감소한데 따른 타개책이다.

실제 해외사찰 일선에서 포교에 매진하는 스님들은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해외사찰과의 상시교류 및 관련 업무 일원화를 꼽았다. 종무행정의 지속성 확보도 과제로 제기됐다.

국내 사무처 설치는 이 같은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첫 발이자, 2017년 관련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4년만에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불교 노력 이어졌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난항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4대 종교와 정의당,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촉구해 온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이 결국 무산됐다. 국민 80%의 지지를 얻고 있고, 국민동의 10만명을 달성한 상황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14년째 계류 중인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아졌다. 기록적인 더위와 추위에도 제정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정부청사 등에서 릴레이 기도회와 오체투지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 같은 결정은 불교계에 큰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사회노동위는 2022년에도 릴레이 기도법회와 오체투지 법회를 이어가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와 사회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월주 · 고우 스님 등 큰스님 원적 잇달아

올해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의 원적 소식이 자주 들려왔다.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당 혜원 대종사는 3월 23일 쌍계사에서 법납 74년, 세수 88세로 원적했다.

조계종 제17대 · 28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원로의원 태공 월주 대종사가 7월 22일 오전 9시 45분 금산사 만월당에서 원적에 들었다.

현대 한국불교의 대표 수좌로 잘 알려진 조계종 명예원로 고우 대종사가 8월 29일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동방장실에서 원적에 들었다. 대강백 종광 스님은 10월 24일 원적에 들었고, 11월 1일에는 파계사영산율원 율주 여산 철우 대율사가 부산 관음사 승학산방서 원적에 들었다. 11월 11일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금어선원 유나 금우 인각 대종사가 원적했다. 독립운동가 박헌영의 혈육인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경 대종사는 12월 6일 평택 만기사에서 원적했다.



조계종 · 종단협 등 기후위기 본격 대응

올해 불교계는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였다. 조계종은 신년기자회견문과 부처님오신날 봉축사, 세계환경의날 담화문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불교적 실천의지를 표명했다.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심각성이 대두됐지만 이웃종교에 비해 불교계 활동은 미진했던 상황에서, 이 같은 발표는 기후위기 극복활동에 불교계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조계종단 차원에서 ‘기후변화와 불교실천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6월, 5개년 계획을 담은 기후환경위기 사업을 확정했다. 2022년부터 ‘지구는 하나’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분야 연계 추진, 사찰 환경 개선 운동 등 다양한 실천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불교가 가진 환경친화적 가르침을 사회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잇단 종교편향에 불자 공분 ‘폭발’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독교음악인 캐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대국민캠페인은 오랫동안 누적됐던 불교계 공분이 폭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동안 잇따랐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가톨릭 순례길과 주어사 · 천진암의 ‘가톨릭 역사 덮어쓰기’, 국공립합창단의 종교편향 등 이슈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폄훼 발언’이 더해지면서 “더이상 참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급속히 형성됐다.

이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강경대응을 결의했으며, 범종단차원의 종교편향대책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불교계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조계종도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중앙종회도 제223차 임시회에서 종헌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조계종 불교성전 봉정 수지독송 캠페인 전개

올해 2월 24일에는 조계종 사상 첫 〈불교성전〉이 봉정됐다. 불교신행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첫 단초인 〈불교성전〉이 대중에 선보이고 보급되면서 불교계 안팎에서는 이를 수지독송하는 캠페인이 전개됐다.

5월 15일 조계종은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 선포식을 열고 ‘〈불교성전〉 버킷첼린지, 법공양을 올립니다’를 시작했다.

법공양 불사는 ‘1인1불자 성전 보급’과 성전 보급이 필요한 군법당, 교정시설, 법원법당 등을 위한 후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군법당과 교정시설, 병원 등 183개 기관에 성전을 전하고 있다. 뉴미디어 활용도 더해져 8월 9일에는 e북 형태의 〈불교성전〉이 나오기도 했으며, 조계종 포교원 주도 하에 애니메이션 〈불교성전〉이 제작되기도 했다.



군불교 전략 거점 홍제사 불사 ‘시작’

한국불교 군포교의 중심이 될 홍제사 불사에서 주요건물 중 하나인 교육관이 10월 24일 개관했다.

계룡대 템플스테이관이란 이름으로 건립된 홍제사 교육관은 총 58억 3900만원의 국방예산으로 건립됐다. 건축규모는 대지 1465평에 건축면적 236평, 연면적 432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25객실과 소법당으로 14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장병 및 일반불자들의 템플스테이 및 신행 공간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비, 소법당에서 각 객실로 실시간 법회 영상이 송출 가능한 최신식 시설을 완비했다.

핵심건물인 홍제사 불사는 6월 9일 기원재 이후 현재 불사가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다. 홍제사는 2020년 11월 24일 기공식에 이어 올해 4월 16일 착공 허가가 난 상태다.

대중불교 · 현대적포교 원력 담은 범종불사

광명사, 12월 15일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 범종의 전통과 그 새로운 도상 전개'

미륵대범종 불사 방향 제언
종각·신응수, 범종·원천수
상월대조사 이념 받든 불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천태종 광명사가 12월 15일 경내 지관전에서 '한국 범종의 전통과 그 새로운 도상 전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12월 15일 경내 지관전에서 '한국 범종의 전통과 그 새로운 도상 전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술세미나는 범종의 역사적 변천과 도상적 특징을 알아보고 앞으로 진행할 광명사 미륵대범종과 종각 불사에 대한 방향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지 춘광 스님을 비롯해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학술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한국 종의 전통과 그 역사적 변천(이기선 前 범종학회 회장) △한국 범종의 양식과 도상적 특징(정우택 동국대 명예교수) △광명사 범종 주조에 대한 고찰(원천수 성종사 소장) △광명사 범종각 건축의 새로운 시도(신응수 대목장-무형문화재 제74호) △천태종 미륵대범종 · 종각 불사의 의의(이봉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순으로 발표됐다.

발표자들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무엇보다 광명사가 불사할 범종 및 종각의 제작 방향과 우수성을 설명하고 '미륵대범종' 이란 명칭에 담긴 '대중불교' 의 뜻을 전달했다.

이봉춘 교수는 "천태종 중창 이전부터 새불교운동을 전개해온 상월대조사의 교화이념과 방향은 종단의 3대 지표로 정립된다. 그 가운데 '대중불교' 에는 특히 미륵신앙에서 중시하는 십선계(十善戒)가 포함된다. 천태종에서 출가 및 재가가 이 계를 수지하는 것, 그 자체가 대조사의 교화이념을 받들어 수행하는 일이다"며 광명사 미륵대범종이 대조사의 대중불교 이념의 수행(遂行)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미륵대범종은 주지 춘광 스님의 수행정진과 결심에서 나온 것이다. 종단 안팎으로 미륵불 봉안은 적지 않지만 대범종의 경우는 예가 없었다. 인간 고액(苦厄)으로부터 저마다의 신행을 통해 청정과 해탈을 이루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각은 종면 3칸, 측면3칸으로 건축면적 18.77평, 주심포양식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불사한다.

종각 불사를 맡게 된 신응수 대목장은 종각에 대해 "주심포집은 다포집에 비해 포의 양식이 간결하고 배흘림기둥 형식으로 독특하고 아름답다"며 "광명사 종각은 최고의 건축미를 빛내고 천년을 갈 수 있는 문화재급 건축물이 될 것이다" 고 설명했다.

범종 불사를 맡게 된 원천수 소장은 "광명사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 공법으로 진행될 것이다"며 "밀랍주조는 문양이 섬세하고 표면이 매끄럽고 종 울림이 훌륭하다"고 말했다.

광명사는 '전통' 과 '현대의 조화' 로 새롭게 범종을 조성하고 '21세기를 대표하는 문화불사' 임을 강조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으로 21세기를 대표하는 새 범종을 예술적으로 승화하는 불사이다. 범종의 의미와 양식을 바르게 계승하고 신앙적 의미와 예술적 가치, 문화적 자긍심을 미래로 전할 수 있는 범종을 주조하고 종각을 건립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탁한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불국토를 열어주는 미륵부처님의 위신력을 범종소리에 실어 조석으로 예경하고 시대의 모든 고난이 극복되길 기원할 것"을 밝혔다.

벽선암, 동지팥죽나누기

울산 벽선암(주지 혜진)이 12월 11일 울산 호계역 광장에서 '제9회 문화와 함께하는 동지팥죽나누기' 를 진행했다.

벽선암은 매년 동지를 맞아 새해의 행복과 소원을 발원하며 지역민에게 문화행사를 열어 팥죽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소멸을 기원하는 팥죽 3000그릇을 전달했다.

벽선암 주지 혜진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동지팥죽은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광명을 맞는다는 뜻이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팥죽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이 12월 1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제9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포교원력상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학술문화상은 오경후 동국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봉사실천상은 동국대학교 의료원(단체)이 받았다. 수상자들은 20명의 후보 가운데 최종 3명이 선발됐으며 상금 1000만 원과 감사패를 받았다.

아울러 통도사는 이정숙 불자에게 감사패와 종립학교인 해동고등학교 학생 10명에게 장학금 각 50만 원을 전달했다. 이정숙 불자는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과 울산시립노인요양원에 20여 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후원과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널리 선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혜원정사, 고산 스님 추모전시관 마련

'지리산 무쇠소 추모전시관' 개관식 개최


부산 혜원정사가 12월 16일 '지리산 무쇠소 추모 전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지난 3월 23일 입적한 고산당 혜원 대종사를 추모하는 전시관이 마련됐다.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12월 16일 '지리산 무쇠소 추모 전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지리산 무쇠소' 는 고산당 혜원 대종사의 별칭으로, 한 번 옳다고 믿은 일에는 물러섬이 없는 단호함과 강직한 수행정신의 사표(師表)를 상징한다.

방장실을 개조한 '지리산 무쇠소 추모 전시관' 은 스님의 무쇠소와 같았던 삶을 엿볼 수 있는 △사진으로 보는 큰스님 △큰스님과 함께하는 호신불 △경전공부와 서화활동 △점안과 복장 △불자와 죽비 △육환장과 주장자 △다도와 포행 △청빈을 실천하신 큰스님 △큰스님 완상품 등의 주제별로 구성됐다. 특히 전시관 중간에 위치한 금색 사리탑에는 고산 스님의 치아에서 나온 사리 한 과를 봉안했다. 또한 저서, 장삼, 승려증, 경전, 자필 법문 등 다양한 유품이 전시됐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큰스님의 유품을 마주하고 있으니 생전 청빈하시고 강직하셨던 그 성품과 가르침이 다시 생각난다"며 "쌍계사에서는 아직 큰스님의 유품을 정리하지 않았는데 곧 해야 할 과제이고 그 수행정신을 널리 알리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지 원허 스님은 "전시관을 통해 큰스님의 온기와 따뜻한 자비심을 느낄 수 있다"며 "이곳에 전시된 스님의 유품들은 생전에 쓰시던 물건들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장 이 · 취임식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이 12월 12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제11 · 12대 단장 이 · 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이임사 및 차기단장 인사, 명패 전달, 그리고 동국대 학생 1명과 금정중 학생 4명에게 장학금 전달과 금정노인요양원에 후원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송재린 제12대 부산지역단장은 "10대 · 11대 정분남 단장님과 임원에게 깊은 감사를 올린다"며 "언제나 하나 된 마음으로 전국 최고의 부산지역단으로 성장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분남 단장은 "새로이 시작하는 12대 단장인 법해 송재린 단장님을 중심으로 앞으로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의 협조와 사랑으로 단장 소임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종교인평화회의, 강좌 개최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정산)가 12월16일 부산광역시청 12층 대회의실에서 '생명존중 및 환경지키기 강좌' 를 개최했다.

종교인들이 함께 기후에 대한 위기의식을 일깨우고 바람직한 종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강좌는 1부 개회를 알리며 기도와 내빈소개, 인사말씀 등이 이어졌으며 2부 강연은 △기후위기 대응과 종교의 역할(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 네트워크 사무총장) △장산 레이더 설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손웅희 장산마을 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실상문학상 대상 조헌호, 손순이

12월 16일 영광도서 8층 시상식 개최

부산불교문인협회(이사장 혜총)가 12월 16일 영광도서 8층에서 '제24회 실상문학상 시상식' 을 개최했다.

대상은 조헌호, 손순이 시인이 공동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김만옥, 안문자, 최인숙 시인이 수상했다.

조헌호 시인은 2005년 계간 문예시대로 등단했으며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시집 〈산사의 밤〉 등을 출간했다. 손순이 시인은 1994년에 등단해 〈자기를 넘어서〉 외 시집 13권을 출판했다. 이외 작품상은 이영애 시인의 '타인의 시간' 과 지춘화 시조 시인의 '자화상' , 그리고 양기수필가의 '나를 보다' 가 수상했다. 신인상 시조부문은 왕선자 시인, 홍종원 회원이 받았으며 신인상 시 부문은 윤상철 회원이 수상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불곡산 대광사 2022년 신입생 모집

명상 상담 대학

▣ 접수기간 : 2021년 12월 ~ 2022년 2월 13일(일) 까지

▣ 강의내용 :

과 목	강의내용
불 교	불교개론, 사념처관법, 대승반양사상, 유식과명상, 천태소지관
명 상	위빠 사나(알아차림, 자기집중, 호흡) → 이론, 실기 병행 및 무념 치유(특강)
상 담	상담 심리학, 성격 심리학, 가족 행복상담, 대상별 상담 이론 및 실체

▣ 강의시간 : 기본과정 [야간] 매주(화) 19:00 ~ 22:00
심화과정 [야간] 매주(수) 19:00 ~ 22:00
전문과정 [야간] 매주(목) 19:00 ~ 22:00

▣ 수 료 후 특 전 : 명상 상담 지도자 1, 2급 자격증 부여
심화과정(2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2급 자격증 부여
전문과정(1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1급 자격증 부여

▣ 특 강 : 매주(화) 테라피요가 명상

▣ 대 상 자 : 명상을 원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분은 누구나 가능

▣ 접수방법 : 대광사 종무소 방문 또는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인터넷 입학 신청

▣ 문의전화 : 031)715-3000

▣ 수 강 료 : 한 학기당 170,000 원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031-715-3000 / 3404

‘코로나 잊은 인재불사 원력’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12월 12일 장학금 전달식 봉행

동대 경주캠, 호계고, 천곡중 등 지역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대행스님 가르침 이어 인재불사
혜안 스님 “학생 미래 밀알되길”
장학생 “은혜에 보답할것” 편지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12월 12일 울산지원 대웅전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울산=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지역 인재불사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화제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은 12월 12일 울산지원 대웅전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호계고, 천곡중에 각각 장학금 300만원이 전달됐으며, 동국대 경주캠퍼스 재학생 5명에게도 장학금이 수여됐다. 또한 장학금 전달식에 앞서 울산 호계고와의 연간 장학지원에 관한 협약식도 진행됐다.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20여 년간 진행한 인재불사 과정을 술회했다. 이 자리에서 혜안 스님은 “은사 스님께서는 물질문명이 발달할수록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당부하셨다. 장학 사업은 그 뜻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중요성을 설명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의 장학사업은 20년 전부터 시작됐다. 2005년 소아암 환아를 돕기 위한 합창제서 대행 스님의 인재불사를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을 이어 울산지원은 지역교육기관과 연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다실음료와 동지팥죽 등을 판매한 수익과 신행단체 바자회 기금 모연으로 장학금을 조성한다. 또한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2009년 11월 재단법인 울산북구 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금 후원단체로 등록한 이후 적극적인 인재불사에 나섰다. 2012년 4월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장학회 발족 이후 2014년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장학금 후원 사찰로 협약을 맺고 대학 장학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올 1월에는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던 울산 천곡중학교와 공식적으로 장학금 지원 협약을 맺었으며, 12월에는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전달해오던 울산 호계고와 장학금 지원 협약을 맺었다. 현재 진행 중인 장학사업 기관은 울산 북구청 장학진흥재단, 매곡고, 호계고, 천곡중, 울산시청 등이다.

이 자리에서는 장학 수혜기관과 수혜자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혜안 스님에게 감사 의미를 담은 선물을 전달했다.

최민제 씨는 감사편지 낭독으로 ‘환자의 마음에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학지원을 받는 동국대 간호학과 4명을 대표해 홍지연 씨는 “여러 실습에서 저와 이어진 모든 인연은 특별하고 의미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 감사함을 잊지 않고 내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끝으로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은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기원하며 건강과 가정의 화평을 축원 드린다”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미래에 밀알이 되길 바라며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달식에는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을 비롯해 총무 혜자 스님 등 선원 스님과 천주현 신도회장을 비롯한 울산지원 신도, 이상득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외협력실장, 배준형 호계고 교감, 문윤근 천곡중 교감, 장학금 수혜자인 최민제, 홍지현 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발열 체크를 비롯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광주불교계, 연말 맞아 온정 전달

소원정사 · 한마음선원 등 자비나눔 실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광주 불교계의 따뜻한 온정 물결이 화제다.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 관음사(주지 소운), 광덕사(주지 상진), 정인암(주지 선묘), 동원사(주지 지장), 담양 금강사(주지 법안)는 12월 15일 자비신행회에서 겨울철 김장김치를 함께 담가 광주 서구청(청장 서대석)과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전달했다.

‘2021겨울나기 이웃들을 위한 김장김치나눔’으로 진행한 이날 나눔행사는 스님들과 신도가 직접 담근 김치 외에도 광주우산초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직접 뜬 목도리 등 겨울용품이 전달됐다.

이와 함께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도 12월 14일 광주 서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으로 지친 의료진들에게 간식 선물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지원장 혜월 스님, 혜전 스님, 서대석 청장, 김용섭 신도회장, 손회숙 서구청불자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간식은 가래떡, 과일, 식혜로 보건 위기상황 속에서 고생하는 서구청 보건소와 방역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됐다.

혜월 스님은 “코로나로 2년 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방역 담당자들의 노고로 무사히 지내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복운축제’ 진행



고창군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센터)은 12월 16일 ‘개관 14주년 복운축제’를 개최했다.

고창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선운사복지재단 대표 이사 경우 스님을 비롯해 유기상 고창군수와 지역주민 4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자들은 PCR검사를 사전에 받았으며, 온라인 생중계로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배려했다.

행사에서는 14년 간 복지사업을 함께 해온 지역 후원자 · 강사 · 직원에 대한 시상, 축사, 지역 후원금 전달 등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구 관음사, 스토리텔링 세미나 열어



대구 관음사(주지 원명)와 법륜교수불자회(회장 장호경)는 12월 10일 경내 무설전에서 ‘근대사찰 대구 관음사의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관응사 부주지 동진 스님과 보광원 주지 한우 스님, 동화사 포교국장 선지 스님, 임휴사 한주 각정 스님, 구룡사 주지 도일 스님 및 장호경 법륜교수불자회장, 김성규 통섭불교원장, 이상효 대구시문화과장 등이 참석했다.

부주지 동진 스님은 “법륜교수불자회에서 도심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현시대에 맞춰 고찰해줘 감사하다”며 “사찰이 지역사회 문화 창달에 지속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담마협동조합 선운장학회, 인재불사 눈길

고창불교회관 담마북카페 매출액 10%로 장학금 조성



담마협동조합은 담마북카페 매출 10%를 적립해 1000만원의 장학금을 조성, 학교 추천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담마협동조합(이사장 법만)이 고창군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선운교육문화회관 운영법인인 담마협동조합은 조계종 24교구 본사 고창 선운사에서 세운 법인이다. 담마협동조합은 청소년 장학금 조성을 위해 담마북카페 수익 10%를 기부해오고 있다.

12월 11일 고창교육문화회관 담마북카페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법만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총무국장 심학 스님, 조합 이사 종범 스님, 유기상 고창군수와 장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했다.

이날 장학금은 고창군 관내 14개 중학교 학생 19명과 고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등원중인 청소년 31명 등 총 50명에게 전달됐다. 담마협동조합 이사장 법만 스님은 “선운사가 고창군종합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노인복지를 비롯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유아 복지를 담당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원시불교聯, 제31회 산해원문화상 시상

12월 13일 지역불교, 민관 참여 속 성료


창원시불교연합회는 12월 13일 창원 그랜드머큐어호텔에서 제31회 산해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정인)는 12월 13일 창원 그랜드머큐어호텔에서 제31회 산해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연합회장 정인 스님을 비롯해 정인사 원행 스님, 불곡사 도홍 스님, 성주사 법안 스님, 정법사 도문 스님, 백운사 석봉 스님, 수선정사 성일 스님, 반야사 혜명 스님, 미타사 선혜 스님 외 지역스님과 허성무 창원시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제31회 산해원문화상 문학상에는 40여 동화집 등을 발표하여 지역문단 발전에 기여한 이창규 아동문학가(한국문인협회 자문위원)가, 예술상에는 진해미협 회장 등을 역임하며 향토화단 발전에 헌신한 박배덕 서양화가(한국전업미술가협회고문)가, 언론상에는 지역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해온 허충호 경남신문 논설실장, 행원상에는 창원한마음병원 개원으로 의료복지를 실천해온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남 무형문화재 제45호

밀양 작약산 예수재 보존회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1기생 모집

영남 범음범패의 전통을 이어온 작약산 예수재 의식 사십구재 의식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사부대중스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의식전문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 방법, 범음범패, 바라무, 작법무, 사다라니무
: 우수 전수생은 전수장학생 선발

교육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30분

개강일시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개강장소 경남 밀양시 초동면 오방길 31-56 작약산 광제사

문의전화 055-391-4403 / 010-3833-4404

芍藥山 預修齊 保存會



캄보디아, 출가자 집회금지법 제정 논란

불교 · 시민사회 반발
"출가자도 국민" 목소리

12월 8일 유력일간지 보도
법 제정 위한 워크숍 개최
SNS 등에서 반대운동 전개

박영빈 객원기자


정치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스님들. 개정되는 종교법에서는 금지된다. 사진출처=프놈펜 포스트

캄보디아 정부가 출가자들의 집회를 제한, 참여 시 최고 투옥까지 가능한 법안을 제정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월 8일 캄보디아 유력일간지 '프놈펜 포스트'는 캄보디아 정부가 준비하는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반응을 보도했다.

셍 소모니 캄보디아 외교부 대변인은 1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부터 종교에 관한 개정된 법률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실무팀이 현재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법안을 완성하기 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여론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해당 법안 초안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13장 54조항으로 이루어진 집회금지법안 중 제35조에는 "스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포함해 행동에 참여할 경우 형법에 명시된, 기타 적용 가능한 형벌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님이 관련 법을 어길 시 투옥도 즉시 가능케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소모니 외교부 대변인은 "유출내용은 초안에 불과하다. 캄보디아 불교지도자들과 워크숍을 열고 충분히 의견을 청취했다"고 답했다. 소모니 대변인은 승려 구속에 대해 "불교가 사회 존경을 잃지 않고, 오히려 법으로 불교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스님들이 시위와 파업에 참여하면,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모욕적 언사 등 불교 계율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소모니 대변인은 "스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위원회가 적절하고 공정한 방안을 내놓고 법무부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규제방안이 SNS를 통해 퍼지며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정치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헌법이 스님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부여한 자유를 법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집회법 개정 반대에 나섰다.

오우찬랏 캄보디아 개혁당 대표는 "개정안이 스님을 포함한 모든 시민 개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반대에 나섰다. 오우찬랏 대표는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스님이나 성직자는 일반인들보다 고등교육을 받고 대부분이 정치, 사회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스님들이 지도자 역할을 해왔고,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은 그런 연유"라고 주장했다.

파 찬로응 캄보디아 민주연구소장도 "1993년 제정된 헌법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인권을 존중하는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라며 "캄보디아 국민에 스님도 포함된다. 모든 국민은 양도할 수 없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있기에 현재 개정안은 위헌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캄보디아는 법무부 및 상원 자문위 등 기관에서 법률 검토 중이다. 입법과정이 가속화 되고 있어 시민사회계에서는 2022년 6월 캄보디아 총선 전 발효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美, 브루클린 박물관 불교 전시관 마련


18세기에 중국에서 제작된 금동 법랑채 감실. 중국, 티베트, 서양 디자인적 요소가 모두 혼합되어 있다. 사진출처=브루클린 박물관

불교신앙과 교리도 함께 소개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박물관이 불교예술만을 위한 상설전시관을 마련해 화제다. 지난 12월 10일 브루클린 지역 일간지 '브루클린 데일리 이글'은 브루클린 박물관의 불교예술 전시관 개장 소식을 전했다.

브루클린 박물관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본 박물관에 개장한 상설전시관 중 아시아, 이슬람 예술관에 이어 불교 예술 전시관을 오는 1월 21일 개장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루클린 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현대미술까지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소장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아시아 미술 수석 큐레이터들이 모여 기획한 이 전시관은 아시아 각 지역의 14개국에서 온 기원 후 2세기부터 2000년까지의 불교 예술품 70여점을 전시한다. 전시관에는 불교신앙과 교리, 교단사를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된다.

박물관 측이 미리 공개한 소장품 가운데는 일반적인 불상이나 불화가 같은 예술품 외에도 사찰에서 사용하는 법구(法具)나 장엄물을 비롯해, 불교적 모티프가 들어간 공예품들도 포함 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인도 오딧사주에서 발굴된 8세기경의 타라 보살상, 중국의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함께 보시하여 봉안한 은제 사리탑 등의 걸작이 전시 될 예정이며, 14세기에 제작된 일본의 양계만다라(兩界曼荼羅) 2점은 25년만에 일반에 공개된다. 또한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19개의 불교유물도 특별전시에 포함되어 있다.

불교예술 전시관은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와 이슬람 유물들을 전시한 2층에 마련됐다. 전시 동선상에서 불교의 영향을 받았거나, 불교와 영향을 주고받은 여러 문명권의 유물들은 한번에 볼 수 있게 하는 박물관의 계획이다. 브루클린 박물관은 현재 2022년 후반에 히말라야, 이슬람, 남아시아 상설 전시관의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불교 성평등 나선 태국 '비구니' 스님들

여성출가 금지 반발, 비구니승단 복원 나서

1928년 이후 여성출가 금지
2002년 비구니 수계 시작해
800여 비구니 스님들 앞장



태국 최초 비구니로, 비구니 승단 복원에 앞장서는 담마난다 스님. 사진출처=이코노믹 타임즈

여성출가가 인정되지 않는 상좌부 불교교단에서, 비구니 승단 복원 움직임이 일고 있어 화제다. 12월 9일, '이코노믹 타임즈'는 태국 비구니 승단 복원에 앞장서는 담마난다 스님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1998년 스리랑카에서 구족계를 받은 담마난다 스님은 "처음 계를 받고 태국에 돌아왔을 때 사회반응은 '매우 괴이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여성이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현재 태국은 1928년 불교 최고 의결기구인 '승가최고위원회'서 여성출가를 금지한 이후 80년 넘게 여성출가가 제한되고 있다. 스님은 "비구니에 반대하는 이들은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나를 격렬하게 비판하고, 반대했다. 그러나 몇몇 장로스님들은 '마침내 사부대중이 완성되었다'며 기뻐했다"며 상반된 견해가 존재했다고 전했다.

현재 담마난다 스님은 태국 중부 나콘파톰주에 소재한 송담마깔랴니 사원에 주석하며 다른 비구니 스님들과 수행정진하고 있다. 이 사원은 1960년 중국계 비구니 스님인 다타오(大道) 스님이 창건한 이래, 태국 비구니 운동의 산실이 되고 있다.

담마난다 스님은 "우리의 목표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을 따르는 것이다. 부처님께선 여성출가와 수계를 허락하셨지만, 현재 태국에선 그 맥이 끊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태국 비구니 스님들은 대부분 스리랑카에서 계를 받았으며, 2002년에서야 송담마깔랴니 사원에 계단이 세워지고 비구니 수계가 이뤄졌다. 현재 태국에는 비구니 스님들을 비롯해 800명 이상의 여성 출가자들이 승단을 이루고 있다.

진보적인 사회계층들은 비구니 승단에 대한 꾸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송담마깔랴니 사원이 있는 나콘파톰주에서는 비구니 스님이 더 이상 낮선 존재가 아니다.

스님은 "현재 태국엔 비구니 285명이 있으며, 이는 부처님께서 세우셨던 승단의 원래 모습"이라며 "사부대중으로 이뤄진 불교를 회복하고 있다. 만약 태국에서도 여성출가를 공식 인정한다면, 태국사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더욱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빈 기자

中, 最古 청동불상 발견

후한 시기 추정, 간다라 양식 강해


발굴된 2구의 청동불상중 입상. 간다라양식의 통견대의를 입고 있으나, 불두는 중국식의 모습을 보인다. 사진출처=신화통신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불상이 발견되어 화제다. 지난 12월 11일 중국관영 온라인 매체인 '중국망'은 산시성 셴양시에서 발견된 청동불상들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산시성 고고학 연구원은 "후한(後漢, 25~220) 시대의 무덤에서 청동불상 두 점이 발굴 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견된 불상은 남아시아 간다라 문화의 전형적인 양식이 특징적으로 보이며, 발굴 당시에는 실크로드를 통한 교역품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시성의 리밍 고고학자는 "이번에 발굴 된 불상은 연화좌에 서있는 석가모니 불상으로 약 10cm이다. 다른 하나는 납작하고 높이가 15cm 정도이며 좌선하고 있는 5명의 부처를 묘사하고 있다. 두 점의 유물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 현지화 되는 과정을 연구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1세기경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발견으로 불교 전래의 역사를 2세기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고학 연구원은 무덤에서는 불상 외에도 청동 거울, 항아리, 동물 조각품 등 부장품들이 출토되었으며, 후한 말기의 대표적인 양식들이라고 전했다. 함께 발견된 항아리에는 영수 4년(永壽, 158년)이라는 연대가 기재되어 있어 묘지의 연대가 특정됐다. 묘지가 발굴된 지구는 역대 귀족과 고위 관리들의 무덤이 밀집한 곳으로, 불상이 발견된 가족 묘 역시 고위 관리 또는 강력한 경제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류칭주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은 "문화교류가 폭발적으로 일던 시기에 불교가 고대 실크로드를 통해 남아시아에서 중국으로 건너왔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를 위한 종단 | 수행을 위한 종단 | 더불어 가는 종단

대한불교 선밀종은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간부스님 및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사암등록 및 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가사)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종단사업 참여 안내

포교를 위한 종단사업을 추진하오니
운영(지분참여)에 관심있는 분은 참여바랍니다.

▣ 전자사업(전자뜸질기)
· 국내특허 : 10-2014-0143968 (전자뜸질기)
· 국내상표출원 : 4-2014-058697-9 (전자뜸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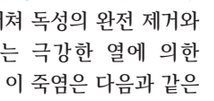
뜸의 효과를 세계최초로 전자로 대체 개발한 임맥의 단전, 중완, 신궐, 양천추, 독맥의 명문, 현추, 양관, 양신유의 뜸질



문의전화 ▶ 010-3134-8484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www.sunmiljong.or.kr 총무원 T. 053)854-0803 / F. 053)854-0804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 환인동 요가마을



30년 전통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갑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5~12/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2	알기쉬운 우리말 화엄경독송	무비 스님	우리출판사
3	근본불교	이 중표	불광
4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스님	정토
5	밀법의 진정한 의미를 말해주는 도기밀종과 동방신비학	남회근	마하연
6	우리는 늘 바라는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7	우다나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8	붓다의 옛길	삐야닷시테라	달물
9	유가사지론 강의	남회근	부키
10	죽기전에 꼭 읽어야할 법화경	손 종호	운주사



“삶은 죽음 예정돼 있어 비로소 더욱 빛난다”



나의 첫 죽음학 수업
문현공 지음
책과이음 펴냄/1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죽음은 그저 뉴스 기사에만 오르내리는 남의 소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각자에게 모두 하나씩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불안은 마치 동전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면은 두렵고 무서운 형상을 띠고 있지만 뒷면은 생명의 존속과 마음의 전환이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에 매여 있다면 저 광대한 우주로 떠난 하나의 인연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인연은 오고 갑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라고 작은 소리로 위안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대학서 청년들에게 죽음에 대해 가르치는 문현공 박사가 일상서 길어 올린 단상을 담백한 말투로 강의하듯 써 내려간 죽음학 입문서이다. 죽음의 정의를 살펴보고, 언젠가 다가올 죽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토론하며, 죽음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는 삶의 의미를 들여다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뉴스, 영화, 드라마, 게임, 소설, SNS 등 우리에게 친근한 일상의 소재에서 시작해 조금은 진지한 철학적 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소 어둡고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주제를 쉽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과연 죽음이란 무엇일까. 살아 있는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그 기간은 저마다 다르지만 모든 생명은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살아 있는 순간순간이 언젠가 다가올 죽음과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죽음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에서부터 시작해 미지의 불안과 공포를 바로 보는 법, 남겨진 자의 허무와 슬픔을 치유하는 법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낸다. 그러나 저자가 이 책서 힘주어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넘어선 삶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다. 한마디로 죽음은 결코 막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상실 또한 죽음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직장을 잃거나, 이혼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사하거나, 졸업하는 등 삶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죽음과 비슷한 경험을 거듭한다.

이러한 삶의 변화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죽음을 직시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나 괴로움을 좀 더 잘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죽음이 그렇듯, 변화나 괴로움이 오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작가는 또한 평소 죽음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은 그 자신을 ‘성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죽음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미리 가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길은 없지만
죽음 받아들이는 자세는 선택할 수 있다

듬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수용의 마음가짐이다. 수용, 즉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음이 온전히 내 것임을 인정하고 내면에 소화한다는 의미이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미지의 두려움과 고통의 소용돌이에서 헤매기를 중단하고 안정감과 침착함을 되찾는다. 이른바 ‘다시 태어남’은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킨다.

죽음은 삶에서 인간이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성장의 기회와 같다. 만약 죽음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라면 죽음이라는 손님이 노크할 때 활짝 웃으면 반기지는 못하더라도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맞이해주어야 할 약간의 이유는 될 것이다. 뒤늦기 전에 우리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얻어야 한다. 죽음이란 이름의 스승으로부터 말이다.

▲저자 **문현공 박사**는?

현 동국대 응용불교학 전공 조교수. 대학서 죽음학, 명상, 종교심리학을 연구하며 청년들에게 죽음에 관해 가르치고 있다. 공군 군종장교로 군 복무를 했으며, 동국대 대학원서 석사학위 및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뉴욕주립대 한국학센터 객원연구원,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 동국대 외래강사, 가천대학교 강사를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 〈불교 죽음 명상의 교육학적 적용〉 〈죽음 현저성의 교육적 함의〉 등이 있다.

“품성과 품격 쌓는 것, 우리가 세상 사는 이유”



스님, 고민이 있어요
등명 스님 지음
마음의 숲 펴냄/1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천년고찰 선암사는 사찰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서 가장 아름다운 절로 꼽힌다. 오랫동안 수많은 문인, 화가, 사진가, 서예가 등의 작품에 오르내릴 만큼 한국적 정서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이런 아름답고 오래된 선암사의 모습을 선암사에서 출가하고 수행한 등명 스님(현 템플스테이 교장)이 처음으로 글로 풀어내 출간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스님, 고민이 있어요〉라는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책은 선암사를 찾은 많은 사람과의 차담(茶啖)과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주고받은 삶의 진정성을 친밀한 스님의 어투로 담아 독자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풀어준다. 특히 선암사 자연 풍경과 구석구석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담은 사진들은 읽는 이들에게 선암사의 사계를 펼쳐 보여준다.

등명 스님은 불필요한 마음이 차오를 때면 현재의 내가 곧게 서 있는가를 우선으로 살피라고 말한다. 분별심을 갖지 않고 부차적인 욕심과 집착을 덜어내며 나 자신을 고요하게 만드는 연습(수행)을 하다 보면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속 고민이 해결된다고 한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무의미하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쉼과 성찰 속에서 자신의 방향이 정해지며 결국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등명 스님이 차담과 템플스테이의 경험을 통해 풀어나간 이야기뿐만 아니라, 선암사에서 천년을 넘게 이어 내려오며 사는 꽃과 나무와 새 그리고 바람과 구름의 자연 속으로 읽는 이들을 초대한다. 봄이면 피어나는 300년에서 600년이 넘은 50여 그루의 홍매화와 절 전체 꽃 잔치를 방불케 하는 겹벚꽃, 여름의 배롱나무, 작약, 상사화, 가을의 은목서 향기, 사시사철 하늘을 찌를 듯 빽빽하게 들어선 편백나무 숲, 야생차밭 그리고 선조와 추사 김정희 서체 등 산수와 인문이 어우러진 선암사가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펼쳐진다.

아름다운 숲길로 선정된 선암사 입구에 들어서면 그 어떤 고민마저도 저절로 툭! 떨어지는 것 같다. ‘공간적 · 시간적으로 속세와 성역을 가르는 분할 공간이자 완충 지역이다’라고 유홍준이 말한 숲길을 지나, 선암천 계곡에 있는 보물 400호 아치형 무지개다리 승선교(昇仙橋)를 건너 선녀가 내려왔다는 누각 강선루를 지나면 비로소 선의 세계에 이른다는 선암사. 그곳에서는 그 어떤 욕망도 욕심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많은 사찰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선암사 도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 청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배려한 이유와 사연들을 등명 스님은 말한다.

긴 세월 선암사와 동고동락하며 깨우친 등명 스님의 자연을 통한 삶의 지혜도 엿볼 수 있다. 자연에서 오감으로 직접 깨달은 지혜와 진리는 오랫동안 골머리 앓아온 숙제를 명쾌하게 풀어주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선사한다. 주어진 삶에 정정당당하게 맞서는 것, 욕심을 덜고 내 자신을 바로 보아 남은 삶에 용기를 더하는 것. 선암사를 거쳐 간 많은 사람이 그러했듯이 책을 읽는 독자 또한 그간 잊고 있던 삶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익히게 될 것이다.

선암사 템플스테이 교장 등명스님 마음 이야기
템플스테이 통해 주고받은 삶의 진정성 풀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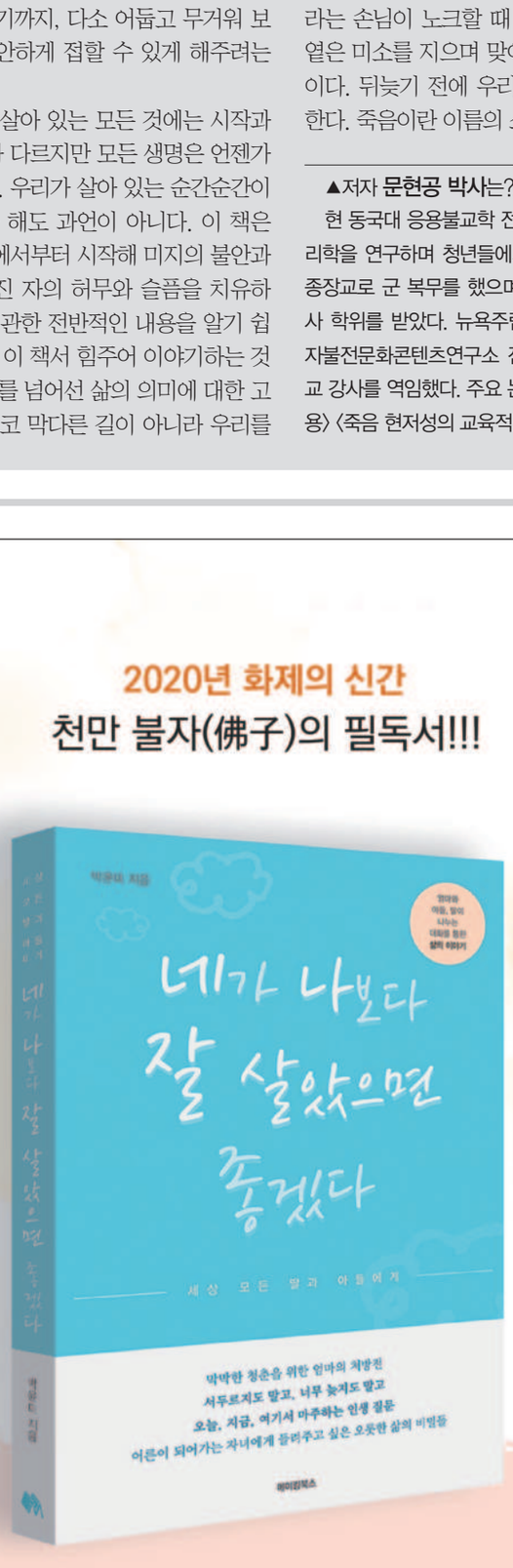
등명 스님은 그 무엇도 나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모든 번뇌는 물질에 대한 삼매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설하는 비움은 여타 교훈적인 비움과는 조금 다르다. 타인을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보다 내 안의 것을 먼저 들여다보고 분별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선암사에 머무르며 등명 스님이 깨친 분별없는 혜안의 문장은 독자에게 삶의 짐을 덜어놓도록 만드는 정겹고 따뜻한 위안으로 다가온다.

책에는 템플스테이 참가자와 스님이 차담을 나누며 주고받은 사연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등명 스님은 자연에서 깨달은 지혜가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선사한다고 이야기한다. 김주일 기자

▲저자 **등명 스님**은?

선암사는 한국불교 태고종 태고종 총림(叢林)으로 승려들의 참선수행 전문도량인 선원(禪院), 과 경전 교육기관인 강원(講院), 계율 전문교육기관인 율원(律院) 등을 갖춘 사찰이며 제자가 스승에게서 정법을 받아 뒤를 잇고 또 제자에게 전하며 계계승승(繼繼承) 해온 전통적인 사자상승(師資相承) 절이다. 등명 스님 역시 스승에게 교법을 이어받고 선암사에서 출가하고 수행하며 공부했다. 현재는 선암사 템플스테이 담임스님으로 있다.

2020년 화제의 신간
천만 불자(佛子)의 필독서!!!



세상 모든 딸과 아들에게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와 아들, 딸이 나누는 삶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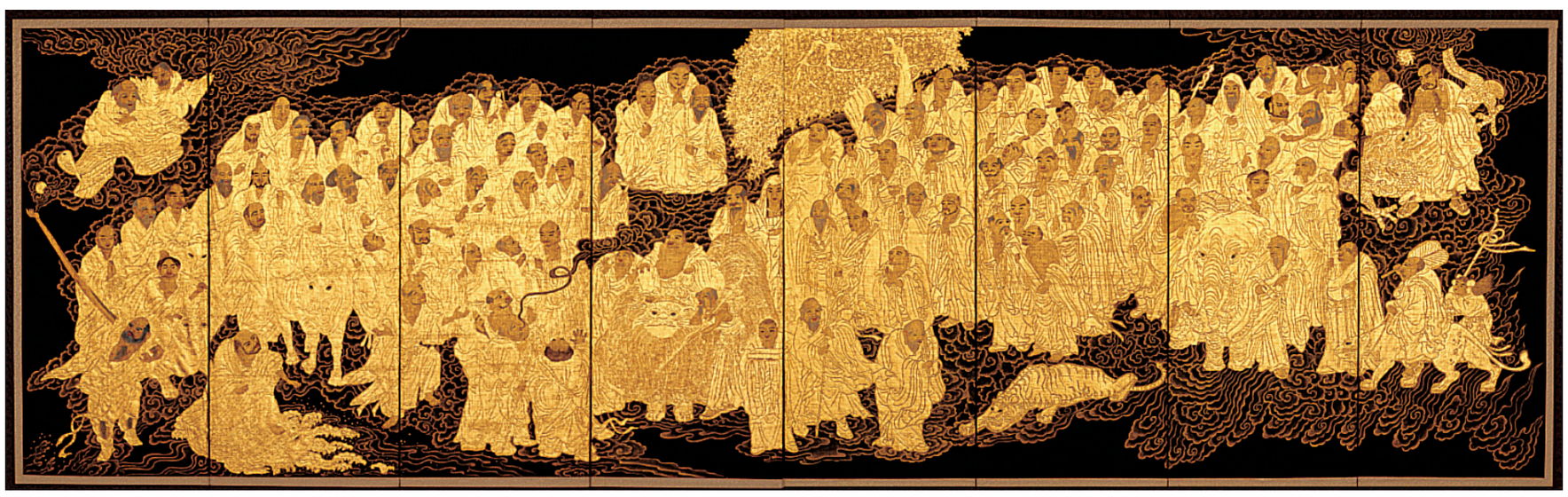
불자로서, 어머니로서, 청춘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부모님께는 자녀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줄 힘을 드립니다.

이 책 한권으로 부처님 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기적을 체험하세요!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 겠다
박윤미 지음 | 220쪽 | 14,800원

전국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최고로 정성스럽게 그린 불보살세상



금니나한도병풍(186×68.5cm 8幅), 2001년 제26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은상 수상.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조영희 개인전 '전통 불화전' 강화미술관 12월 23~29일

금니나한도 등 50여 점 전시
2005년 전면 금박탱화 시도
'금니백팔불' 민속박물관 소장

전통 불화의 맥을 잇고 있는 조영희가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강화미술관에서 '전통 불화전'을 연다.

단청장 만봉 스님의 수제자인 박정자 문하에서 공부하고 전통 불화를 계승해 온 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금니나한도병풍, 백의관세음보살도,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동진보살도 등 전통 불화 50여 점을 선보인다.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다수 수상한 바 있는 조 작가는 전통 불화를 전수받아 전통불화의 채색탱화, 금니탱화 그리고 사라진 기법을 찾아내어 새로운 금박탱화를 선보였다. 수상작품 중 금니백팔불은 문화재청이 구입해 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을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조 작가는 2005년 전시에서 금박탱화를 선보였는데 전통불화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전체 화면의 금박을 시도했다. 이후 전면 금박의 탱화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금니나한도 8폭 병풍(金泥羅漢圖, 186×68.5cm 8幅)'은 근래 보기 드문 대작이면서도 치밀한 형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무엇보다도 능숙한 금니 처리방법이 돋보인다. 화면 가득히 금채로 바탕을 이루고 그 사이사이에 나한의 상이한 동작과 표정을 배치했다. 그 인체표현에서 윤곽선의 돋을새김은 평면적인 금니의 화면에 긴장감과 함께 짜임새를 제공한다. 나한상은 비교적 다양하면서도 특색 있게 배치하려 애쓴 흔적이 보인다. 특히 얼굴 부분의 표현은 회화적인 맛을 잘 살리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신체 부분의 평면적인 금채에서 회화적인 변화와 액센트를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나한상의 표정은 제각각 다양하게 표현되어 이러저러한 중생의 다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들의 표정을 감정과 성격에 따라 변화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 얼굴 표현에서 전체적으로는 짜임새가 있으면서도 여유가 있는 제작 의도가 주목을 끈다. 금채로 화면 전체를 화려하면서도 평면적인 효과를 내었지만 얼굴 표현과 신체 이외의 빈 공간 등에서 강약의 리듬을 화면에 구사하고 있다.

△'백의관세음보살도'에서는 피부색을 소면이나 황면으로 했다.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를 근본 서원으로 하는 보살로, 보살이 세상을 교화함에는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여러 가지 형체로 나타난다. 이를 보문시현이라 하며, 33응신이 있다.

△'후불탱화'는 석가모니부처님을 중앙에 모시고 좌우로 문수 · 보현보살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금강장보살 제장애보살을 비롯하여 10대 제자와 사천왕을 배치했다.

△'지장탱화'에서는 지장보살을 중앙에 모시고 좌우 보처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명부시왕 판관 녹사 장군 사자 천동천녀를 배치했다.

△'감로탱화'는 탱화상단에 7여래(다보여래, 보승여래, 묘객신여래, 광박신여래, 이포외여래, 아미타여래, 감로왕여래)를 모셨으며, 하단의 아귀 모습은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으로 육도의 고통을 집약해 표현한 도상이다.

조 작가는 최고의 재료로, 최고로 정성스럽게 불화를 그린다고 한다. 불화를 조성한다는 것은 형상화하기 어려운 성현들의 세계를 눈앞에 드러내는 일이며, 신심과 정진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중은 성지나 유적, 또는 인근 사찰에서 불화들을 보면서 속진의 응어리를 풀기도 하고 환희심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것은 불화가 신심과 수행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불화를 다른 장르의 그림과 비교해볼 때, 불화가 갖는 의미와 매력은 그림을 통해 작가와 대중이 서로 신앙을 주고받으며, 또한 서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불화를 그리는 일은 예술을 추구하는 일인 동시에 수행의 한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는 사람의 노력, 신심, 정진, 스승으로부터 전해지는 화법,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원만한 불보살이 나타나 중생들의 간절한 신앙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조영희 작가는 1995년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박정자 선생 문하에서 입문했으며, 2000년 제25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특별상을 비롯해 다수 수상했다. 2005년 '전통 불화전(갤러리 라메르)'을 시작으로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에 참여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금니 백팔불(문화재청 소장), 공주 고려사적지 청림사 금박후불, 신중탱화 등 다수가 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기능협회 회원, 강화미술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전통불화을 강의하고 있다. 문의 (032-932-1404)

박대성 '장생포 석굴암을 만나다' 展

장생포문화창고 12월 30일까지

경주 남산 그림 등으로 불자들에게 친숙한 박대성 화백이 울산 지역에서 첫 전시를 열어 호평을 받고 있다.

경주엑스포대공원과 고래문화재단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장생포문화창고에서 특별전 박대성 화백의 '장생포 석굴암을 만나다'를 개최한다.



박대성 화백이 재해석해 그린 석굴암 본존불과 십대제자상.

독자적인 화풍으로 현대 한국화의 지평을 넓혀온 박대성 화백의 예술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12월 14일 현재 1만8000여 명이 관람했다.

전시는 석굴암에 있는 본존불과 십대제자상을 박대성 화백이 자신의 화풍으로 재해석한 작품과 전통 도자기 및 공예품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고미' 연작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지난 6월 경주엑스포대공원과 고래문화재단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호 콘텐츠를 활용한 상생활동의 일환이다. 성공적인 실무교류 사례로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은 현재까지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신규로 협약을 맺을 예정인 기관 및 기업과도 다양한 실무협약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재완 기자

윤용진, '칼 융이 보내온 편지'로 국제영화제 수상

8개 국제영화제서 다큐 부문 대상
칼 융의 눈 통해 본 부처님 십무기

영화 '할'과 '선종 무문관'을 각본 · 감독한 윤용진 감독이 다큐멘터리 영화 '칼 융이 보내온 편지(A Letter from Carl Jung)'로 뉴욕 국제 영화제 등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영화 '칼 융이 보내온 편지'는 40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로 2020년 국립극장에서 공연했던 이해경 만신과 강영호 사진작가의 '접신과 흡혼'을 소재로 했다. 부처님의 십무기를 스위스의 분석심리학자인 칼 융의 눈을 통해 바라본다.

'칼 융이 보내온 편지'는 뉴욕 국제영화제를 비롯해 바르셀로나 프래닛 영화제, 도쿄 국제 단편 영화제 등 8개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영화는 2022년 한국어로 선보일 예정이다.



윤용진 감독은 인하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디자인 전문학교 그래픽디자인과를 졸업했다. 1997년 광고제작사 바닐라엔젤을 창업해 TV CM 등 기업홍보물 100여 편을 제작했다. 선수필집 〈공황장애는 가짜다〉 〈세상 벽암록〉 등을 출간했다. 박재완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사)대한불교 연조계종 종도모집

총무원장 지 명

사서실장 현월 호계원장 범정 포교원장 정각 문화원장 삼공
감찰원장 승훈 교육원장 법성 법사원장 덕행 기획원장 지호

부처님 지혜광명 시방세계 무명중생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포교와 기도 불사에 전념하시는 대중스님께 社)大韓佛教 蓮曹溪宗에서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①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사, 암 내외 사진첨부
⑤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전법사증] 발급
⑥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社)大韓佛教 蓮曹溪宗

총무원장 : 지명 혜광 HP : 010-7109-3111
총 본 산 : 경북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65-11 **전화** : 054-481-3110 **팩스** : 054-481-3123

문화관광부 등록 종단임 본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사업, 장례문화사업, 요양원 등

승려 장인 · 불교무형문화 관심 'UP'

2021 학술 · 문화재 결산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무형유산조사사업 추진
안정사 '땅설법' 보존 본격화돼
색난作 보물로… 僧匠 특별전도
코로나에도 고승 조명 세미나多
문화재 보존 · 활용에 'IT' 접목

2021년 한해동안 학술 · 문화재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었다. 특히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승려 장인과 불교무형유산들에 대한 조명들이 이뤄졌다.

올해 초 조계종 문화부는 국고 1억 원을 지원받아 '불교무형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사업' 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의 조사 및 연구는 동국대에서 맡아 예비 조사 형태로 이뤄졌다. 그간 조계종은 불교무형유산 발굴에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08년 종단 내 무형유산에 대한 실태 파악과 종목 조사를 한 바 있다. 2013년 12월에는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 을 제정해 사찰과 단체가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을 종단 차원서 지정해 보존에 나섰다.

조계종이 올해부터 추친하는 '불교무형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사업' 은 불교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형성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조계종 문화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재 전승 상황 등을 확인하고 문헌을 통해 실전된 무형유산들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삼척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을 통해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형 속강(俗講) 땅설법의 보존을 위한 논의들이 한해 동안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2021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 에 (사)무형문화연구원이 제안한 '안정사 땅설법을 통한 한국의 속강 문화 복원 연구' 를 선정했고, 이에 맞춰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와 시연행사들이 열렸다.

삼척 안정사의 땅설법은 현재까지 전승되는 동아시아 유일의 속강으로 비교적 최근인 2018년 학계에 알려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교 인물의 일대기를 강(講)과 창(唱)으로 전달하면서, 때론 그림자극, 인형극, 가면극, 역할극 등 다양한 민속 연희들을 동원한다. 이를 통해 불자들의 교리학습과 아울러 일반인들 대상의 포교를 목적으로 한다. 땅설법은 동아시아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속강인 만큼 국가 ·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색난 스님의 작품 4건. 사진 위에서부터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 △김해 은하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 △구례 화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이에 대해 김형근 전북대 연구교수는 "안정사 땅설법은 종교의례를 넘어서서 전통예술적 측면에서도 매우 주목되는 무형유산으로 동아시아에서도 유일한 속강"이라며 "이 같은 소중한 무형 문화의 국가 ·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승려 장인들이 조명된 점도 눈길을 끈다. 승려 장인은 전문적인 제작기술을 지닌 출가승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여러 분야의 승려 장인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신앙의 대상인 부처를 형상화하는 조각승(彫刻僧)과 화승(畵僧)이 중심이 됐다.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으로 협력해 불상과 불화를 조성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으며 기술을 전수했다.

대표적인 장인이 조선 후기 활동했던 색난 스님이다. 스님의 대표작으로는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 △김해 은하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 △구례 화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을 꼽을 수 있는데, 지난 10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로 모두 지정됐다. 한 스님 장인의 대표작들이 일괄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관심은 대형 전시로도 이어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내년 3월 6일까지 기획전실에서 '조선의 승려 장인' 특별전을 개최한다. 국립박물관에서 '승려 장인' 을 주제로 특별전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국내외 27개 기관과 15개 사찰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국보 2건, 보물 13건, 시도유형문화재 5건 등 총 145건을 출품하는 대규모의 조선시대 불교미술전이다. 전시된 작품의 제작에 관여한 승려 장인은 모두 366명이다.

문화재 보존과 고승 기록을 DB화하는 사업도 잇달아 추진됐다. 문화재청은 2025년까지 총 713억 원을 투입해 전국의 모든 국가지정 · 등록문화재 약 4000여 건(종이류 등 제외)에 대한 3차원(이하 3D)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사업의 성과물은 지진, 태풍, 산불, 방화 등 재난 · 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시 원형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영구 보존된다. 또한 현실의 문화유산을 그대로 정확하게 디지털로 재현할 수 있어 실감콘텐츠 제작, 비대면 교육 · 관광, 웹툰 · 게임 · 영화 · 전시 · 디자인 등 문화산업 원천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퇴옹 성철(退翁性徹, 1912~1993) 스님의 자료가 DB화돼 세상에 소개되기도 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은 지난 5월 성철 스님이 소장했던 고문헌 중 주요 문헌 120종을 DB화해 도록으로 발간했다.

올해 내내 코로나19로 불교계 학술대회가 주춤했지만 고승들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는 온 ·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지속됐다. 지난 4월에는 오대산 고승인 만화 희찬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으며, 6월에는 대행선연구원 개원 5주년을 맞아 대행선사의 수행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나옹선사의 법맥과 여말선초 송광사의 위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도 6월에 개최됐다. 올해 열반 50주년을 맞은 청담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는 지난 11월에 열렸다.

'한국불교학' 통권 100호 '금자탑'

韓불교학회 11월 30일 발간해
교리 · 역사 · 응용 등 논문에
한국불교학 발전 견인 이끌어



(사)한국불교학회(학회장 고영섭)의 학회지 〈한국불교학〉이 통권 100호 금자탑을 쌓았다. 지난 1973년 학회 출범한 이래 약 48년만의 경사다.

〈한국불교학〉은 학회 창립 3년이 되는 1975년 창간됐다. 제호인 '한국불교학' 은 '낭공대사 백월서운탑비' 에서 집자한 신라 김생(金生) 서체에서 따왔다. 2006년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등재학술지로 발돋움하기도 했다.

〈한국불교학〉 제100집까지 불교교학, 불교사학, 불교응용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담론들을 던졌다. 특히 시대 과제와 불교 사상을 접목해 고민하는 기획들이 눈길을 끈다. 2007년 8월 발간된 제48집에는 '불교와 젠더' 를 다뤄 화제가 됐으며, 2010년 제58집에는 서구불교 운동의 문화사적 조명, 2011년 제60집에는 불교의 평화사상과 소통, 2017년 제82집에는 원효 탄신 1400년 특집 등을 다뤘다. 또한 2017년 제84~85호에 걸쳐 4차산업혁명과 불교의 접점을 모색하는 특집을 다뤄 대내외의 이목을 끌었다.

고영섭 한국불교학회장은 권두언에서 "학회 창립 반세기를 앞두고 〈한국불교학〉 제100집을 발간했다. 하나의 생명체가 100년을 사는 일이 드문 것처럼 하나의 학술지가 100집까지 발간되는 일은 희유한 일"이라면서 "이것은 우리 인문학계의 경사이자 불교학계의 경사"라고 밝혔다.

이어 "년 4회 발간되는 〈한국불교학〉은 인문불교학의 최고 학술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한국불교학〉이 인문학자, 불교학자들이 펼쳐내는 '인문학 불교학의 르네상스' 즉 '문예부흥의 개화와 결실' 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되기를 발원해 본다. 아울러 제200집을 향해 나아가는 큰 바릿대가 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통권 100호에는 특집으로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가 수록됐으며, △〈순정리론〉과 〈성유식론〉(권오민) △동아시아 불교문헌에 보이는 특이한 다라니 형태(김지연) △원효 수행관법에 대한 연구(김영미) △신라의 인왕회와 그 배경 사상(김종명) △조계종 표준본 금강경에 나타난 신행체계(정운 스님) 등의 연구논문이 게재됐다.

신성민 기자

"매월당 고려 점다법 고집…동아시아 차역사 큰 봉우리"

12월17일 천태종 삼룡사서 '초암차법 학술대회' 개최

대한불교천태종 종의회 의장이자 서울 삼룡사 주지인 무원 스님이 초암차(草庵茶)의 원류를 밝히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무원 스님은 12월 17일 오후 2시 삼룡사 지관전서 조선시대 사상가이자 지조의 대명사로 꼽히는 매월당(梅月堂) 김시습(1435~1493)의 '초암차의 재발견' 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차 행법 연구모임인 부산 숙우회(회장 강수길)가 일본에 초암차를 전한 김시습의 초암차법을 시연하고, 경북 안동 전통예절진흥회(이사장 최옥자)가 전다법을 선보여 관심을 끌었다. 행다 시연에 이어 매월당 초암차법이 한국과 일본의 차문화사에 끼친 영향, 동아시아 다도사에서 매월당 초암차 연구, 조선차사서 차지한 매월당의 위치 등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국제선차문화연구회 최석환 회장은 '고려의 점다법을 중흥시킨 매월당 초암차법의 국제적 위상' 을 주제로한 발표를 통해 "매월당의 초암차법이 점다법인가 전다법인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매월당문집〉에 수록된 차시에서 점다법임이 밝혀졌다"며 "조선이 개국하면서 잎차문화로 변화됐는데 매월당은 고려의 점다법을 고집, 말차도 초암차법을 실천해 갔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정간 매월다암연구원장은 '동아시아 다도사에 있어서 매월당 초암차 연구의 가치' 를 주제로 한 논문서 "15~16세기 조선의 매월당에 의해 창시된 초암차 탄생 배경과 일본으로 이전 및 수용된 루트 연구는 40년 동안 다수의 학문적 업적으로 축적되었다"며 "동아시아 다도사적 관점서 보면 매월당의 초암차 연구 가치는 중세 한차문명의 새로운 학술분야 개척과 맞먹을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정진 문화인류학자는 '조선 차역사서 차지하는 매월당의 위치' 를 주제로 한 논문에서 "한국 차문화 논의의 중심을 다산-초의-추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이는 차의 역사를 잘라먹는 일"이라며 "매월당을 부각하는 일은 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며, 식민주의 틀을 깨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한 강릉 김씨 후손인 무원 스님은 "신라 고승인 무상선사가 당나라에서 선차(禪茶)를 창시했고, 조선시대 학자인 매월당이 이를 한차 즉, 초암차로 발전시켰고, 일본이 자랑하는 와비차로 만들어졌다"며 "김시습의 청빈한 생애와 절개를 계승하는 한편 한국 차문화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습의 초암차법을 시연하는 장면.

김주일 기자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불기 2566(2022)년 임인년(壬寅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축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축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66(2022)년 임인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16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마감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jabi2018@naver.com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7

▶ 48회 예고

아쇼까 순행 일행은 수나빠란따국으로 떠난다. 선봉대장이 지형정찰을 떠났다가 사바르마티 강변 해적촌에서 당했기 때문에 아쇼까는 마을 소각작전을 편다. 결국 순행 군사들은 한밤중에 해적촌을 불 질러 해적들을 몰살시켜버린다.



순행 정찰조, 사바르마티강서 수난당해

아쇼까 부왕이 수나빠란따국으로 순행을 가기 전이었다. 늙은 선봉대장은 한 달 전에 미리 지형 정찰을 떠났다. 정찰조는 10명으로 단출했다. 선봉대장이 직접 군사를 선발했다. 모두가 젊고 무예가 출중했다. 늙은이는 선봉대장과 하인 길잡이뿐이었다. 길잡이는 수나빠란따국으로 가는 상인들을 여러 번 안내한 적이 있는 데바의 말먹이꾼 출신이었다. 길잡이 하인은 숙영할 때마다 선봉대장에게 다가와서 수나빠란따국의 지리를 설명했다.

"수나빠란따국 동쪽으로는 깔링가국이 있고, 동남쪽으로 안드라국이 있고, 남쪽으로는 꽁까나국이 있습죠. 수나빠란따국 사람들은 얼굴이 숯덩이처럼 검은데 특히 숫빠라까 항구에는 진귀한 보석이나 구슬을 많이 가진 상인부자들이 많습니다요."

"부자들은 무슨 장사를 하는가?"

"배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 이집트나 바빌론까지 가서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발찌 등을 팔아 구리나 바다표범가죽 같은 물건과 바꾸어 온다고 합죠."

"배를 타고 무역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

"그렇습죠. 수나빠란따국은 남쪽을 빼고는 사막과 습지가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적습니다요. 그래서 먹고살기 위해 바다로 나가 장사를 시작한 것입죠. 해적이나 풍랑과 싸우다 보니 사람들이 거칠고 맹수같이 사납죠."

정찰조 군사들은 하인 길잡이가 안내하는 대로 이동했다. 강이 나타나면 수심이 얕은 곳을 찾아서 먼 길로 돌아가기도 했고, 사막 같은 황무지를 지날 때는 오아시스가 있는 길을 선택했다. 하인 길잡이가 아니면 엉뚱한 곳에서 몇날 며칠을 미로처럼 헤맬지도 몰랐다.

선봉대장은 하인 길잡이를 전적으로 믿었다. 그가 안내하는 길에는 이따금 말을 타고 길게 줄을 지어 가는 대상(隊商)들이 지나쳤다. 대상들이 오간다는 것은 웃자인에서 수나빠란따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방증이었다.

웃자인을 떠난 지 닷새만이었다. 정찰조는 벌써 수나빠란따국으로 들어와 숫빠라까 항구 쪽으로 가고 있었다. 군사 한 명이 앞서가다가 돌아와 선봉대장에게 보고했다.

"강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건너야 할 것 같습니다."

선봉대장은 옆에 있는 하인 길잡이에게 물었다.

"보고가 맞는가?"

"예, 사바르마티강입니다요. 군사의 보고대로 수심이 얕은 곳을 찾으려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합죠. 사바르마티강만 건너면 바로 숫빠라까입니다요."

하인 길잡이가 선봉대장이 더 묻지 않았는데도 숫빠라까 항구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다. 숫빠라까는 부자들만 사는 수나빠란따국의 상업도시였다. 저절로 형성된 도시가 아니라 상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일종의 계획도시였다. 숫빠라까 도시 좌우에는 부가보강과 사바르마티강이 북쪽에서 남쪽 바다로 흘렀는데, 강물은 인공수로를 통해 저수조에 갇히거나 숫빠라까 도시를 관통해서 흘렀다. 따라서 상인들의 배가 숫빠라까 도심까지 들어가서 정박하거나, 배를 수리하는 도시 안의 조선소로 갈 수 있었다. 선봉대장이 하인 길잡이에게 또 물었다.

"숫빠라까는 왜 바닷가에 있지 않고 강 옆에 있는가?"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죠."

"이유가 있다는 말인가?"

"예, 대장님. 숫빠라까가 길쭉한 자루 같은 강 옆에 있는 이유가 있습죠."

"해적들 때문인가?"

"아닙죠. 해적들 때문이라면 바닷가나 강이나 마찬가지입죠. 해일 때문입니다요. 바닷가에 해일이 덮치면 배고 사람이고 간에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가 버립죠. 그래서 도시가 강 옆으로 올라간 것입니다요."

"그럴 수 있겠군."

뭍에서만 살아왔던 선봉대장은 숫빠라까 도시가 강 옆에 만들어진 이유를 그제야 이해했다. 숫빠라까는 해항(海港)이 아니라 강항(江港)인 셈이었다. 선봉대장이 이끄는 정찰조 군사들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북쪽으로 걸었다. 강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사막이나 다름없는 황무지가 나타났다. 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을 뿐 풀밭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말먹이를 찾으려면 빨리 벗어나야 할 황무지였다. 바다 쪽에서 뜨거운 열풍이 불곤 했는데 흙바람으로 바뀌어 눈을 아프게 했다. 그래도 강을 낀 곳에 신기하게도 사람 사는 마을 몇 개가 보였다.

"마을에서 배를 빌려 타고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마을에는 숫빠라까에 사는 부자들의 하인만 살고 있습죠. 부자들이 장사하는 보석을 가공하는 천민들인데 성질이 흉악해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요."

"그래서 이들을 피해가고 있는 것인가?"

"예, 마을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요. 보석을 훔치러 오는 해적을 막기 위해서죠."

서쪽하늘에 노을이 나타났다. 노을은 순식간에 화염처럼 번졌다. 새들이 바람에 날리는 불티처럼 어지럽게 하늘을 날았다. 선봉대장이 정찰조에게 지시했다.

"숙영지를 찾아라."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곳이라면 마을이 없어서 안전합죠."

하인 길잡이가 정찰조 군사의 보고에 동조했다. 선봉대장은 강물 소리가 들리는 언덕 밑에 정찰조 군사들을 풀었다. 정찰조 군사들은 수통에 강물을 떠온 뒤 화톳불을 피웠다. 뜨거운 물에 보릿가루와 소금을 넣으면 한 끼가 되었다. 화톳불 연기가 사바르마티강 너머로 퍼졌다. 선봉대장은 한 끼를 해결하고 나서는 화톳불 옆에서 졸았다. 나이 들어 체력이 약해진 탓에 자리에 주저앉기만 하면 눈을 감았다. 군사 두 명은 좌우로 멀리 나가 경계를 섰고, 나머지 군사들은 강둑으로 말들을 데리고 가서 배불리 수초를 뜯겼다.



달이 잠깐 떴다가 사라졌다. 별이 몇 개 반짝거렸지만 캄캄한 밤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정찰조 군사들이 하나 둘 화톳불 주위로 모여들었다. 화톳불이 꺼질 무렵에는 모두가 잠에 깊이 떨어졌다. 하인 길잡이가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았지만 잠을 깬 군사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언덕 뒤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 정찰조 군사들을 덮쳤다. 선봉대장 뿐만 아니라 정찰조 군사 모두가 눈 깜작할 사이에 당했다. 도둑 떼나 다름없는 무리였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하인 길잡이가 선봉대장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언덕 뒤쪽에 마을이 생긴 모양입니다. 예전에는 없었습죠."

하인 길잡이가 말을 하자, 무리 중에 칼을 든 사람이 다가와서 사정없이 발길질을 했다. 하인 길잡이가 비명을 지르며 나무토막처럼 나뒹굴었다. 선봉대장과 정찰조 군사들은 칼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손이 묶였다. 그 자리에서 움직일 때는 긴 헝겊으로 얼굴까지 가렸다. 하인 길잡이는 다리를 절었으므로 뒤처졌다.

정찰조 군사들은 언덕 뒤쪽 마을로 끌려갔다. 꼭두새벽인데도 마을사람들이 몰려나와 정찰조 군사들에게 욕을 했다. 마을사람들이 다 모이자, 추장이 말했다.

"이 자들은 우리가 잠들기를 기다렸던 도둑놈들이다. 이놈들은 말을 타고 멀리서 온 도둑들이니 죽여도 상관없다."

하인 길잡이가 애원했다.

"이보시오. 우리들은 숫빠라까로 가는 아반띠국 군사요. 부왕님이 오시기로 해서 먼저 와본 것뿐이오."

"이놈아, 통행증도 없이 들어왔으니 도둑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추장의 발길질에 하인 길잡이가 비명을 지르며 또 쓰러졌다. 이에 군사 한 명이 소리쳤다.

"우리들은 부왕님의 명으로 가는 길이다.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저 고약한 놈부터 죽여라."

추장이 지시하자, 칼집에서 칼을 꺼내는 차가운 소리가 났다. 정찰조 군사가 끌려가면서 몇 번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곧 조용해지고 말았다. 선봉대장은 위험을 느끼고 부하들을 달랬다.

"오해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자. 반항하지 말라."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헝겊에 빛이 느껴졌다. 선봉대장과 정찰조 군사들은 큰 창고에 갇혔다. 마을사람 두 명이 창고 문을 지켰다. 아침 일찍 머리카락이 허연 선봉대장과 하인 길잡이만 빼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끌려 나갔다. 창고 문지기들이 말했다.

"부자상인들에게 저놈들을 노예로 팔면 제법 받을 거야."

"저놈들은 바다에서 노를 젓다가 늙어 죽거나 해적에게 붙잡혀 죽겠지."

"이 늙은이들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선봉대장이 하인 길잡이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팔려가지 않을 것이다. 기회를 보아서 도망치자."

"대장님, 기회가 오겠습니까?"

"뒤로 묶인 손만 풀리면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도둑놈들이 대장님이나 저를 굶겨 죽일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하인 길잡이가 틈만 나면 입으로 선봉대장 등 쪽으로 가서 두 손을 묶은 끈을 물어뜯었다. 3일 만에 끈이 느슨해졌다. 이제는 선봉대장 혼자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다. 마침내 그날 밤 선봉대장은 끈을 풀었다. 뒤로 맨 하인 길잡이의 끈도 느슨해졌다. 뒤에서 손만 빼면 바로 팔을 휘두를 수 있었다. 이윽고 하인 길잡이가 문지기에게 말했다.

"여보시오, 나를 굶겨 죽일 셈이오? 배고파 죽겠소. 물이라도 좀 주시오."

"너희들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문지기가 한 명이 창고 안으로 들어와 하인 길잡이에게 잔소리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선봉대장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문지기를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재빨리 입을 틀어막았다. 그런 뒤 그의 급소를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켜버렸다. 선봉대장이 재빨리 문지기의 옷으로 바꾸어 입었다. 창고 문지기로 변장한 선봉대장이 하인 길잡이에게 쓰러져 있는 척하라고 지시했다. 하인 길잡이가 다리를 절룩거리기 때문에 함께 탈출 작전을 펼 수는 없었다.

"손을 뒤로 하고 옆으로 누워 있거라."

"예, 대장님."

잠시 후, 선봉대장이 창고 문을 두드렸다. 창고 문지기가 또 들어와 살피더니 쓰러져 있는 하인 길잡이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내일 아침에는 추장님께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했는데. 또 한 놈은 어디 있는 거야?"

그때, 선봉대장이 또 다시 창고 문지기를 가격해 쓰러뜨렸다. 그제야 하인 길잡이도 문지기 옷으로 갈아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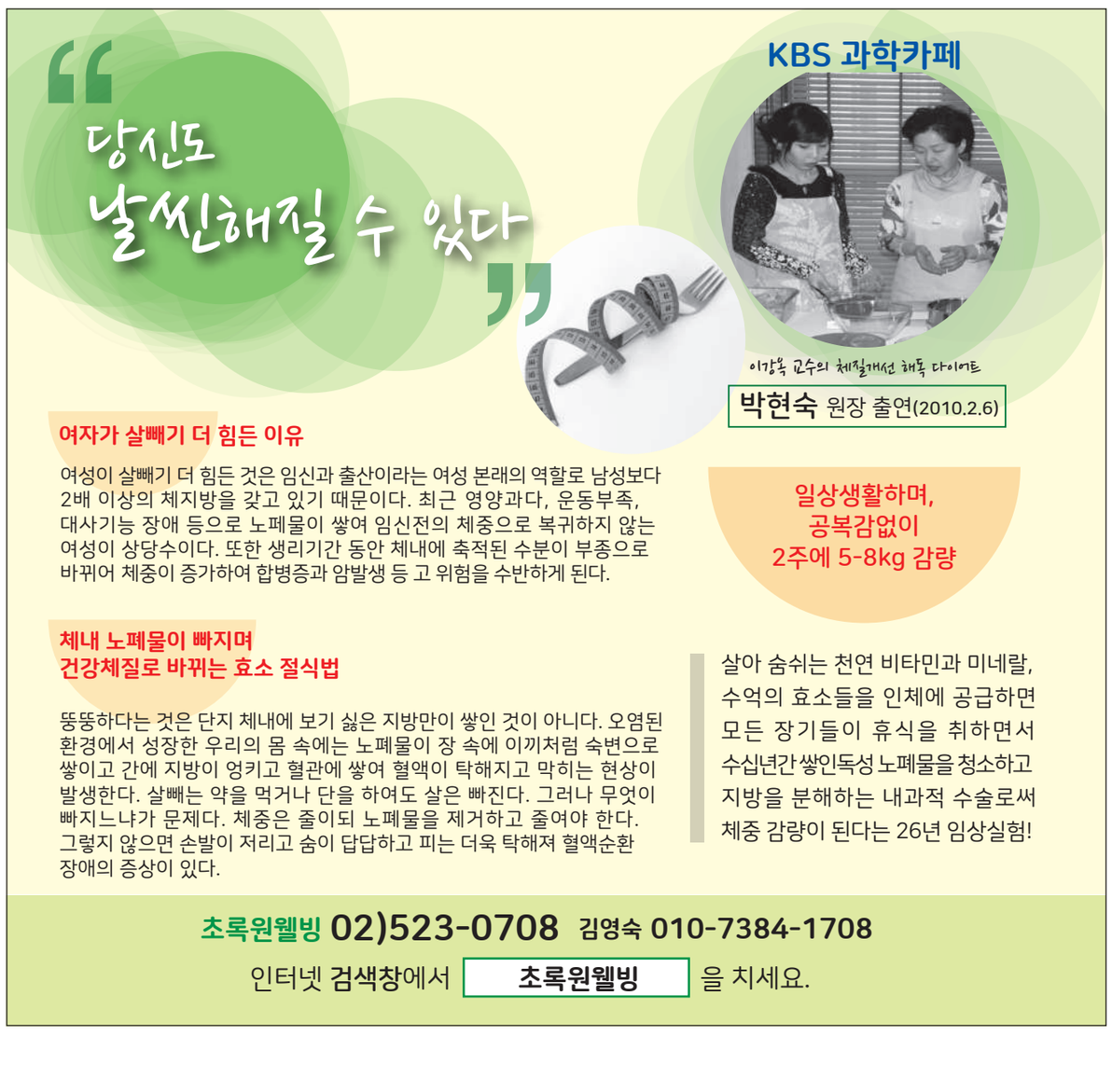
"저놈들을 죽여버리고 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저놈들이 깨어났을 때는 우리는 벌써 수나빠란따국을 벗어나 있을 것이다."

"자비는 대장님께서 베푸십니다요."

"자, 여기를 어서 빠져나가자."

두 사람은 문지기의 칼을 빼앗아 옆구리에 차고 밖으로 나왔다. 마을 입구 추장의 집에는 말 한 마리가 말뚝에 묶여 있었다. 말먹이꾼 출신인 하인 길잡이가 말을 살살 달래가며 끌고 나왔다. 말에 먼저 올라탄 하인 길잡이가 말고삐를 쥐었다. 선봉대장도 말 등에 날렵하게 뛰어서 탔다.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반띠국 웃자인을 향해서 달렸다. 한참 만에 아침 해가 떠올랐다. 두 사람은 땀을 비 오듯 흘렸다. 쏜살같이 달리는 말도 안개와 땀에 젖어 갈기와 목덜미가 축축해졌다.〈계속〉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24 한국선의 정체성



▶ 한줄 요약
중국선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 수용하여 전개하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라는 땅에 토착화하려는 주체성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현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선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보편적 다양성 흡수한 독자적 한국선



1. 선법의 출현과 그 기반

선의 시작은 붓다가 깨달음을 얻는 방식으로 채택한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선의 역사는 불교와 함께 비롯되었다. 이후로 인도불교에서 선의 역할은 다양한 불교의 전개에 공통하는 수행의 행위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추구하는 근원적인 기능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선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성격으로,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는 사유의 속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 결과 인도불교의 역사에서는 항상 점수의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수해의 경지에 대해서도 차제적인 탐구가 깊이 천착되었다.

이러한 인도선의 성격은 이후로 불교가 성립된 지 1000년 무렵에 보리 달마에 의하여 중국에 전래됨으로써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변용되었다. 특히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수증관의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모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선법을 위주로 하는 소위 선종(禪宗)으로 형성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전개를 보여주었다. 인도불교의 경우와 다르게 중국불교에서는 선을 중심으로 하는 교단이 형성되면서 그 행위규범도 상당한 변모를 보이면서 차제적인 수증관과 판이한 결과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곧 7~8세기 조계 혜능에 이르러 수행과 깨달음의 관계를 다르지 않게 설정하는 수증일여(修證一如)가 그것이었다. 그로부터 더욱 크게 발전한 남종의 돈오선법에서는 송 대에 선의 새로운 수행법이 창출되는가 하면, 다양한 선의 문화로 전개되었으며, 수많은 선문헌을 통하여 선사상을 보다 심화하고 확충하는 측면으로 파급시켜왔다. 그 결과 중국선은 중국불교의 특징으로서만 아니라 선종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전개하였다. 그것은 발심과 수행과 깨달음 그리고 인가와 전법을 강조하는 문화에 이르기까지 가장 선적(禪的)인 주체성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중국선은 역사적으로만 크게 확대된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넘어서 한자 문화권을 근거지로 하여 동아시아불교의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일례는 한국불교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바로 중국선의 이와 같은 전개과 그 영향을 바탕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까닭은 한국선의 수입으로부터 발전과 전개와 특수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중국선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야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와 중국과 한국이라는 지역으로 나누어 선법을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한자 문화권의 보편적인 속성을 지니게 된 것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선법의 역사는 불교의 역사만큼이나 항상 어디에서나 그 보편성에 근거하여 형성되고 전개되어왔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한자 문화권이라는 공통적인 기반이야말로 선종의 발생과 전개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성취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 점은 선종의 특성을 논의할 경우 대단히 큰 장점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굳이 번역이 필요 없는 언어의 통일성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딱히 동일한 것만도 아닌 면모가 폭넓게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을 지니게 되었다.

2. 한국선의 정체성

이러한 한자 문화권 가운데서도 온전히 발생하고 전개되어 온 한국선이면서 중국선의 정체성과 구별되는 특징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 '한자'라는 동일한 문자의 기반에서 형성되었지만, 그것을 부단히 변용시켜서 활용했다는 점에서는 토착의 문화와 사상으로 인하여 본래의 선종 특징과 구별되는 특이한 점이 배태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우선 중국선의 경우는 인도불교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새로운 선법에 해당하는 소위 달마조사를 연원으로 하는 조사선을 형성하고 그것을 꽃피우면서 전개되었다. 여기에서 추구하는 조사의 개념은 선종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한국선에서는 그와 같은 중국 조사선법을 직수입하고 그들의 법맥을 수용하여 전개하는 가운데서도 한편으로 여래선과 상대되는 의미로도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선과 차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위 조사선의 한국적인 선법의 창출로서 전개된 진귀조사설(眞歸祖師說)이 그것이다. 이 경우에 조사선은 달마를 연원으로 하는 조사선의 의미와 구별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전을 바탕으로 하는 언어문자의 선리에 기반한 여래선(如來禪)의 상대적인 의미로 활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선지식이 납자를 교화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파주(把住)와 방행(放行)의 방식을 들 수가 있다. 전자는 선지식이 지도하는 납자를 단도직입으로 깨우쳐주려는 조사선적인 방식이고, 후자는 노파심절한 방식으로 일깨워주는 여래선적인 방식에 해당한다. 그런데 한국선이 수입되던 초기에 출현한 진귀조사설은 바로 전자의 관점에서 출현한 선리로 신라에 선법이 수입되는 즈음에 부득불 필요했던 방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진귀조사설은 이미 세련된 발전을 구가하고 있던 상황에서는 굳이 필요성이 미약했겠지만, 처음으로 선법이 수입되는 9세기 중엽의 신라불교의 상황에서는 가장 필요불가결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이 점은 신라의 선법에 나타나는 특수한 상황이면서 이후로 한국선 수행의 전반적인 기저로 점철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선수행의 지도방식으로 계승되어 오고 있다.

중국선, 달마 연원의 조사선 전개
한국선, 중국 조사선 직수입했지만
진귀 조사설 창출로 중국선과 차별
고려, 묵조·간화 수입 문자선 계기

한편 6~8세기 중국선이 형성되던 시기에 전개되었던 순수한 조사선법이 당나라 시대를 거치고, 수백 년이 흐른 송 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폐풍의 모습도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조사선의 이념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그에 수반되는 본래의 수행정신을 상실한 결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송 대 중기에는 초기의 순수한 조사선풍의 모습으로 회복하려는 자각이 싹틈으로 말미암아 그 일환으로 묵조선(默照禪)과 간화선(看話禪)이 새롭게 출현하였는데, 이후 12세기 말엽에는 고려에 수입됨으로써 한국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중국의 선종사에서는 당 대부터 비롯된 공안선(公案禪)의 수행가풍 및 송 대에 크게 발전한 문자선(文字禪)의 수행가풍이 변질되면서 발생했던 의리선(義理禪)의 폐풍을 극복하려는 방법으로 묵조선과 간화선이 등장하였다. 그렇지만 고려의 선법에서는 오히려 묵조선과 간화선의 수입으로 인하여 새로운 문자선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가 진각 혜심(眞覺慧諶)의 〈선문염송(禪門拈頌)〉이라는 공안집의 편찬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백운 경한(白雲景閑)의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라는 전등록의 편찬으로 전개되었다. 이들 문헌들이야말로 공안참구를 위한 문자선의 텍스트들이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고려시대 선수행법의 전개는 간화선과 묵조선과 문자선과 공안선이 혼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이 점은 중국의 선법을 수입하면서도 고려선법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면모이기도 하다.

또한 신라로부터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일관되게 전개되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선과 교의 관계였다. 선법의 수입기에는 선의 정착을 위한 까닭에 의도적으로 교학보다 선법의 우월성을 주장한 내용이 제기되었지만, 그다지 큰 역할을 이루어내지는 못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소위 선교차별을 겨냥한 주장에 해당하는 무설토론(無舌土論)이었다. 이런 성격의 부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으로 집대성되어 출현하였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보조 지눌의 선교융합의 입장은 이후 한국의 선종사의 전개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이후 조선 중기의 청허 휴정에게까지 계승되었다. 그러나 휴정은 한편으로는 선과 교에 대하여 이중적인 입장으로 선을 중심에 두고 교를 보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교입선(捨敎入禪) 내지 종교입선(從敎入禪)의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선주교종(禪主敎從)의 견해를 보여주었다. 한국의 선종사는 중국선의 경우보다 보다 지속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선과 교의 관계에 대하여 특수한 모습을 노정하였다.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선과 교의 융합을 주장했는가 하면, 때로는 그들 차이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선교의 관계에서 차별의 입장을 지니게 된 근원적인 배경으로는 선의 우월의식에 그치지 않고, 선종 내에서도 오로지 임제종만 정통이라는 문중의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조선시대의 선법은 선종오가 가운데서 임제종만 조계 혜능 법맥의 직전(直傳) 내지 정전(正傳)이라는 의식이 여러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것은 청허 휴정의 〈선가귀감(禪家龜鑑)〉을 비롯하여 환성 지안(喚醒志安)의 〈선문오종강요(禪門五宗綱要)〉, 백파 긍선(白坡亘璇)의 〈선문수경(禪文手鏡)〉 및 다양한 사기(私記), 용성 진종(龍城震鍾)의 어록에 이르는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이들 선종오가 가운데 임제종만 정통이라는 의식은 중국선종의 법맥의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유달리 한국선에서 두드러진 임제종 자파의 전개와 무관하지 않았다. 고려 초기부터 수입된 중국선의 임제종은 고려 중기는 물론이고 후기에도 여전히 강력한 법맥의식의 발로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임제종에서 내세우는 간화선의 수행방식도 대혜 종고(大慧宗杲)와 몽산 덕이(蒙山德異)의 지도방식이 혼재되어 계승되었다. 나아가서 화두의 참구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개의 화두를 긍정하는 중국과 일본의 간화선과 차별되는 점으로, 한국선종의 간화선법의 방식에서는 하나의 화두참구를 중시하는 풍조의 전통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국선의 특징을 담보해주는 이들 몇 가지 점들은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멀리 중국에 유학하여 끊임없이 그들의 사상을 익히고 문화를 습득하여 중국선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 수용하여 전개하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라는 땅에 토착화하려는 주체성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현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선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한국선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특징은 비단 위에서 언급한 몇몇 경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전반적인 한국선의 역사는 항상 중국선의 전파와 그 발전으로부터 시작되고 전개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그런 까닭에 혹자에 의해서 한국선은 중국선의 아류라는 폄하된 평가도 있었다. 그것은 계승 및 발전의 과정에서 창출된 다양한 선법의 이면성을 간과한 견해에 불과하다. 중국선과 관련하여 한국선은 그 보편적인 다양성을 흡수함과 더불어 이 땅에서 피어난 특수성이 새롭게 착종(錯綜)되면서 성취된 결과였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모습은 국내에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 유학하여 구법한 선승 가운데는 끝내 귀국하지 못한 다수의 선승이 일궜던 선법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한국선의 범주에 포함시켜 두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끝〉

〈동국대 HK교수〉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6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24 지은원 소장 〈관경16관변상도〉 ②



▶ 한줄 요약
극락왕생에도 등급이 있다. 이는 〈무량수경〉 등을 도상화한 〈관경16관변상도〉을 보면 알 수 있다. 도상에서는 연꽃의 여덟이나 영접하는 보살의 수를 통해 표현된다.

그대 근기따라 '극락왕생'합니다

'극락왕생' 에서는 사람에게 등급을 매긴다. 〈무량수경〉에는 상(上) · 중(中) · 하(下)의 3등급으로, 〈관무량수경〉에서는 상 · 중 · 하 3등급에서 각 등급 마다 다시 상 · 중 · 하로 나누어 총 9등급이다. 평등을 말하는 불교에서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다니! 불교는 평등을 말한다. 그 이유는 모든 존재의 본질이 연기(緣起)이기 때문이다. 이것과 저것이 만나 덩어리를 잠시 이루다가 다시 이것과 저것으로 해체된다. 이것을 연기-연생-연멸이라 한다. 나와 세상은 온통 연기-연생-연멸의 무상한 파도일 뿐이다.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일본 교토 지은원 소장 고려불화 〈관경16관변상도〉의 하단 중간.

그림②. 지은원 소장 고려불화 〈관경16관변상도〉의 상품상생 모습 중 상품의 연못 장면. 상품에 드는 순간 무생법인을 깨닫게 된다.

〈무량수경〉도상화한 〈관경변상도〉
'극락왕생'할 수 있는 조건 표현해
낮은 品일수록 영접 존상 수 줄어
'왕생의 조건' 만만치 않음 알아야

불교 '평등'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따지자면, 지금 필자의 책상에 있는 '볼펜' 이나 '나' 나 동격이다. 볼펜과 나는 평등하다. 그 이유는 볼펜이 둥근 볼 · 볼 홀더 막대기 · 잉크 · 플라스틱 겉 튜브 등의 부품으로 구성돼 있듯, 나 역시 무명 · 행 · 식 · 명색 등 12연기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그저 조건들의 만남이라는 진리. 연기하는 실상(實相)을 보면 거기에 개념 또는 망상이 붙을 수가 없다. 목전에 현존하는 이러한 실상을 '법(法)' 이라 한다.

그렇기에 당연히 차별은 있을 수 없다. 무상하게 연기하는 실체를 보면, 거기에 외모 · 나이 · 출신 등 개념과 차별이 들러붙을 자리는 아예 없다. 무지 속 우리는 평생토록 직책과 직업 · 출신과 학벌 · 빈부 · 인종 · 성별 · 연령 등 사회적 편견과 멸시로 괴롭힘을 당하고 또 주며, 스스로와 타인을 괴롭히며 살고 있다. 그런데 불교에서까지 사람을 9품의 등급으로 나누다니! 그 실체를 알아보자.

'9품 왕생' 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품(品)' 이란 등급 또는 차별을 말한다. 대표적 벼슬의 등급으로 중국 당나라의 9품 제도가 있다. 또 동양 회화의 세계에도 예술성의 경지를 신품(神品) · 묘품(妙品) · 능품(能品) · 일품(逸品)의 4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물론 신품(또는 무상신품)은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최고의 경지를 일컫는다. 그런데 이 같은 등급을 매긴 〈무량수경〉의 대목을 보도록 하자.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이는 그 근기(根機)와 수행(修行)에 따라서 상 · 중 · 하의 차별, 즉 가장 우수한 무리(上)와 중간층의 무리(中) 그리고 가장 낮은 층의 무리(下) 등 3등급으로 구별된다.(후략)"

이상의 내용에서 상중하의 3등급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근기와 수행에 따라서' 이다. 근기란 불교의 진리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말하며, 다른 말로 법기(法器)라고도 한다. 각 중생이 전생에서부터 닦아서 이미 내장하고 있는 수행 역량 또는 수행 용량을 말한다. 그 용량이 작으면, 하근기이고 그 용량이 크면 상근기이다. 불성을 밝히는 인(因)을 얼마나 내 무의식에 저장하였는냐에 따라, 그 과(果)로서의 근기가 결정된다. 즉, 수행한 만큼 근기의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수행과 그에 따른 근기를 들어 등급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기와 수행' 정도에 따라

잘못을 들추고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다. 내 현주소를 알아 더 수행하라는 이야기이다. 불교에서 중생을 보는 단 하나의 잣대, 근기. 사회적 높고 낮음 상관없이 남녀 차별 없이, 불교에서는 그 중생이 얼마만큼 수행 능력이 있는지만 본다. 그래서 아무리 지위 직책이 높아도 부처님의 눈에는 하근기일 수 있고, 또 사회적 편견으로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상근기일 수 있겠다. 이렇게 근기에 따른 자질과 수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이유는, 본인 수준에 따라 구제 방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자기 단계를 스스로 자각해 거기에 맞게 수행해 나가라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내 현주소의 등급은 〈무량수경〉을 비롯해, 〈관무량수경〉(상배관 · 중배관 · 하배관)에는 더욱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내가 어느 등급인 궁금하면, 〈관무량수경〉의 해당 부분에 9품으로 나누어 언급해 놓은 자질의 내용을 보고, 객관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늠해보면 된다. 최상급에 해당하는 상품상생(上品上生)의 조건을 요약 게재하면 다음과 같다.

"상품상생 상품상생이라는 것은 세 가지 마음(三種心)을 일으켜 극락왕생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솔직하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至誠心)이요, 둘째는 깊게 믿는 마음(深信心)이요, 셋째는 모든 선행을 회향하는 마음(廻向發願心)이다."

그리고 어떠한 이가 이에 해당하는지 "자비심이 깊어 살생을 하지 않고 모든 계율을 지켜 행동이 올바른 사람, 대승경전을 지성으로 독성하고 6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선근 공덕을 회향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신 깜냥 따라, 극락체험 정도 달라

우리나라 극락 그림을 대표하는 고려불화 〈관경16관변상도〉의 하단(지난 연재 〈그림①〉 참조)에는, 한 가운데에 상품인의 연못이 크게 자리하고(본 연재 〈그림①〉), 좌우로 우측에 중품인의 연못, 그리고 좌측에 하품인의 연못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상품상생인은 가운데 연못의 정중앙에 멀리서도 금방 구별되게끔 크게 그려져 있다(〈그림②〉). 커다란 하얀 연꽃에 이미 보살의 뒷모습을 한 상품상생이 보인다. 여타 연화화생의 존상보다 몸체가 더 크고 화려하다. 머리에 보관을 썼고, 천의(天衣)를 입었다. 특히 머리의 녹색 광배로 그려진 두광(頭光)은 여타 다른 연화화생에게는 없는 요소이다. 이렇듯 깨달음의 장엄과 깨달음의 빛이 이미 몸체에서 뿜어져 나온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상품지상생(上品池上生)' 이라고 붉은 사각 바탕에 금 글씨로 명기돼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상품상생의 앞을 보면, 누각의 난간이 계단처럼 활짝 열려있고 바로 아미타삼존과 마주보게 배치하였다는 것이다. 아미타삼존의 영역과 연못의 영역이 경계로 나뉘어 있지 않고, 뚫려서 바로 통하게끔 묘사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금강대를 가지고 대세지보살과 함께 수행자 앞에 나타나고, 아미타불은 찬란한 광명을 나투어 그 수행자의 몸을 비추어 영접한다"라는 문구처럼, 관세음과 대세지 옆에는 금강대가 마련돼 있으며(〈그림①〉) 아미타삼존이 모두 함께 수행자 앞에 찬란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9품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극락세계에 영접하러 나투는 존상의 숫자가 줄어들고 또 왕생할 때의 조건도 점점 낮아진다. 예를 들면, 상품상생은 왕생할 때 궁극의 '무생법인' 을 깨달아버리지만, 상품하생은 환희지에 머물 따름이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연꽃이 열리지 않아 그 속에 갇힌 채로 대기하는 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면, 상품하생의 경우 연화화생을 순간 했지만 금새 다시 연꽃이 오므라 들어 버린다. 그리고 21일이 지나야 뿌옇게 보이지 않던 극락의 풍경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한다.

중품의 하한선 문턱인 중품하생에라도 해당되려면 "선량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세상사람들에게 인자하게 행동한 사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여기에도 해당 안 되면, 하품의 부류이다. 하품상생의 조건은 "비록 대승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어리석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도 참회하거나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본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모르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중생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인지 하품상생이 연꽃에 대기하는 기간은 49일이다. 우리가 49재를 행하는 이유가 우리 근기에 맞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보다 더 아래의 근기인 하품중생과 하품하생의 경우 연꽃이 닫혀있는 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하품중생은 6겁이고, 하품하생은 무려 12대겁이 지나야 연꽃이 열린다.

〈관경16관변상도〉의 하품의 연못에서는 연꽃 봉우리가 닫혀 갇혀있는 중생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연꽃 봉우리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깨달음에 접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깨달음의 자유와 해탈에 결코 접하지 못한 채로, 그 무량겁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니. 나무아미타불 10번 만 불러도 극락왕생한다는 아미타신앙. 하지만, 들여다보면 '왕생의 조건' 이 결코 만만치 않다. 〈끝〉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박원자의 母情佛心 23 동국대 정각원장 진명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1990년대 후반부터 방송포교로 이름을 알린 진명 스님은 올해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스님은 수상 소감으로 "좋은 목소리를 갖게 해준 어머니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출가 당시 눈물 보였던 어머니는 지금도 스님께 "차 조심, 사람 조심"을 당부한다.

"돌아오지 않으려면 사찰서 잘 살아라"



그림 · 박구원

올해 포교대상 공로상 수상하며
"좋은 목소리 준 어머니께 감사"
출가선언 당시 울기만한 어머니
겨우내 정한수 뜨고 '안녕' 기원
지금도 어머니는 "차 조심" 당부

1990년대 후반, 아침 9시면 불교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포근하고 담백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한 비구니 스님의 목소리에 많은 시청자들이 매료당했다. 클래식 음악과 어우러졌던 진명 스님의 라디오 진행은 오랜 시간 이어졌다. 그동안 불자들은 신심이 깊어졌고, 이웃 종교인들은 불교를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종교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개종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산속에만 있는 줄 알았던 스님이, 더구나 비구니 스님이 방송진행을 하는 것은 당시에 파격적이었다. 25여 년 동안 스님은 BBS불교방송과 BTN불교라디오 등 불교계 방송과 라디오 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가까이 그리고 쉽게 여기는데 일조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얼마 전 제33회 조계종 포교대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아마 부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셨다면 충분히 방송을 포교수단으로 삼으셨을 거예요. 이보다 좋은 포교수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그랬을 것이다. 스마트폰 전성시대 아닌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에는 마음만 먹으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 다 담겨있다. 신통의 시대다. 아마 부처님께서 지금 세상에 오셨더라면 세계적인 뮤지션 '방탄소년단' 보다 더 인기였을 것이다.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방송에 나오셔서 인류 최대의 화두인 '고통' 에서 해방돼 '행복' 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셨을 테니까. 그러고 보면 부처님 제자들인 수행자들에게 이 시대는 포교를 잘 할 수 있은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 선두에 일찌감치 섰던 진명 스님은 수상식에서 "이런 좋은 목소리를 가지게 해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남겼다. 스님에게 멋있고 독보적인 목소리를 물려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스님은 1남7녀의 맏딸이다. 어머니는 딸 넷을 두고 난 다음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늘 하는 군담이 있었다. "아들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할머니의 남아선호 사상에 대한 신념과 기에 눌린 어머니는 그 후 자식 셋을 더 낳았는데 모두 딸이었다. 아들을 낳고 두 번째 딸을 낳았을 때는 미역국도 안 드셨을 만큼 상심이 컸다. 실성한 사람처럼 감나무 밑 담장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다가 아래로 떨어져 평생 고생했을 만큼 어깨를 크게 다치기도 했다. 그래도 키워야 할 자식이 곁에 있는 한 한없이 강한 존재가 세상의 어머니 아니던가. 어머니는 다시 일어서 다감한 마음으로 자식들을 정성껏 뒷바라지했다.

비록 시어머니에게 구박은 받았으나 마음만은 한량없이 컸던 어머니였다. 지리산 쌍계사 근처 시골마을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아버지 덕분에 명절이면 고기며 과일이 선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큰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붓고 고기를 전부 집어넣어 국을 끓인 다음 아이들을 불러 줄을 세웠다. 아이들은 광주리에 담긴 고깃국이며 떡, 과일과 과자를 머리에 이고 친척집과 생활이 여의치 않은 이웃집에 음식을 배달했다.

텔레비전이 없던 60년대 시절, 저녁이면 어머니는 큰딸을 조그마한 라디오 앞으로 불렀다. 큰딸은 턱을 괴고 누워 당시 유행하던 드라마 '섬마을 선생님' , '동백아가씨' 를 엄마와 함께 듣고 잠들었다. 목소리가 곱고 노래도 잘 불렀던 어머니를 따라 드라마 주제가를 불렀던 그 시절이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다. 동생들이 일곱이나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 품을 온전히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노래 실력은 시원치 않으셨지만 아버지도 가끔 팔베개를 해주시면서 한 소절씩 노래를 따라 부르게 했다. 처음 따라 불렀던 노래가 '대전블루스' 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 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 발 영 시 오십 분' , 아직도 그 첫 소절의 여운이 또렷하다. 그런데 어쩐 일일까. 이 노래가 실제가 되어버렸다. 이 큰딸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고향 지리산을 떠나 부산에 가있더니 진학 대신 출가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량아로 태어나 별명이 '풍년두부' 였을 만큼 건강했던 큰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다. 장과 간이 안 좋아 고생하면서 중학교 때는 학교에 사흘도리로 갈 만큼 병원을 오갔다. 학교를 너무 많이 나가지 못해 때로 담임선생님께서 반장, 부반장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갈 정도였다. 몸이 아프다 보니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삶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사춘기를 보냈다.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는 이 지리산 시골마을 이 부모님에게 태어났을까?'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마음이 쓸쓸했고 친구들보다 먼저 죽을 것만 같았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풀 때 '죽음' 이 숙제가 되었다. 어머니는 아픈 딸을 위해 한약을 달여 주었다. 너무 오랫동안 약을 먹다보니 먹는 척하고 집 앞 도랑에 버리기도 했는데, 어느 약에 닿았는지 차츰 몸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해, 부산으로 가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때 서점에 자주 드나들며 불교서적을 접한 게 출가의 계기가 되었다. 하루 종일 서점에서 읽고 싶은 책들을 읽었다. 진학은 뒷전이고 불교에 푹 빠져들었다. '불자지송' 을 보면서 신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반야심경〉을 읽으면서는 '왜 부처님께서는 눈과 귀, 코가 없다' 고 하셨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한 스님을 만나고서 수행자도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마음이 시원해졌다. 출가 준비가 시작됐다. 〈천수경〉을 다 외웠다. '신묘장구대다라니' 를 사흘 만에 다 외웠고, 〈천수경〉 구절들이 마음에 쏙쏙 들어왔으니, 전생에 익힌 인연이었을 것이다.

출가의 뜻을 비치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참석한 가족회의가 열렸다. 먼저 할머니가 입을 여셨다. "내가 육십 평생을 살아보니 저 하고 싶은 것 하고 사는 놈이 장땡이더라. 보내줘라."

평생 효자였던 아버지가 이번에는 할머니 말을 듣지 않았다. "네 다리를 분질러놓고 내가 평생 먹여 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중은 못 만든다."

결혼해서 출가(出嫁)를 해야 할 딸이 난데없이 절로 출가(出家)를 한다니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머니는 말없이 울고만 있었다. 딸이 물러서지 않자 아버지는 타협점을 내놓았다. 일단 일주일만 살다가 오라고 했다. 생선을 좋아하고 일도 못하는 딸이 그 어려운 절집 생활을 견뎌낼 수 없을 거리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딸은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중에 들었다. 어머니가 그해 겨울이 다가도록 매일 아침마다 밥하러 부엌에 들어가 얼마나 눈이 짓무르도록 울었는지. 그리고 정한수를 떠놓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서 잘 살라' 고 빌었다는 이야기를.

그래도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했던 부모님이 기대를 완전히 버린 것은 스님이 행자시절을 마치고 강원에 들어가기 전 운문사 사리암에 있을 때였다. 대구에서 친구 아들 주례를 섰던 아버지가 이래저래 딸 생각으로 마음이 허허로워 택시를 대절해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너무 해맑고 즐거운 표정으로 인사하고는 밥상을 차려온 딸을 대하고는 그만 기가 막혀 말 한마디 안하고 그길로 돌아갔다. 나중에 인사드리러 간 큰손녀에게 할머니께서 들려주었다.

"자식이 무섭긴 무서웠나 보더라. 내 아들이 6.25전쟁 때 그 모진 고생을 해도 울지 않더니, 딸 있는 곳을 다녀와서는 사흘 밤낮을 안 일어나고 베갯잇을 적시며 울더구나."

강원에 들어간 딸 스님의 '수계 받고 부처님 제자가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는 편지를 받은 아버지는 만리장성의 답장을 보내왔다. '너를 아들처럼 키우며 기대를 했는데 출가한다고 했을 때 네가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부처님 제자로 출가했으니 열심히 수행해서 세상의 빛이 되는 스님이 되라' 는 내용이었다. 어머니도 편지를 자주 보내왔다. 앞산의 잔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스님이 추운데 얼마나 힘들까 생각한다며, 새벽마다 건강하게 잘 살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감성적인 어머니의 편지를 도반 스님들이 돌려 읽고는 저마다 두고 온 어머니 생각에 다 울었다고 한다. 진명 스님은 부모님에게 '큰스님' 이라 불린다. 다섯째 딸인 동생이 출가하는 바람에 자연히 그렇게 되었다. 지리산의 정기를 받고 자랐음인지 사촌 둘도 출가했다. 그러자 작은 아버지께서 '저 큰스님 때문에 애들이 졸졸 따라 출가했다' 고 푸념 아닌 푸념을 했다.

출가한 딸 스님들이 집에 들르면 '스님, 앉으세요' 하시곤 공경의 삼배를 올렸던 어머니는 그래도 여전히 수행자 이전에 자식은 자식인걸까. 진명 스님이 방송일로 유럽에 여러 날 있을 때 어머니 수원심 신말순 여사께서 하신 말씀이다.

"스님, 차 조심, 사람 조심 하세요. 누가 가자고 하면 따라가지 마세요."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당당하고 씩씩하며 때때로 유쾌한 농담으로 상대방을 무장 해제시키는 딸 스님이 이에 답했다.

"보살님, 제 얼굴이 무기예요. 저보고 따라갈 사람 없어요. 좀 예쁘게 낳아놓고 그런 말씀 하셔야죠."

그런데, 요즘 스님 모습을 보면 스님 어머니의 걱정이 이해가 간다. 스님의 빛나는 피부와 환히 웃는 얼굴이 화장품 광고를 하는 여느 중년배우보다 훨씬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다 관세음보살들이죠. 어머니들이 이 세상의 모든 자식을 길러내잖아요. 보살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아낌없이 줄 수 없죠. 출가해서 살아보니까 고해 속에서 살면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삶 자체가 우리 수행자들보다 더 큰 수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고 세상의 어머니들이 모두 그렇게 사시죠. 어머니들은 한 가정만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건강하게 만들죠." 〈작가〉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부처님법, 〈법화경〉에 다 있어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㊼ 법화경의 의미와 가치

그때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찬탄해 이르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보현이여. 그대가 능히 이 〈법화경〉을 수호하여 많은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 이익을 얻게 했으며, 그대가 이미 불가사의한 공덕과 깊고 큰 자비를 성취하였도다. 아득한 예로부터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켜, 능히 이렇게 뛰어난 원을 세워 이 경을 수호하니 나도 마땅히 신통력을 나타내어 보현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는 자를 지켜 주리라.

보현이여, 만약 이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여 익히고 베껴 쓰는 중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석가모니불인 나를 만나고 직접 내 입에서 이 경을 들은 것과 다름이 없는 줄 알 것이며, 그 사람은 석가모니불인 나를 공양한 것인 줄 알 것이며, 그 사람은 부처님께서 '훌륭하도다' 고 칭찬받은 줄 알 것이며, 이 사람은 석가모니불인 내가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것이라 알 것이며, 이 사람은 석가모니불인 내가 옷으로 그의 몸을 덮어 준 것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사람은 다시 세상의 쾌락에 탐착하지 않을 것이며, 외도의 경서나 글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 사람은 모든 악한 자, 백정이나 돼지와 양, 닭과 개를 키우는 사람이나 또는 사냥꾼이나 여색을 파는 자와 가까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리라.

그 사람은 마음이 올곧아 바른 생각을 지니며 복덕의 힘을 지니며, 이 사람은 삼독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며, 또한 질투와 아만, 사만, 증상만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 사람은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아서 능히 보현행을 닦게 되리라.

보현이여, 여래가 멸도한 뒤 후오백세에, 어떤 사람이 법화의 가르침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자를 보게 되거든 응당히 이렇게 생각하여야 하느니라. '이 사람이 오래지 않아 도량에 이르러, 모든 마군의 무리를 깨뜨리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어 법륜을 굴리며, 법의 북을 치며, 법의 소라를 불며, 법의 비를 오게 하여, 천신과 사람의 큰 무리 속에서 사자좌 위에 앉게 되리라' 고 생각하라.

보현이여, 후세에 이 경전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사람은 다시 의복, 침구, 음식 등 일용품을 탐하는 일이 없으며, 소원이 헛되게 되지 않으며, 또한 현세에서 그 복의 과보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보현이여, 이 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을 보면 응당 일어나서 멀리 영접해 부처님을 공경하듯 해야 하느니라."

〈법화경〉의 마무리도 보현보살이 하고 있다. 〈화엄경〉에서 보현행원이 보살도 완성을 상징하듯이 〈법화경〉에서는 〈보현보살〉 '권발품' 이 법화법문의 대미를 장식한다. 법화법문이 설해진 데에는 원래 〈법화삼부경〉이라 하여 설해진 순서가 있다고 말해왔다. 〈무량의경〉을 개경(開經)이라 하여 법화법문을 시작하여 여는 경으로 보았고 〈법화경〉을 본경(本經)으로 설해진 다음 〈보현행법경〉이 결경(結經)으로 설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천태 지의가 말한 것으로 이때부터 '법화삼부경' 이란 말이 나왔다. 〈법화경〉 서품의 본문에 부처님이 〈무량의경〉을 설하고 나서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었다 하고 또 〈화엄경〉을 해인삼매에서 설했다는 것처럼 〈법화경〉을 무량의처삼매에서 설했다고 한다. 경의 이름과 삼매의 이름에 쓰인 무량의란 말은 '한량없다' 라는 말인데 〈무량의경〉에서 설명하기를 "성품이 무량하므로 설법이 무량하고 설법이 무량하므로 뜻도 무량하다. 그 무량한 뜻은 하나의 법(一法)에서 생겨나니 그 하나의 법이 무상(無相)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의 뜻도 결국 일승(一乘)의 의미와 상통한다. 〈법화경〉은 무량한 뜻으로 보살의 가르치는 법이라는 점을 무량이란 말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법화경〉의 마지막 품인 '보현보살권발품' 은 〈보현행법경〉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법화경〉을 수지독송, 서사하면 석가모니부처님을 직접 만나 부처님의 입으로 설하는 말씀을 들은 것과 다름이 없다 하여 부처님법이 모두 〈법화경〉에 다 들어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계율은 주목해야 할 '표지판'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㊼ 계율의 가치

흰 눈으로 뒤덮인 겨울 산을 오르노라면 눈 앞에 펼쳐진 설경에 연신 감탄이 터져 나오곤 한다. 그러면서도 한 발자국씩 옮기는 발걸음은 무척 조심스러운데, 행여 눈길에 미끄러질까 염려해서이다. 이따금 입산통제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무시하면서 계속 오를 것이고, 어떤 이는 되돌아갈 것이다.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일 것이다.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행동이다.

불교도에게 있어서 계율은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같을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율(律)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정되었는데, 이를 수범수제(隨犯隨制)라고 한다. 즉 악행을 저지르는 이가 생길 때마다 그 악행을 금지하는 율 조문(條文)이 생긴 것이다. 승가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들도 늘어났을 것이고, 그에 대한 처벌도 다양해졌을 것이다. 한두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의 질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율장(律藏)은 일종의 판례집과 같은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본래의 목적은 바람직한 승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다.

재가자는 출가자와 달리 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신에 재가자에게는 계를 어겼을 때 받게 되는 다양한 과보(果報)들이 설해지게 된다. 다시 말해 재가자에게 있어 계를 지키는 것은 개인적으로 선한 행위, 또는 도덕적 행위를 습관화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대승불교에서 설해지는 대승계, 즉 보살계에서도 보살이 자발적으로 계를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치중한다. 이로 인해 대승 경전에서는 보살계를 어겼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구체적으로 설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살은 어떤 상황에서든 보살계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계를 지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장려되는 것인가?

산속의 표지판은 많은 이들의 안전을 위해 세워진 것이어서 한 사람이라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한두 사람의 부주의한 행동이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불자에게 계율은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표지판을 못 본 체한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많은 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표지판을 알려야 한다.

모든 불자가 계율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내인(內因)과 외연(外緣)이 갖추어져야 한다. 가령 나무가 불에 잘 타는 성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불을 붙여주지 않으면 타지 않는 것과 같다. 대승 경론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진여(眞如)라는 내훈(內熏)의 에너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불보살과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는 외연이 없으면 발심하여 수행하려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한다. 마찬가지로 계율을 지키려는 마음, 즉 본래 청정한 성품에 따르려는 마음은 그것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이 없으면 결코 실천될 수 없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외연을 베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흘려들었던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반대로 한해 동안 여러 선지식으로부터 외연의 혜택을 충분히 받았음을 알아차렸다면 많은 이들을 위해 그것을 아낌없이 베풀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이다. 〈끝〉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㉓ 관음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중생 행복 위해 오신 관세음보살

불자 여러분!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성불을 이룰 수 있는 수행법은 그 종류가 많습니다. 여래선, 지관선, 조사선, 간화선, 염불, 주력, 간경 등과 같이 최상승선과 대승선을 비롯한 대승의 다양한 수행법들이 깨달음을 향한 수행자들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불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수행법들에 대해 구체적인 원리와 실천 방법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서 장에 간다' 는 식으로 남이 좋다고 하니 무작정 따라하는 식으로 수행한다면 성불하기 어렵습니다.

불자 여러분! 초기불교시대와 대승불교시대는 수행의 목표와 수행방법 그리고 신행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불교에서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개인적인 해탈이고, 그 수행의 증과(證果)가 아라한과를 증득하는 것이라면, 대승불교에서는 수행의 목표가 성불과 함께 일체중생의 구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불교에서는 자력 중심의 수행을 실천하여 아라한과를 증득하고, 대승불교에서는 타력 중심의 신앙과 수행을 중심으로 성불과 함께 중생구제의 대승보살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서는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을 병행하여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이념에 맞게 개인적 성불과 함께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불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력과 타력의 신앙을 병행해서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불자들은 수행법이 어렵기만 하고 깨달음은 이뤄지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이것저것 주어지는 인연대로 아무 수행법을 선택해서 하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불할 수 없습니다.

불자 여러분! 성불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불과 인과가 맞는 올바른 수행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선택한 수행법에 대해서 인과법에 맞는 수행 원리와 기술들을 충분히 배우고 이해한 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인과에 따라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승불교의 수행법들 중에서 개인적 성불과 함께 일체중생의 구제를 함께 완성할 수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적 신앙인 관세음보살의 신앙과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수많은 대보살들 중에서 가장 널리 신앙되고 실천된 대보살입니다. 기원전후 1세기경 남인도지역에서 출현하였던 관세음보살님은 서원과 위신력을 갖추고 일체중생을 구제하시는 대보살들 중에서 가장 으뜸인 대보살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과 구제력은 많은 대보살 중에서 당연히 으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음신앙은 타력 신앙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신앙이 되었던 것이며 오늘날까지도 으뜸인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이유는 대자대비한 중생구제의 서원과 원력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중생들 곁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모든 부처님을 대신하여 우리 중생들을 교화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묘응시현 제중감로〉 '고해자우품 제1' 에서 관세음보살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생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베풀며,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중생들을 건져내어 그들을 극락으로 인도한다. 중생과 함께 부처를 만나보고 중생과 더불어 가르침을 들으니, 중생으로 인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위해 중생을 깨우친다. 극락의 장엄은 본래 중생을 위한 것이며, 보살의 미묘한 실천행 역시 중생을 위한 것이다. 보살의 미묘한 실천행 역시 중생을 위한 것이니, 중생 속에 살며 함께 일하고 제불(諸佛)을 대신해 교화를 베푼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구제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제거하고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중생의 행복을 이루어주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69호 | 17 | 전면광고

계를 지키면 늙도록 편안하고 잘 지내게 되나니, 지혜는 사람의 보배요, 복은 도둑맞는 법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출요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010-3586-6091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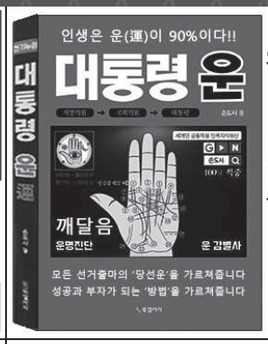
<상표등록 1424679호>
포인트 위주로 가장 쉽게 아수해 드립니다.
• 현재 궁금한 점과 그 대안책(타고난 인생·병·영가 일년 신수 등 '왜?' 그러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과거·현재·미래의 사주와 미래에 대한 대안책 제시
• 대상 : 스님, 철학인, 법사님 등(속성반 7강 진행)
• 출장 및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단, 경상북도 이남 지역은 포항에서 직접 지도 및 안내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9 가야선원
문의처 010-2901-8923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아미타삼존불과 지장보살 모셔갈분

불상높이 좌대포함 4자

❋ 12월25일이후 ❋
무속인은불가

010-6534-5835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 • •
사찰 처사(운전가능)님 모십니다.
숙식 필수
(60세 이상, 경기도)
• • •
010-9157-2276

• • •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제주도(육각사)
• • •
010-3753-7844

• • •
기도하실 스님 모십니다.
경주
• • •
010-8908-0488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 • •
010-8721-2198

뭐든지 성취되는

기도비법을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이름만 보면 모든것을 알수있다※
관재 · 소송 · 송사 · 이혼 · 시험운 · 사업운
부도 · 정신병 · 건강 특별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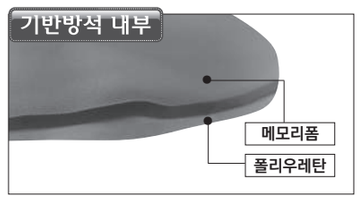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69호 | 18 | 전면광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드는 이가 있으면
설사 커다란 불 속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불이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경내부지 : 5,000평
◎건평 : 60평 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양도가 : 협의

◎위치 : 전국
◎부지 : 1,000평-10만평
◎건평 : 120평 외 전각
◎천년사지 외
◎양도가 : 가격다양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까지 홍보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 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구성 소재(김천역 차편 15분대)
- 법당 약 20평, 주방 거실1, 방2, 세면장, 화장실, 벽돌조 32평 독채, 등기필(사찰등록), 대지 약 100평, 도지료 연 35만, 남향, 구성 중심소재 교통좋은 대로변 포교지
- 가액 : 3천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산읍
- 건물 : 2층, 목조 법당
- 대지 : 540평
- 건평 : 3동 2백평, 단청 완비
- 가액 : 13억

054-977-6611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영천 시내 멋진 법당
- 2층 72평, 완벽한 시설, 방3칸, 주방, 화장실, 넓은 옥상, 앰프시설 완비, 방음 완벽, 민원도 없음
- 보 5백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9377-2279

학원 및 사찰터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우동
- 대지 : 약 256평
- 우동 자이아파트 단지 옆 자명요양병원 앞
- 가액 : 5억

010-3173-51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바닷가 근교
- 부지 : 530평(대지 240평, 전 29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3동
- 토지(전) : 건축 가능
- 가액 : 2억 5천(절충가능)

010-3871-2210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내면 희곡리
- 대지 : 약 2,100평
- 전망이 아주 좋음
- 가액 : 5억

010-3173-5151

포 교 원 안 내

- 부산 수영구 광남로 (50평 이상)
- 3층 건물 / 2층(큰방 2, 화장실 2, 넓은 거실) / 약사부처님 3자반/일광월광/호신불 약사관음 108불/영단/지장 108불 영단 잘 되어 있음
- 보 1천만원 / 월 70만원(시설비 2천5백만)
- 스님 건강상으로 양도함

010-3700-3628
010-7476-989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대문구 왕산로
- 건평 :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 건강문제로 인해 양도함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 임대료 월 8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010-3714-10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독채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45만원
- 시설금 7백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사찰(급)안내

- 24년된 종교용지, 대지218평, 시유지포함500평사용, 주차10대 ● 건평68평중 1층 요사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 심야전기, 지하석수1일150톤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종무직원1명+집기일체포함, 즉시법회가능, 현재성업중, 건강상 싯가이하로 7억 8천에 양도함 ● 가격 : 절충

010-6425-82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정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 대지 : 360평(국유지 1만평 사용)+사유지 500평 무상사용 ● 법당 : (요사채+최신형 인테리어), 극락전(목조기와신축)
- 가액 : 1억 2천만원(3억 5천 대출승계안고)
- 조건 : 모든석불포함(석불조성 1억 5천만원)
-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울창, 편백나무숲 5천그루 ●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 공사 전주시장 승인 준공예정

010-9647-0723

사찰 안내

- 대지 1,700평, 법당 60평
- 관음전 60평, 약사전 100평 기도원 40평, 공양실 100평
- 납골당, 지장전, 원두막, 종무소
- 폭포가 있는 절(김천지역)
- 가액 : 23억(대출 5억)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 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대이로
- 4층(65평)남향, 엘리베이터 사용
- 법당, 방2개, 상담실, 부엌, 화장실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010-7219-007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 건평 70평(법당,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

010-9015-4040
010-2077-7820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 가액 : 6억 5천
-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5371-5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 부지 : 5,823평(종교용지, 대지 1,700평 포함) 건물 : 3개동(대웅전, 요사채, 극락전)
- 토지, 건물 : 분할가능
- 가액 : 21억(분할시 상단 15억, 하단 7억) 입주조건 : 협의 결정

010-4225-001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산 입구
- 2층 42평, 시설금 1천2백만, 보증금 3백합 1천 5백만, 월세 30만
- 법당, 요사채(2), 공양간, 시설완비(에어컨 2,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증설 및 공사, 판넬, 도배, 기타 시설은 무료)
- 5년전 인수금액 그대로임

주지 무진 010-3049-5816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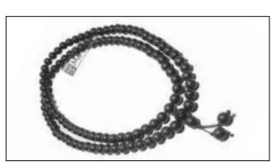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수문천 수문천녀 수문천

〈守門天〉 〈守門天女〉 〈守門天〉



수문천은 동문의 외측에 위치하고, 외적을 물리쳐 해산시키는 원력으로 동문의 좌측을 수문천녀와 함께 수호한다.

형상: 몸은 살색이고, 사천왕형(四天王形)이고 천의를 걸치고. 우수에는 활짝 핀 연꽃을 들고, 좌수에는 혜검을 가지고 있으며, 좌측무릎을 세우고 자리에 앉아 있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㉓ 함께하는 도반

정진하는 장애우의 좋은 도반 되어주길…

우리는 외형적으로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고 있지만 "불성에도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거나 받은 적도 있다. 어찌 불성에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할 수 있을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본성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도 불자의 기본 생명과 같음은 장애인에게도 똑같다. 그렇기에 불(佛).법(法).승(僧) 삼보를 믿고 의지하며 신행과 수행도 삼보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삼보에 귀의함은 모든 중생과 더불어 스스로 수행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약속이며 다짐일 것이다. 보리수아래 부처님 품 안에서 장애불자들도 삼보에 귀의하는 맘은 똑같을 것이다.

경전에 나오는 장애인 수행자는 십대제자 아나율과 자신의 장애를 벗으로 삼아 깨달음을 얻은 주리반특, 척추장애인으로 자신이 모시는 왕비에게 바깔세상 법회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웃다라 등은 대표적 인물이다. 경전에서는 이들이 최고의 수행경지에 도달했거나 큰 공덕을 이루었음을 말하고 있다.

경전에 소개된 이들의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1년 동안 보리수아래 부처님 품안에서 소개했던 장애불자들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본다.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화계사 불교학생회 지도를 하고 있는 홍현승, 날마다 108배 수행과 법화경 사경을 하는 김영관, 시각장애를 가진 김동원, 피아니스트 · 국악 · 작곡가로 성장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최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분주히 뛰고 있는 심장장애인 이상복, 보치아 국가대표선수 김준엽, 시인과 직장인으로 성장한 뇌병변장애인 성인제, 시각장애인단체를 이끌고 있는 미영순, 보기드문 효자 이경남, 인식개선강사 성희철, 한달에 한 번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방생하는 스물여섯살 이재훈, 시나리오작가 우창수, 중증장애에도 동료장애인들의 홀로서기를 도왔던 정상석 등등 참 여법한 이름들이다.

'삼귀의', 장애인에게도 같은 의미
불성에 장애 · 비장애 있을 수 없어



2016년 보리수아래 낙산사템플스테이에 동행해주셨던 중앙승가대 스님들.

이들의 수행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불법승 삼보에 귀의해서 깨달음을 얻어 참다운 불자가 되고자 하는 원은 같을 것이다. 시대가 다를 뿐 아나율과 주리반특, 웃다라의 수행과 같을 것이다.

현재의 장애불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신행생활을 성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나율과 주리반특이 깨달음을 얻는 데는 부처님의 혜안과 살핌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스님들께서 바탕을 만들어주시고 여러 방법으로 살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보리수아래를 결성하게 해주신 지현 스님, 바른 불법공부를 하게 하시고 조용히 지켜보시다 넓은 혜안으로 살펴주시는 송강 스님, 어느 때든 달려와 주시는 해성 스님과 도륜 스님, 장애불자들이 활동을 넓혀 갈수록 곳곳에서 좋은 인연을 맺어주시는 스님들이 참 많았다. 아마도 모든 스님께서 장애불자들과 인연이 닿는다면 부처님의 혜안과 살핌으로 장애불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장애불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사찰의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장애인화장실, 경사로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춰지고 흥천사 전법회관 내 법당들, 도심건물에 있는 광림사 법당, 국제선센터, 부산 홍법사 원형법당 등은 휠체어가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된 사찰의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찰은 불편하고 불친절하다는 인식 등의 부정적인 불교에 대한 편견들을 바꾸어 가야할 시기가 된 듯도 하다. 이는 스님, 장애불자, 비장애불자, 각 종파의 종단사무국에서 함께 구심점을 찾아 노력해야겠다. 어느 지역의 어느 사찰은 장애인이 참배하기 편하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작은 정보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홉의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하나의 긍정적인 시각이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환경을 바꾸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경전을 잘 살펴보면 경전 속 장애인들은 장애인으로 기록되어 있다기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수행해 깨달음을 이룬 인욕과 지혜의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 부처님은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않고 혜안과 사랑으로 이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인도하셨다. 장애인도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장애인들도 수행력으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침 그대로 보여주셨다.

〈금강경〉에는 "불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다(是法平等 無有高下)"고 했다.

평등과 자비사상의 불교다. 참된 불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장애불자들에게 불자들이 좋은 도반으로 동행이 되어주길 바란다. 또한 장애불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스스로 신행생활과 포교 활동은 방법을 찾고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시기다. 장애불자들이 언제든 모여서로 소통하고 불자로서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는 서원을 세우며 1년간의 연재를 마친다. 연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현대불교신문에 감사드린다. 〈끝〉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마음책 다시 읽기 붓다의 명상법 ❺ 마음명상 매뉴얼

▶ 한줄 요약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번뇌의 근본적 원인은 무명이므로 깨달음이 있어야 무명을 소멸시킬 수 있다. 지혜의 계발을 위해 마음이 고요한 삼매의 계발은 필수적이다.

명상에서 노력은 인내의 과정



1. 수행의 핵심

● **명상수행 대한 올바른 이해를 계발한다.**

명상은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해지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언제든 번뇌에 의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붓다의 명상법은 번뇌의 원인인 갈애와 무명을 소멸시키기 위해 삼매와 통찰지를 모두 닦는다. 지혜란 있는 그대로를 꿰뚫어 보고 아는 것이다.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번뇌의 근본적 원인은 무명이므로 깨달음이 있어야 무명을 소멸시킬 수 있다. 지혜의 계발을 위해 마음이 고요한 삼매의 계발은 필수적이다.

● **끊임없이 수행한다.**

명상에서 노력은 욕심을 내며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꾸준히 하는 것이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분의 섭취가 필요하듯 정신의 건강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명상 수행이 양분과 같다.

●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린다.**

수행은 그동안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의 경우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여 하기 쉽다. 명상은 불필요한 지적 활동을 지양하고 아무 노력 없이 있는 그대로를 꿰뚫어보고 아는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다. 모든 번뇌의 원인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오염원들이므로 좌선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고 마음을 비우도록 한다. 그리고는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알아차리기 쉬운 대상부터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수행한다. 긴장을 풀고 마음이 편안할수록 마음챙김과 알아차림 수행이 잘 이루어진다.

● **바른 마음가짐을 갖도록 한다.**

번뇌들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자신의 모든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좋은 상태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은 탐심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번뇌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진심(성냄)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탐심이나 진심으로 수행하지 말고 모든 체험을 받아들이는 마음자세를 갖추는 것이 지혜의 계발에 도움이 된다.

● **모든 것들을 평등한 대상으로 대한다.**

대상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모든 것들은 다 '평등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수행한다. 장미꽃도 잡초도 퇴비도 모두 이치대로 일어난 평등한 것들이다. 우리의 마음이 구별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세는 중도를 기르고 통찰지의 계발에 도움이 된다. 번뇌를 대할 때는 번뇌에 대해 중요한 것은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지 회피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한다. 수행의 관건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과 온 마음으로 함께 머무는 것이다.

2. 수행 지침

밖에서 일어나는 일, 수행하기 전에 일어난 일, 수행이 끝나고 할 일 등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이 홀가분해지도록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다. 수행에 성숙한 수행자는 모든 의식되는 것들을 내려놓는다.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끌어들인다.

좌선에 들기 시작하면 마음상태를 살핀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 성급함, 탐심, 진심을 살핀다.

눈으로 수행하지 말고 마음으로 수행한다. 마음이 대상에 향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는지 살핀다.

수행 중에 필기하지 말라, 수행이 사라져버린다.

자세는 중요하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느낌으로 알아차리고 바른 자세로 돌아가도록 한다.

노력은 편안한 노력을 말하지 긴장하는 노력이 아니다.

수행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한 것이므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단순히 주시하도록 한다.

내가 수행하지 말고 이치대로 수행하도록 한다.

아는 마음으로 대상을 알도록 한다. 대상이 마음에 다가오도록 한다. 아는 마음으로 대상을 아는 것이 이어지도록 한다.

마음챙김 명상 수행이 성숙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정도로 힘들이지 않고 수행하게 된다. 알아차림조차 놓아버리고 깨달음에 대한 욕심 없이 수행 자체에 충실하도록 한다.

개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빠라마타(구경법)이다.

마음오염원 차분히 비워
마음챙김 알아차림 시작
닦는 것 자체에 충실해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 사띠(마음챙김)가 늘 있도록 한다.

3. 좌선수행

좌선 자세를 취하기 위한 스트레칭

양다리를 벌리고 가장 무리가 가는 부위(가랑이, 허리 등)에 마음을 집중하고 숨을 들이쉰 후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1mm씩 움직이듯 천천히 상체를 구부린다. 이 때 숨을 내 쉴 때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독가스 부정적 생각 등)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는 자기 암시를 해도 좋다. 상체를 앞으로 구부릴 때 꼬리뼈부터 허리 사이의 부위를 구부리는 것이 중요하다. 허리 위 부분만 든다는 생각으로 상체를 들어준다. 그리고 양 어깨를 뒤로 빼고 턱을 집어넣고 고개를 살짝 든다. 그러면 척추가 가지런히 놓이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내려놓음

명상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과거와 미래로 달아나는 마음을 '지금 여기' 머물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욕심과 회한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다. 취지는 수행시간만큼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부터 몸과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워지도록 하여 명상 수행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마음 자세를 갖기 위한 것이다.

내려놓기를 할 때 삼배를 하면 보다 효과적이다. 과거의 좋은 수행 체험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매 번 새롭게 수행에 임하며 수행지침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좌선 자세

양다리는 평좌 자세(두 발을 앞뒤로 나란히 놓음)를 취하고 상체를 꼬리뼈 부위부터 앞으로 쭉 뺀 다음 허리 위부분만 수직으로 세우도록 한다. 둔부 끝에 방석을 고여주면 자세가 안정된다. 어깨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양 어깨를 뒤로 빼고 턱은 몸쪽으로 붙인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든다. 바른 좌선 자세를 취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명상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만 현재 몸의 상태에서 굳으면서도 편한 자세 사이의 균형을 찾아 자세를 취하다보면 점점 더 바른 자세를 편하게 느끼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좌선수행시간

초보 수행자는 15분 정도, 경험자는 40분~1시간 정도 자세를 바꾸지 않고 좌선 수행을 한다. 초보 수행자가 심한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 자세를 바꾸기 전에 의도를 알아차리고 자세를 바꾸도록 한다.

좌선수행법

좌선 수행 시작 전에 모든 욕심과 걱정, 근심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 마음을 비운 후 온 마음을 코끝(콧구멍과 인징 사이)에 두고 문지기처럼 호흡을 마음챙겨 알아차린다. 들숨과 날숨을 경험되는 그대로 길면 길다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린다. 호흡을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이 불규칙적이면 불규칙적인대로 자연호흡을 알아차린다. 초보 단계에서 호흡이 불편해질 수 있다.

이것은 호흡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호흡이 방해를 받아 그런 것이다. 호흡이 불편할 때는 다른 대상을 알아차리다가 호흡으로 돌아와 자연호흡을 알아차리도록 한다. 얼마간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호흡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면 다음 단계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호흡의 흐름을 따라 알아차리도록 한다. 잡생각이 일어나면 성내는 마음을 내지 말고 일차 대상인 호흡으로 돌아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한다. 알아차림 수행에 탄력이 생기면 잡생각에 의해 끊기는 시간의 길이와 빈도가 짧아지고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분명해질 것이다. 호흡이 꽉 찬 것같고 호흡의 흐름이 분명하게 알아차려지면 몸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인다. 호흡을 경험 되는대로 알아차리는 것은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호흡을 느낌으로 알아차리다 보면 몸 전체가 알아차림의 장이 된다. 몸의 느낌, 특히 긴장을 많이 알아차리도록 한다. 그렇게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위빠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온몸의 느낌이 미세해지며 알아차림이 이어져 삼매가 계발된다. 위빠사나의 힘이 강화되어 긴장을 보면 사라지게 된다.

수행에 성숙한 수행자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호흡의 전 과정을 느낌으로 분명하게 알아차리며 잡념이나 생각을 짓는 작용이 일어나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저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오도록 한다. 잡념이 있으면 있다고 알아차리고 없으면 없다고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오도록 한다. 마음의 반응, 의도 등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긴장, 탐욕, 성냄 등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

수행에 성숙한 경우 감각적 즐거움을 쫓는 성향, 악의, 나태, 들뜸, 의심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지면 그러한 마음 상태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

수행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십이지연기를 순관과 역관으로 알아차린다. 특히 상카라(행)를 대상으로 알아차린다. 개념, 관념의 층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 내가 수행하지 말고 이치대로 수행하도록 한다. 대상은 거친 것부터 나타난다. 거친 것들이 사라지면 미세한 것들이 대상으로 나타난다.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모두 다 받아들인다는 자세로 이치대로 일어나는 법들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알도록 한다. 대상들이 아는 마음에 다가오는대로 힘들이지 않고 알도록 한다. 순간 순간 그렇게 대상-마음, 대상 마음만이 있도록 한다. 〈끝〉

저자 : 이자연 박사

일일시호일

유방암이 앗아간 소박한 꿈…
치료만이 희망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우샤니씨 유방암으로 가슴 절제
전이 가능성 높아 항암치료 필수지만 매회 120만원은 부담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대행 스님

죄가 있든 없든 잘못했든 잘했든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을 하라

… 이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라고, 그 모든 문제 등등이. 그저 될 수 있으면 남의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이고 하는 대로 그 밑의 사람들은 본받게 돼 있거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중들도 말이야, 어느 스님이나 누구나 몇몇 이렇게 보면 꼭 자기 가깝게 있는 스승을 그냥 따라가. 아예 그냥 물이 들어 버려. 그래서 중들이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아이, 그 밥에 그 나물이지. 스승이 그러니 그 제자가 오죽하랴." 이렇게 말이 되게끔 나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누가 자기를 뭐랬다 하고, 누가 또 잘못한다 하더라도 내 모습으로 보고 내 탓으로 보고 내가 저거 해야지, 남의 탓을 하고 남을 원망하고…. 우리 신행회 회장이나 또는 법사들이나 또 포교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지.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갚는 이런 얘기나, 또는 아래로는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도 뿌리에 현명하게 내려 줄 수 있는, 햇빛을 줄 수 있는 그 긍지, 이런 거를 얘기해 주면서 갈 뿐이지,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면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한다든가 또는 뭐, 때에 따라서 저쪽 상대방에서 물어 온다면 "아이, 그런 건 정성을 좀 들여 줬으면 좋겠네." 하는 말은 할지언정, "얼마를 시주를 해라." 또 "천도를 시켜라." 이런 거는 아주 친밀하게 알아서 그런 말이 저거 하지 않거나 웬만큼 아는 사람한테나 그런 말이 먹혀 들어가지, 그렇지 않을 때는 나조차 절대 그런 말은 하지 않아.

내가 저기서 신도를 만나도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 하는 거 봤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쫄딱 망한다든가 뭐, 이러한 언사를 논의한다면 아주 그거는 천부당만부당한 소리거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람은 위로 올라갈수록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조건 없는 사랑. 여북하면 부처가 있고 법신이 있고 보현신이 있고 신장이 있고, 모두가 철 따라서 이렇게 있겠나. 그러니 '법사' 또는 '회장' 하면 그래도 위로 올라갈수록 이 범위를 넓혀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하되 상대방이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거는.

그래서 법사들을 욕을 한다 하더라도, 스님네들을 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스님네나 그 상대방은, 욕을 먹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자기가 해서 자기가 받는 거고, 자기가 해서 자기 업보가 되는 거고, 자기가 해서 업보가 무너지는 거고 이렇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예를 들어서 '아휴, 저거는….'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휴, 저러니까 저렇게 저러지.' 하고 벌써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그냥 밀쳐 버리고, 그냥 한데 합쳐 버리고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조건 없는 마음을 내 줘라. '죄가 있으니까 너는 못 살고, 너는 그러니까 못 살고, 그렇게 모순되니까 못 살고 너는….' 이렇게 하는 거는 조건 없는 사랑이 못 된다, 이거는. 너는 나한테 잘하니까 이렇게 잘해 줘야 하고, 이런 것도 넓어지지 못한 탓이다 이거야.

나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법이. 잘못하는 건 잘못한 대로 저희가 해서 저희가 받는 거지.' 이렇게 그냥 밀쳐 버렸는데 그 후로 생각하니까 모두가 나 아님이 없어. 내가 모자랐던 그 시절의 모습, 내가 전부 그 모습이야. 본래 잘난 사람이 없어. 본래 애당초부터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본래부터 똑똑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모자라도 내가 모자랐을 때 내 모습이요, 아주 망하고 그냥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입이 아주 저거 하고 그런 사람도 바로 전자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하고 그냥 모든 거를 이렇게 넣고, 넣는 반면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소리를 절대 하지 말라 이거야. 이거는 한순간에 없어지고 있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안 된단 얘기야. 그러면 그때는 그만큼 해야만 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단 얘기야.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를 신도들한테 주는 건지 알기나들 아느냐 이거지. 이거를 "너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다면,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게 그 사람 본인 자체도 빼고 낄 수도 없는 거다. 저쪽에서는 저쪽대로 이 공부를 처음부터 몇십 년을 한 것도 아니고, 처음 나오든가 중간이든가 또 얼마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100% 잘못 생각해서 돌아갈 수가 있다. '아, 이게 이런 거라면 둘 아닌 도리를 왜 얘기할까? 이렇게 못 박아지고 이렇게 법이 정망돼 있다면 낮고 높고 둘이 아니라는 소리가 왜 나오나.' 벌써 이걸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둘 아닌 도리라면 그것도 둘이 아니어야지, 응? 때에 따라서 이럴 수는 있지. 아주 친밀하고 마음도 통하고 그런데 볼 때 딱하고 이래서 "아이구, 그것 좀 하면 어때? 그렇게라도 한번 좀 해 봐." 이럴 수도 있지. 그거는 있어. 하지만 제일 나쁜 거는 뭐냐 하면 "너는…." 스님네들 생각을 하고 또 여기 불사 생각을 하고, 그건 좋아. 그러나 그것도 불사를 못 하면 어떻고 하면 어떠냐 이거야, 응? 우리가 언제 적에 재산을 저거 해서 영등같이 불사를 해서 끼고선 불법으로 교화시켰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건 천연적으로 부처님이 알아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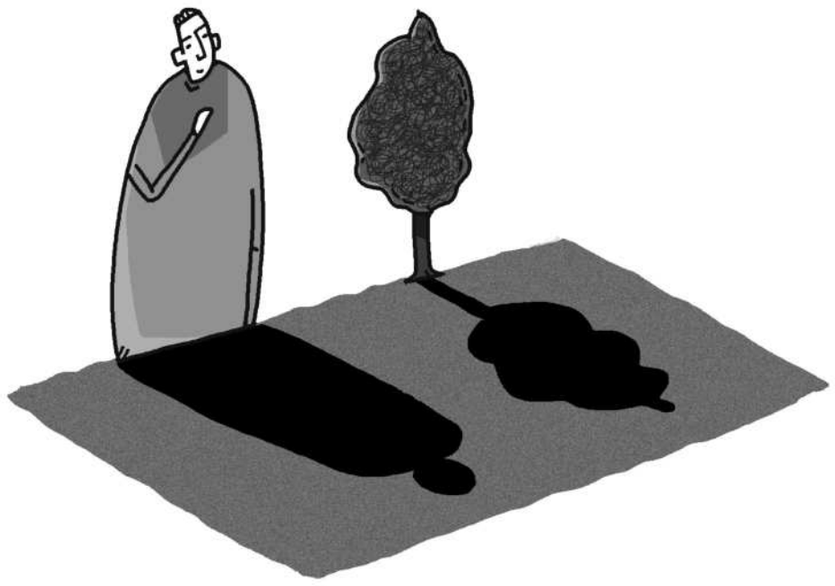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사람들은 '이것을 잘 지어서 빨리 남들처럼….' 이러는데 난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다는 것도 뭐냐. 난 그래서 이렇게 불사가 늦는지도 모르지만, 이게 사부주가 딱 맞아야 되거든. 여기 이 터가 좁은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잘돼서 스스로서 집을 바꿔 가지고 나가도록 기다리니까 그렇게 그런 거야. 조금 더디면 어떻고 빠르면 어떠냐 이거야. 집을 그냥 영등같이 불사를 해서 몇 해를 걸려서 지어 놓고 이렇게 해도 그거 하나도 탐이 안 나요. 좁으면 좁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와서 닿는 대로 하는 거지.

얼른 쉽게 말해서 신도들이 자청해서 감사해서 내놓는 시주하고, 정성 들이는 거하고, 용돈이라도 쓰라고 갖다 주는 거하고, 이거는 자청하지 않고 강제로 "넌 이렇게 해라, 넌 이렇게 해라" 해서 갖다 놓는 거는 그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야. 우리가 세세생생 안 볼 사람도 아니잖아. 왜냐. 모습은 없어질지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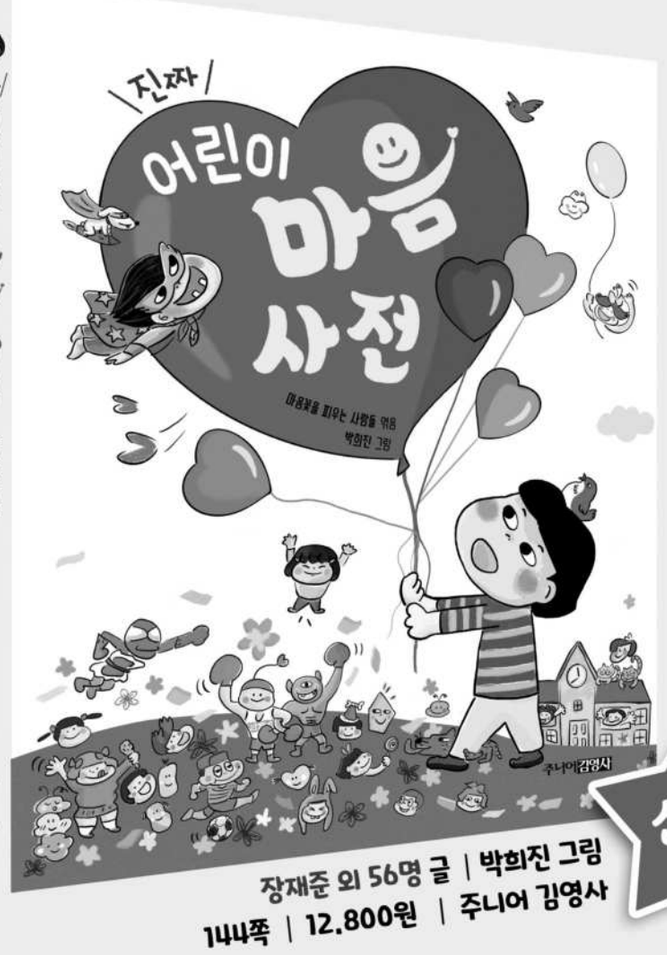
이렇게 금방에 말이야, 금이 반지로 돼 나가든지 목걸이로 돼 나가든지 나가서 돌다 돌다 결국은 거기 또 오게 돼 있어, 금은. 그러나 깡통이라면 돌다 돌다 또 그냥 깡통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왜 인간의 탈을 쓰고, 마음을 가지고, 이목구비를 다 가지고, 오장육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데 왜 금이 못 되느냐 말이야, 본래 금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걸 발견 못 하고, 또 그거를 발견했으면 그대로 그냥 금으로 내보내고 들여보내고 하지 왜 깡통을 거기다가 붙이고 넝마를 붙이고 온통 그렇게 해 가지고 외려 금을 사금이 되게 만드느냐 이 소리야.

그리고 만나면, 이 공부하는 데 토론,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공부하는 데 법사들끼리 모이면 법사들끼리 공부하는 걸 중요시해야지, 무슨 개별적인 딴 사람 얘기, 이런 거 할 그런 장소가 아니지 않으냐 이거지. 그리고 여기에 나를 발견해서 나를 키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우리 법사들 틈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항상 얘기하지. 나를 깨쳤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부착돼서 돌아가야지, 이거는 이것대로 있고 그냥 나오는 대로….

이거는 두 가지 여건이 있다고. 나를 발견

☞ 22면으로 계속

월간 어린이잡지 「마음꽃」 인기코너
〈아무나 쓰는 이야기〉 모음집



우리가 잘 몰랐던
어린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볼까요?

장재준 외 56명 글 | 박희진 그림
144쪽 | 12,800원 | 주니어 김영사

신간!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다.
월요일에는 놀랴,
화요일에는 학교 숙제하랴,
수요일에는 책 읽으랴,
목요일에는 학원 가랴 ……,
금요일에도 또 학원 가랴 ……
초등학생은 바빠도 너무 바빠!
-본문 중에서

인터넷 판매중

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구매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익을 줘야지 해를 줘서 되겠습니까

☞ 21면에서 계속

하기 이전에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냥 들이 해야 하고, 나를 발견해 가지고는…. 그래서 "귀신 방귀털을 먹여서 기르는데 더 먹여도 안 되고 덜 먹여도 안 된다." 이 소릴 한 거야. 이것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그냥 거기다가, 인제는 둘 아닌 도리를 배우려니까, 전에는 그냥 거기다 놓기만 했는데 둘 아닌 도리를 알려니까 상대방이 어떤 걸로 나툴는지도 모르거든. 거지로 나투는 사람도 있고 뭐, 말을 막 하는 사람으로 나투기도 하고 별사람이 다 많거든. 또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것만 보이거든.

그런데 그게 둘 아닌 도릴 가르치려고 자꾸 보이는 걸 모르고, 들리는 거를 모르고, 그 행동하는 걸 모르고, 그냥 자기를 공부시키려고 자꾸 상대방으로 해서 저거 하면 또 그렇게 말린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나투어서 나에게 오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선 자꾸 상대방으로 보게 되면 안 된다고. '아하, 이거는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둘 아닌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에서 공이 튕겨서 저쪽으로 해서 저쪽의 행동을 나한테다 보이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진작 그렇게 알아채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뭐, 별짓을 다 해서 그렇게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한테 오는 거를 나한테 오는 거대로 거기 놓고 '아, 그렇구나.' 하고선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가야 나투는 법이 또 나오지.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바깥으로 끄달리는 거지. 아, 여기서 나오는 대로, 여기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해 나가면 자재하는 게 뭐 있느냐 이거야. 아니, 소가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느냐 이거야. 자기 마음이 나와서 저쪽으로 갈 때는 탁 잡아채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 하고 거기다가 놔야지. 왜냐하면 자기가 어떡하나 보느라고, 어떠한 행동을 하나 보느라고 그렇게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을 거기에 속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나오는 대로 중간 자기가 한번 보라 이거야.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를 자기가 한번 보라 이거야. 봐서 이것이 적합하다면 그냥 여기서 나오는 대로 밀고, 여기서 적합지 않게 나온다면 '아이, 그럭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거기다가 다시 맡겨 놓는 게 다스리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못하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해 놓는다면 이건 자재법이 될 수가 없어. 자재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평등법, 자재법, 이활궁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어쨌든 간에 내 모습으로 보고 그냥 평등하게,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평등하게 그냥 거기다 맡겨 놓고 '에이그, 저것도 몰라서 저런 거지 알면 저럴 수가 없지. 모르는 게 죄지 알면 저렇게 할까.' 하고선 그냥 '저것도 둘 아닌데….' 하고선 맡겨 놓으면 그 사람이 완연히 달라져요.

이 꽃나무도 물을 주고 밥을 주고 이렇게 해서 키우는 거하고 그냥 '에이, 저거는 못됐으니까.' 하고 그냥 물도 안 주고 약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자식도 '저놈의 새끼는 저렇게 하니까 꼭 저렇지.' 하고선 그렇게 해 봤자야 자기 손해지 딴 사람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내 자식이라서만 내 손해가 아니에요. 우주천지가 다, 자기가 한바탕씩은 다 돌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수십억 년을 같이 돌아가면서 왔기 때문에 그거는 공동 죄지 다른 거 없다고. 모두가 같이 돌아가. 여기 부모가 됐다 저기 자식이 됐다가, 여기 부모가 됐다가 저기 자식이 됐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내가 아니겠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나 자체가 그렇게 밀어 던지지 말고 다 그냥 마음으로 넣어 준다면…. 왜, 내가 "아무리 아무리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아무리 아무리 꺼내도 줄지 않는 것이 그거다." 했잖아. 줄어드니 걱정이야 또 늘어나니 걱정이야? 천, 만을 갖다 집어넣은들 두드러지지 않는데 왜 그거를 못 하느냐 이거야. 너그럽게 왜 못 하느냐 이거야.

우리가 점점점점 지혜가 넓어지고, 그래서 계, 정, 혜, 해탈향, 해탈지견향 했단 말이야. 그러면 계율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다스리는 게 계율이거든. 계율도 정에다 놓고 지혜도 정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굴려 가면서 하는 게 바로 수레공법이 아닌가. 이 도리를 모두 알아야지 만약에 신도들한테 그러면, 신도들이 그런 거를 다 알고 저거 한다면 뭐, 별문제지.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가면 고만이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흔들리게 되고 어깨가 외려 무겁게 되는 거야. "시주를 안 하면 너는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깨가 무거워지니까 외려 탈피를 하게 되지. 외려 달아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옹골게 이렇게 아주 따뜻하고, 어깨의 짐을 탁 내려놓은 거와 같이 그냥 걸음을 사뿐사뿐 걷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모두 해야 할 일이라 이거야. 그런데 외려 짐을 지워 주고, 외려….

그래서 난 그러는 거야. 없든 있든 마음이니까 "당신, 정성을 이렇게 많이 들여." 이러지 않아. 왜냐하면 당장 어깨가 무거울 테니까. 이게 병이 있어도 "병 붙을 자리가 없어. 없어." 이렇게 하는 거는 마음을 가볍게 해 주기 위해서 방편을 쓴 거야. 가벼워야 병도 나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오히려 모르는 사람한테 한 짐 지워 주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야. 어린애한테 짐을 지워 주는 거나 똑같단 얘기야. 다 큰 어른한테 지워 주는 거야 아, 지고 가려면 지고 가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린애들은 지워 주면 지워 주는 대로 "너, 이거 안 지고 가면 안 된다." 할 때에 그거 치명적이다 이거야. 모습만 보고 저거 하지 말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스님네들도 상당히 조심하고 나가는데, 말을 이렇게 또 조신하게, 남의 말 안 하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이 말 갖다가 이 말 하고 이 말 갖다가 이 말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된 사람들이야. 쉽게 말해서 깡통이 서로 맞대기만 하면, 부딪치기만 하면 소리가 나듯이,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몇백 년, 몇천 년 먹고살려느냐 이거야. 죽어질 때에, 내가 색경을 보면 머리가 하얗게 됐을 때 '하, 고맙구나, 까맣던 머리가 하얘졌으니. 더 하얘진다면 더 좋겠지.' 이 모두가 하얗게 되는 것은 너 사는 대로, 어떻게 살았든 사는 대로 살면서 몸뚱이도 놓고 가야 한다 하는 신호다 이거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업을 짓고, 뺄 수 없는 업을 짓느냐 이거지. 이것이 누구에게, 얼른 쉽게 말해서 누가 된다는 것은 둘째라. 첫째는 자기가 빼고 길 수가 없는 도리가 된단 얘기지. 누가 되는 건 둘째다 이거지. 셋째는 양면이 다 가난해진다 이거야.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얘기지.

또 자꾸 달아나가니 그건 인연을 지어 줄 수가 없고, 나중에 차 지나간 뒤에 버스 타려면 얼마나 힘들어, 기다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달아나갔으면 또 거기서 지키고 있을 그런 처지가 못 된다 이거야. 그러면 내 한마디를 잘못해서 아주 구덩이에다가, 남을 건져 주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다 오히려 빠뜨리는 격이 되니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으냐.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참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가면 갈수록 제일 첫째는 자기다 이거야. 누구를 떠나서 다 자기야. 둘째에 누가 되고 뭐 어쩌고 그러는 거고, 셋째는 아예 그냥, 자기가 빠질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빠질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냥 입력이 고대로 되는데.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된다고. 안 그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중략)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을 잘되게 하는 일에만 열중해야지 너는 요거는 잘못했으니까 요거 잘못한 값을 받아야 하고, 요건 네가 잘했으니까 잘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이걸 따지면 안 된다 이거야. 무조건, 무조건, 과거의 죄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잘못했든지 잘못 안 했든지 무조건 사랑하라 이거야, 무조건.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을 해라 이거야.

둘 아닌 도리를 가르치려고 자꾸 보이고 들리는 걸 모르고
행동하는 걸 모르고 거기에 말리면 안 됩니다.
자기를 공부시키려고 거기에 그냥 나투어서 나에게 오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 상대방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가 과거에 어떠한 빚을 졌든지,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든지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야. 그 당시에 인연이 돼서 만났으면 만난 대로 좋게 해 줄 뿐이지. 하나라도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라도 가볍게 만들고 하나라도 지고 가는 것 털어놓게 만들고,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르침이 아니야?

그리고 법사 노릇을 하니까 또 내가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야박한 말도 하고 그러지. 야박한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게끔 해서 들을 만치 된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더 넓어지면, 더 그릇이 커지면 더 큰 말을 해 줄 테니까. 지금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하라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야, 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자기도 자기가 빼고 길 수가 없어.

허허,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를 못 찾은 사람이 있으면 찾기에 열중하고 그래야지, 또 끄달리지 말고. 여하간에 내 말에도 끄달리지 말고 거기에다가 쓸 만한 건 다 자기 걸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놓고 그렇게 자유스러운 자유인이 되라 이 소리야. 좀 더 넓어지고 넓어지고 나중에는 바다가 되고, 나중에는 우주 전체가 되고 나중에는 삼천대천세계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본의가 있느냔 말이야. 오히려 빼고 길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 자유인이 될 수 없다면 수레공법이든 활궁공법이든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수레공법 하나 할 줄 모르는데 활궁공법을 할 수 있어, 글쎄?

이건 자유스럽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평등공법은 자연스럽게 평등공법이요, 자연스럽게 활궁공법이요, 자연스럽게 수레공법이지. 그것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자주자주 이렇게, 이걸로도 변하고 저걸로도 변하고 저걸로도 변하는 그런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유스럽게 빼고 길 수가 있어야만 된다 이거야. 아주 그게, 마음의 그 한 치에 의해서인데 말이야. 그거 한 치를 넓히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빼고 길 수 있는 자유인이 못 된다면 그건 안 되잖아.

남한테 짐을 지워 주고 남을 세세생생에 건져지게 하질 못하고 낙오가 되게 만들고. 그게 얼마나 죄야? 그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모두…. 흥부가 자기가 가난해도, 자기가 입을 게 없어도, 자기가 그렇게 지내 보니까 너무도 뼈가 저려서 남이 거적을 쓰고 있는 거 보면 솜이불 갖다가 주고, 또 벌거벗고 있는 거 보면 자기 윗도리라도 하나 벗어서, 해어진 거라도 벗어서 입히고 했듯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익을 줘야지 해를 줘서 되겠느냐 이거야.

내가 "저 불사를 하니까 당신 돈 좀 시주하쇼." 이렇게 하는 거 들어 봤어요? 허허허. 부처님이 있으면 할 거고 없으면 고만인 거지 아니, 사람이 이루종차 말로 해서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원님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서 기름을 짜서 위로 상납을 하고 자기네도 흥청망청 쓰고 그렇게 악하게 한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돼지로 살지 않으면 개로 살고, 개로 살지 않으면 송아지로 살고, 송아지로 살지 않으면 독사로 살고 이런다고. 그 껍데기를 못 벗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게 겁나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명을 벗지 못하고 자기 하나로 인해서 대대손손 그냥 그 껍질을 못 벗게 만드는 그 자체가 문제지. 나만 그냥 들입다 말을 하고 한마디도 못 하게 만들었으니 어쩌지? 하하하.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12월 4일 일반 법회에서 법사단에게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현불 논단

소유보다 가치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네 명의 부인 둔 부호 있었다
불치병을 얻자 부인에게 질문
"나와 저승에도 함께 가겠소?"
둘째~넷째부인 대답은 "싫다"
첫째부인만 긍정적으로 답해

둘째~넷째, 육신 · 재물 의미
첫째부인은 자기자신의 업식
마지막에는 돈 · 권력 무의미
새해엔 '가치 있는 삶'을 살길

다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은 정리와 성찰의 시간이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이 모든 일상을 뒤덮어버린 2021년은 이제껏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20세기 사상가인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물질적 풍요가 가져오는 폐해를 지적하고 인간이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옮겨갈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은 물질 지상주의로 치달아온 인간에게 삶의 본질과 진정한 가치에 대한 재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지혜로운 선(禪) 이야기를 담고 있는 대행 선사의 〈내 마음은 금부처〉에 나오는 '네 명의 부인' 이라는 제목의 예화 한 편을 소개한다. 옛날 어느 나라에 네 명의 부인을 둔 큰 부호가 있었다. 부족함 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던 그에게 어느 날 불치의 병이 찾아왔다.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 백방의 노력을 다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갑작스레 다가온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억울함을 느낀 그는 자신의 부인들을 불러들였다. 첫째 부인을 늘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그였기에 먼저 둘째 부인을 불렀다. "여보, 여태껏 살아오면서 내가 당신을 잘 돌봐주지 않았소. 좋은 옷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 먹여주며 편히 지내게 해주지 않았소? 그러니 내가 죽으면 나랑 함께 가 주지 않겠소"라고 물었다. 둘째 부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매몰차게 거절하며 방을 나가버렸다.

그러자 부호는 셋째 부인을 불러 물었다.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으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지요? 그 정을 생각해서 나를 따라가 줄 수 없겠소."

이에 셋째 부인은 당신이 나 좋다고 쫓아다닌 것이지 내가 당신을 쫓아다닌 것은 아니잖느냐며, 그간의 정을 봐서 대문까지는 바래다주겠다고 말하며 방을 나갔다. 마지막 희망을 걸며 부호는 넷째 부인을 불러 말했다. "당신은 내가 누구보다도 극진히 위하고 사랑했던 부인이오. 외출 중에도 무슨 일이라도 날까 봐 당신 걱정에 늘 노심초사했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잖소. 그러니 나 죽으면 함께 가 주지 않겠소?" 이에 넷째 부인은 "잘 알고 있지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묘지 앞까지는 따라가 드리지요"라며 사양하는 것이었다.

더한 절망감을 느끼며 그는 마지막으로 첫째 부인을 불러 하소연하듯 청했다. "한평생 당신을 외면하고 등한시하고 살아와서 정말로 미안하오. 하지만 처음 부부의 인연을 맺은 당신이니 나와 함께 저승길을 같이 가주지 않겠소? 너무 외롭구려." 이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첫째 부인이 말했다. "당연히 같이 가 드리지요. 당신이 잘났든 못났든,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당신이 누구와 함께 가겠어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인들 중 둘째 부인은 우리의 몸을 뜻하며, 셋째 부인은 재물이나 권력을, 그리고 넷째 부인은 자식이나 부부와 같은 가족을 말한다. 첫째 부인은 바로 자신의 업식이다. 죽음이라는 삶의 종착점에서 모든 인간은 육신과 가족, 재물이나 권력과 이별해야 한다. 반면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행위와 생각의 결과로 기록되어진 업식은 떼려야 뗄 수 없이 우리를 따라붙어 다닌다. "살아생전에 아귀축생의 마음을 쓰고 살았으면 아귀축생계를 면치 못할 것이고, 살아있을 때 천상의 마음을 많이 냈던 사람은 죽어서도 극락에 가는 이치가 여기에 있다"고 대행 선사는 설파한다.

이 예화는 코로나19로 얼룩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소유의 삶 대신 존재의 삶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던 프롬의 주장처럼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유보다 존재의 가치를 찾는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해본다. 만물만생과 더불어 공생(共生)하는 인류가 공심(共心)과 공체(共體)로 공용(共用)하고 공식(共食)하는 길이 열리기를 발원한다. 이를 위해 마음씀씀이와 일거수일투족의 행동을 지켜보고 성찰하며 살아가는 생활 속의 수행에 게으르지 않았으면 한다.

社 說

한국불교 禪 대중화 기대한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중봉성파 대종사가 조계종의 새 종정에 추대되면서, 한국불교 선 중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다.

성파 대종사가 걸어온 족적과 이로 인해 쌓여온 대중적인 인지도가 남다르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성파 대종사는 수행자인 동시에 예술가다. 세간의 시선으로 '예술하는 스님' 이라는 독특함은 스님의 인지도를 넓히는 토대가 됐다. 여기에 스님의 소탈한 성품과 깊은 통찰이 더해지면서 남다른 예술세계로 주목받았다. 21년 간 도자기를 구워 16만 도자대장경을 조성하고 장경각을 건립해 봉안하는가 하면, 천연염색, 새로운 옻칠기법을 개발해 사찰단청과 건축, 도자기 등 폭넓은 영역에 적용시키기도 했다. 사찰로부터 유래한 한국 전통회화인 민화에 옻칠기법을 접목하는 등 다양한 예술영역을 개척했고, 불화, 경전 등 사찰불사의 바탕인 우리 한지(韓紙) 개발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 같은 노력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넘어선 현대화 · 대중화를 이끄는 매개가 됐다. 사찰에 내재된 전통문화와 예술을 발굴해 선과 접목한 '선예일치(禪藝一致)' 의 작품세계가 탄생한 배경이다.

성파 대종사의 예술은 그 자체로 곧 '선' 이다. 대종사의 작품을 만난 이들이 선적인 사유를 경험하고 찬탄하는 이유도 그에게 있어 예술과 수행은 둘이 아니기 때문이리라. 성파 대종사는 환성문하 13세존으로 법맥을 계승한 선지식이기도 하다. 2002년 은사이자 영축총림 방장이었던 월하 대종사로부터 전법게와 함께 법맥을 이어받았다.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대중에게 내릴 가르침을 기대한다. 또한 이를 통해 '선' 의 대중화를 견인하고 새로운 형태의 불교중흥을 이끌기를 발원한다.

불자 교육 · 조직화 관심가져야

올해도 어김없이 여론조사기관들의 종교 지표 조사 결과들이 나왔다. 가장 최근의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이뤄졌다. 한국리서치의 종교지표 정기여론조사에서는 몇 가지 눈길을 끄는 항목이 있었다.

우선 50대 이상에서 '믿는 종교가 없다' 는 응답이 증가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50대의 '무종교' 응답은 2018년보다 6%로 높은 46%였으며 50대 불자 인구 비율은 3%가 감소했다. 이는 60대 이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장년 ·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불교에게 50대 이상 연령층의 이탈은 뼈가 아프다. 또한 1년 간의 종교 변화를 묻는 질문에 1년 전 불자였던 사람 중 12%가 "종교 없음"이라고 답했다. 개신교도 같은 질문에 12%가 무종교인으로 전향했음을 밝혔고, 천주교는 8%가 전향했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한국갤럽이 지난 5월에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조사(1984~2021)' 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전을 얼마나 읽는가' 는 질문에 불자 중 1%만 매일 읽는다고 했고, 매일 기도하는 불자는 5% 밖에 되지 않았다. 경전도 읽지 않고, 기도와 수행도 하지 않는 게 현재 한국불교의 현실이다. 자칭 '수행의 종교' 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울 정도다.

이는 불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경전을 읽지 않고, 기도나 수행을 하지 않으니 만족도가 생길 리가 만무며 소속감도 갖지 못한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종교에서 더 멀어지게 했다.

좋은 수행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포교가 먼저다. 포교는 교육과 이를 통한 조직화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화 · 조직화된 충성 신도 양성은 앞으로 불교의 화두가 돼야 한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한국의 외국인 스님들

이번에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의 현황과 역할을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점차 국내에 이주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활발한 포교 활동 수행을 위하여 세계 곳곳의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스님들은 대략 50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그중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몽골, 일본, 대만, 중국, 티베트 등으로 아시아 국가가 대다수이며, 그 외 미국 등 서양에서 온 스님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국내 스님들의 수가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국에는 140개국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이는 한국 총인구 대비 5.5%이므로 다문화 국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다수가 이주 노동자이고 이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 국가에서 온 불자들이 10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외국인 스님 500여 명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온 스님들은 출가, 유학, 포교 등의 목적으로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스님이라면 타국인 이 나라에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컨대 언어, 기후, 문화 등으로 나눠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극복해야 하는 것은 언어적응으로 '한국어' 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출가한 스님이라면 제대로 된 언어를 배워야 포교와 의사소통까지도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갖춰진 학교나 교육 장소에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시는 모든 스님들은 적어도 1년은 한국어 교육기관(어학당)에 입학해 공부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의 기후도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사계절마다 해당되는 계절의 옷을 준비해서 입어야 합니다. 겨울 양말, 내복 등 대부분 아시아 더운 나라에서 온 스님들은 지금까지 접해 보지 않은 것들이라 입기가 쉽지 않습니다. 겨울을 잘 이해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월동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문화적인 어려움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적응해야 하는 것은 음식문화로 오자마자 곧바로 한국음식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입에 맞는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음식을 "처음 먹기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인구보다 2배 빠르게 늘어나는 이주민들,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이주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조절하고 상호 공존을 위한 스님들의 중간자(매개체) 역할은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스님이라면 대한민국 사회를 남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불교도 비로소 함께 빛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래오래 머물기 위해 그처럼 애쓰는 모든 스님들께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끝〉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또 다시 닥친 코로나의 위기와 공포!!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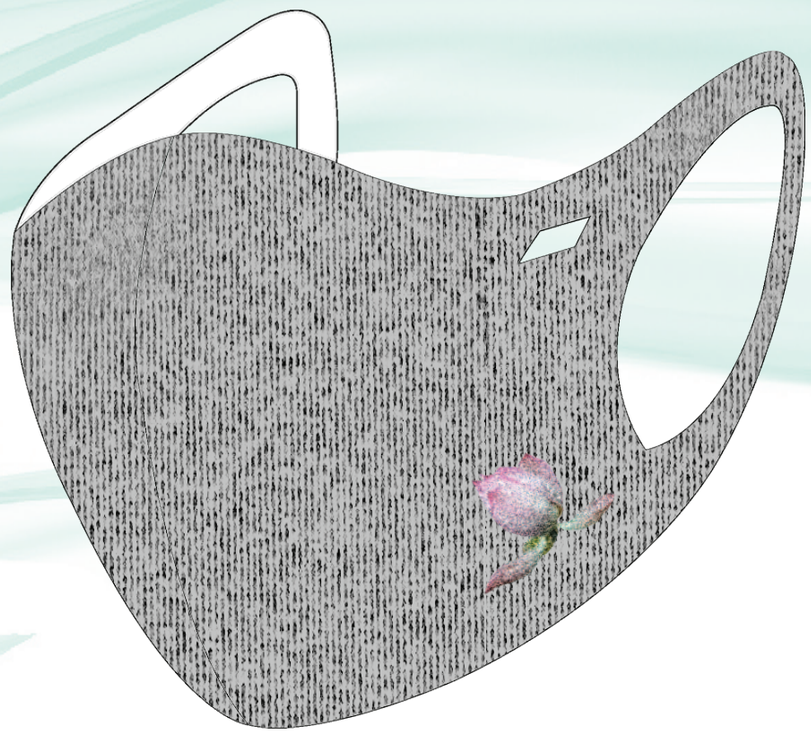
FDA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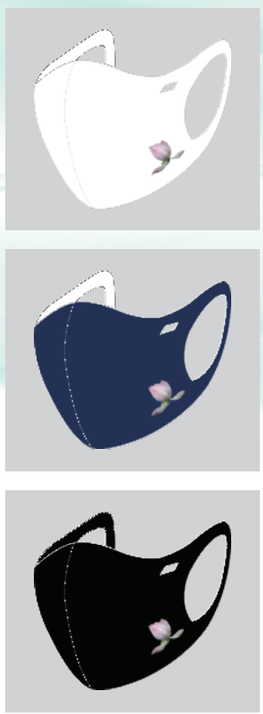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연꽃마스크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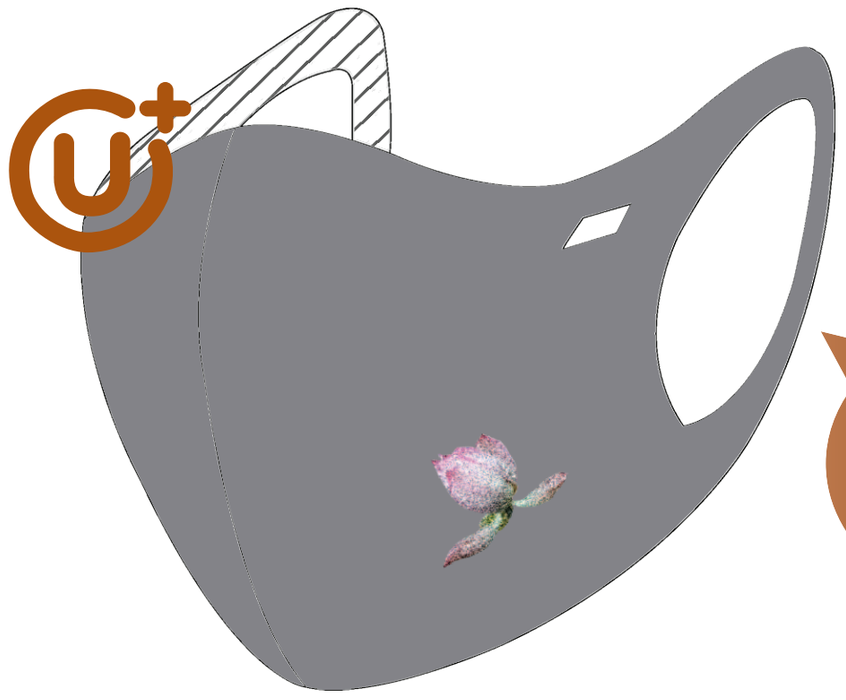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기능성 비말차단 연꽃마스크 (연꽃문양/5색)

2중 압축 NEW!!

기능성 비말차단 **연꽃마스크**는 이중압축으로 제작하여 기존 제품보다 발수기능이 우수한 **숨쉬기 편한 마스크** 입니다.

기존제품과 다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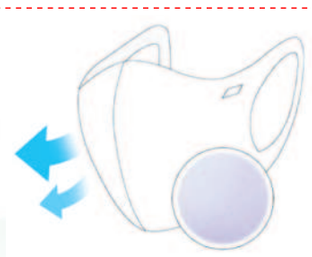
1.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합니다.
2.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아 숨쉬기가 편안합니다.

색상별 1세트 (100장)
~~550,000원~~ → **350,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 연꽃마스크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제작기간은 5~7일 소요 ※ 최소주문수량은 색상별로 100장 이상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